

Coverage List

■ 지면보도 ■ TV방송
 인터넷 기사

No.	매체명	게재일	섹션	헤드라인
163	뉴시스	2014.06.16	문화/생활	창원조각비엔날레,건축·조경·설치·미디어아트확대...'달그림자'
162	뉴스핍	2014.03.13	생활경제	글렌피딕 공모전에 국내 대표로 설치미술 한원석 작가 당선
161	한국경제tv	2014.03.13	최신뉴스	글렌피딕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한원석 작가 공모전 당선
160	아크로팬	2014.03.13	뉴스	글렌피딕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한원석 작가 당선
159	월간 디자인	2013.11	inspiration	해외 디자이너의 한국 기념 사진전
158	건축문화	2013.03	focus	작업을 건축하다
157	연합뉴스	2012.12.12	문화	블루스퀘어 네모 '2012 It award' 수상
156	머니투데이	2012.12.07	문화	블루스퀘어 문화공간 NEMO 우수디자인 선정
155	CNB저널	2012.12.07	문화	복합문화공간 nemo '2012 It Award' 환경 공간부문 선정
154	CNB저널	2012.06.04	문화	"컨테이너가 예술을 날라요"
153	경향신문	2012.06.04	문화	미술관으로 환생한 컨테이너
152	머니투데이	2012.06.01	생활문화	극장 마당의 컨테이너 "속이 예술이네"
151	노컷뉴스	2012.05.30	공연/전시	블루스퀘어,복합문화공간 'NEMO'개관... 공연장 넘어 문화트렌드 조성
150	뉴시스	2012.05.30	속보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식
149	뉴시스	2012.05.30	속보	라오미 작품 소개하는 한원석 작가
148	뉴시스	2012.05.30	속보	NEMO 설계 개요 설명하는 한원석 작가
147	스포츠서울신문	2012.05.30	감성놀이터 휴 - STAGE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 마당에 새 복합문화공간 '네모' 개관
146	한국일보 서울경제	2012.05.30	문화 LIFE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문화공간
145	ACROFAN	2012.05.24	공연/전시	블루스퀘어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개관
144	CNBNEWS	2012.05.24	문화/생활	이태원서 공연과 순수 미술 등 '종합 예술' 경험
143	NEWSTOMATO	2012.05.24	생활경제	인터파크씨어터, 31일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 개관
142	OSEN	2012.05.24	문화/공연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141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05.24	문화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내 새 복합문화공간 개관
140	뉴시스	2012.05.24	속보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복합문화공간 생겼다. '네모'
139	헤럴드 경제	2012.05.24	연예/스포츠	블루스퀘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개관한다.
138	TVREPORT 방송전문인터넷미디어	2012.05.25	공연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네모'개관...한원석 설계작
137	뉴스웨이브	2012.05.25	문화	블루스퀘어 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개관
136	헤럴드 경제	2012.05.26	라이프	뮤지컬극장 '블루스퀘어'에 갤러리 '네모' 생겼다.
135	매일경제	2012.05.28	종합	공연장 옆 미술관...블루스퀘어에 전시공간
134	ART NEWS	2011.10.18	Installations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133	사회안전신문	2011.10.18	공연/미술/전 시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132	서울디지털신문	2011.10.18	행사·전시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 한원석 작가 '형연' 전 시
131	뉴스와이어	2011.10.18	행사·전시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130	위키트리	2011.10.18	문화·연예	3,088개 스피커를 6,000번 넘는 낱땀으로 용접해 완성
129	원펀치뉴스	2011.10.18	문화·연예	3088개 스피커로 만든 '형연', 대중상영화제 무대위 전시
128	코리아뉴스타임	2011.10.18	연예	[tv]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형연' 전시

Coverage Clipping

127	노컷뉴스	2011.10.18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126	트렌디	2011.10.18	문화>전시회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125	KBS2	2011.10.17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124	심	2011.09-10	문화/생활	'형연' 표지 장식/ 중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담아내다 형연 洞然
123	시민일보	2011.10.04	인천자치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 활짝
122	PUBLIC ART	2011.10	Artist	현실을 대하는 송고한 이상주의
121	경향신문	2011.09.30	사회	인천시청 앞에 에밀레종 같은 '평화 기원 종' 작품 전시
120	서울신문	2011.08.11	사설·오피니언	아외수, 인천아트플랫폼
119	서울신문	2011.08.11	사설·오피니언	[문화마당] 이외수, 인천아트플랫폼/신동호 시인
118	월간 디자인	2011.08	Inspiration	버려진 담배꽂초, 작품으로 환생하다 한원석의 악의 꽃
117	서울신문	2011.07.30	문화	분쟁은 가라앉고 화해는 떠오르다
116	씨앤비뉴스	2011.07.28	ART IN	독특하고 다양한 현대미술로 만나는 지구
115	PUBLIC ART	2011.06	전시 리뷰	무의식이 들려주는 말을, 소리를, 침묵의 언어를 듣다
114	주간한국	2011.05.16	ARTS	한원석 개인전-화해
113	ART NEWS	2011.04.27	Installations	갤러리 압생트, 한원석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 개최
112	에이앤뉴스	2011.04.18	문화	화해(花解) 꽃을 풀어내다 Reconciled
111	동아일보	2011.04.26	문화	차가운 '기술'이 따스한 '예술'로...
110	파이낸셜뉴스	2011.04.22	사회	갤러리 압생트 개관... 한원석 '화해'전
109	한국경제	2011.04.21	Life & Culture	한원석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 개최
108	월간미술	2011.04	전시	전시안내
107	스포츠월드	2011.04.18	문화	버려진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106	스포츠월드	2011.04.17	연예·문화	버려진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105	씨앤비뉴스	2010.12.10	문화 생활	2010년 제2회 Korea Tomorrow
104	뉴시스	2010.12.05	생활/문화	미술·디자인·건축 '코리아 투모로우...접속관계'
103	뉴시스	2010.12.05	생활/문화	코리아 투모로우, 이지연 '워킹 온 에어(Walking on Air)' 49.5X99cm·2010
102	파이낸셜뉴스	2010.12.04	문화>미술	미술 디자인 건축 '발칙한 상상력' ...8일 '코리아 토머로우'展
101	에이빙뉴스	2010.11.16	생활/문화	세라믹과 예술의 만남, '2010 세라믹 아트&테크놀로지' -②테크아트관
100	매일경제	2010.11.15	생활/문화	내가 '왕중왕' ...아우디 뉴A8, 8년만의 화려한 '귀환'
99	디지털타임스	2010.11.09	금융/재테크	하나은행 본점 예술무대 변신
98	동아일보	2010.11.09	경제	세라믹 전시회 "세라믹, 아트&테크놀로지 - 세라믹 데카르트를 만나다"
97	디지털타임스	2010.11.08	경제	하나은행 본점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96	파이낸셜뉴스	2010.11.08	경제	하나은행 "본점 예술작품 설치운영"
95	브레이크뉴스	2010.11.08	경제	하나銀, 본점 주변에 예술작품 설치
94	이투데이	2010.11.08	경제	하나銀 본점 건물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93	경제투데이	2010.11.08	금융	하나은행 본점 건물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92	서울신문	2010.11.05	생활·문화	전통·상상이 만났다 10~13일 '...테크놀로지전' 세라믹 아트의 향연
91	아시아경제	2010.11.04	경제	아우디 신차 행사서 협회 '역할론' 대두된 까닭
90	아시아경제	2010.11.04	산업	아우디 신차발표 흥행실패는 수입차協 탓?
89	경향신문	2010.11.03	문화	[단신] 10일부터 세라믹 체험 전시 외
88	머니투데이	2010.11.03	경제	아우디 A8 초호화 출시... "올해만 400대 판다"

Coverage Clipping

87	오토타임즈	2010.11.03	수입차>신차	아우디코리아 '뉴 아우디 A8' 발표
86	뉴시스	2010.10.31	IT/과학	세라믹, 데카르트 Tech Art를 만나다
85	연합뉴스	2010.10.29	문화	<문화소식>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展
84	공감코리아	2010.06.12	정책정보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83	뉴시스	2010.06.11	사회	11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82		2009.12		The Most dynamic sedan, New Audi A8
81	뉴시스	2009.12.16	사회	송년에 빛나는 첨성대의 빛
80	지북	2009.07	Architecture & Interior	HAN WON SUK 한원석
79	경기일보	2009.06.19	문화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7가지 것들...
78	월간미술	2008.10	문화	비정형과 방출 혹은 다양한 오해의 자유
77	연합뉴스	2008.09.10	문화	미리 가 본 2008 부산비엔날레 주요 작품들
76	국제신문	2008.09.09	문화	'낭비'의 탐닉 vs '주제없는' 파격
75	국민일보	2008.09.09	문화	미술의 도시 광주·부산 그곳에선감동도 작품
74	연합뉴스	2008.09.08	생활/문화	추석연휴 나들이 유혹하는 미술전시
73	서울경제	2008.09.07	문화	광주·부산은 지금 미술축제중
72	아시아투데이	2008.09.07	문화	2008 부산비엔날레에는 어떤 작품이?
71	조선일보	2008.09.06	아트	'젊은 감성 눈길' 부산 비엔날레
70	연합뉴스	2008.09.06	문화	부산 비엔날레, 한원석의 조형물
69	연합뉴스	2008.09.06	문화	'젊은 감성 눈길' 부산 비엔날레
68	연합뉴스	2008.09.03	문화	미리 가 본 2008 부산비엔날레 주요 작품들
67	부산일보	2008.09.03	문화	[2008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에게 듣는다] ③ 부산조각프로젝트 이정형 감독
66	한겨레	2008.09.02	문화	'낭비는 나의 힘' 과잉사회 형상화
65	세계예술	2008.09	문화	To Sum Up "A Kind of Box and Beedle of Art"
64	부산일보	2008.08.28	문화	'예술적 낭비'는 모두를 생존하게 만드는 힘
63	Art Charity china	2008.08.28	Special Topic	Something, that dieing'
62	世纪在线中国艺术网	2008.08.28		Something Dieing—Han Won Suk Exhibition
61	藝術國際	2008.08	正文	"钟"韩沅锡个展
60	중국매체	2008.08		
59	동아일보	2008.08.16	국제	"두두두~둥" 고구려 天舞에 쫓진청이 숨죽였다
58	동아일보	2008.08.16	국제	"두두두~둥" 고구려 天舞에 쫓진청이 숨죽였다
57	뉴시스	2008.08.15	세계	<베이징2008>중국의 예술특구에서 열리는 한국 전시회
56	뉴시스	2008.08.15	세계	<베이징2008>페 스피커로 만든 성덕대왕신종
55	뉴시스	2008.08.15	세계	<베이징2008>페 스피커로 멋진 작품을!
54	서울신문	2008.08.15	문화	[거리 미술관 속으로]<71>중구 하나은행 앞 '환생'
53	서울신문	2008.07.22	지역	스스로 빛이 된 21세기 첨성대
52	월간 디자인	2008.03	Design hour	디자이너들의 말, 말, 말
51	문화일보	2007.06.11	경제	미술관? 은행! 하나銀
50	서울아트가이드	2006.12	글이있는그림	과속, 환생! 그리고 이음
49	한겨레	2006.12.28	문화	한국 화랑 베이징물려가 문화전쟁
48	월간미술	2006.11	Sight & Issue	청계천에 선보인 <스프링>과 <첨성대>
47	Sign	2006.11		'첨성대' 페헤드라이트로 청계천을 밝히다
46	세계일보	2006.10.23	지역	서울시, 이름 알리기 '가슴앓이'
45	경향신문	2006.10.15	문화	[도시가 꾸는 꿈] 첨성대와 청계천
44	동아일보	2006.10.12	문화	車 헤드라이트로 만든 청계천 첨성대
43	연합뉴스	2006.10.11	사회/문화	청계천 밤풍경 빛내는 첨성대

Coverage Clipping

42	서울경제	2006.04.18	문화	국내 화랑 中진출 줄잇는다
41	서울신문	2006.04.18	문화	中현대미술 열풍 지금이 꼭짓점?
40	경향신문	2006.04.17	문화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투기장 방불 中작가작품 대부분 첫날 '매진'
39	국민일보	2006.04.17	사회	中 문화특구에 예술한류 심어요
38	경향신문	2006.04.16	문화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투기장 방불
37	연합뉴스	2006.04.14	세계	<중국 진출 한국화랑들 정착 안간힘>
36	경향신문	2005.12.12	문화	한국미술 세계무대 향한 발판 화랑 중국진출 봄
35	Art China	2005.09	Art scope	Banana surfer 전시 소개
34	Art and culture	2009.09	문화	Banana surfer 전시 소개
33	Korea Tatler	2005.09	KT Culture Space	아티스트 한원석의 행복한 사치
32	Art in culture	2005.08	미술	이음 오픈소식 / 바나나 서퍼 전시 소개
31	좋은아침	2005.08	소식	이음 오픈소식
30	JingHan	2005.08	소식	이음 오픈소식
29	아트 프라이스	2005.08	문화	이음 오픈소식
28	SBS	2005.08.07	문화	중국, '모여서 하는 예술' 유행
27	문화일보	2005.08.01	문화	베이징에 韓·中 미술교류공간 탄생
26	Time Our Beijing	2005.08	문화	The Knowledge/My name is... Han Won Suk
25	Koco	2005.08	문화	대산자 예술구 798 공장
24	월간미술	2005.07	기획	Banana surfer 전시 소개
23	경향신문	2005.07.28	문화	[미술단신] 덕수궁미술관, 신한카드 제휴 外
22	서울경제	2005.07.27	문화	베이징 예술특구에 한국문화공간 첫선
21	KBS	2005.07	수요기획	베이징 예술특고 798 소개, 이음 대표 인터뷰
20	동북저널	2005.07.25	네트워크차이	이음 오픈 소식
19	조선일보	2005.07.21	인물	"한국 순수예술 中 진출 교두보 마련"
18	조선일보	2005.07.20	인물	"한국 순수예술 中 진출 교두보 마련"
17	연합뉴스	2005.07.21	문화	중국 베이징에 한국 최초 문화교류공간
16	Mori Art Museum	2004.05	전시	
15	샘터	2003.09	한점마의 그림과 대화하기	아름다움을 배반하다
14	동아일보	2003.08.05	문화	꿈꾸는 오브제展
13	세계일보	2003.08.05	미술	일상과 미술 경계 허문 초현실주의 이후의 사조
12	동아일보	2003.08.05	문화	[전시] '공원 심포 사람들 展' 外
11	세계일보	2003.08.04	문화	[미술]일상과 미술 경계 허문 초현실주의 이후의 사조
10	조선일보	2003.07.30	미술	입체 설치작 '꿈꾸는 오브제'展
9	동아일보	2003.07.16	문화	'악의 꽃-한원석'展
8	동아일보	2003.07.15	문화	[전시] '플리즈 비 콰이어트展' 외
7	YTN	2003.07.13	연예	꽃가루와 담배공초의 미학
6	주간동아	2003.07.10	문화	공초가 재료 '담배작가' 한원석
5	한국경제	2003.07.09	문화	버려진 담배공초, 美를 빚어내다
4	중앙일보	2003.07.09	문화	담배공초, 그것은 '악의 꽃'
3	중앙일보	2003.07.09	문화	담배공초, 그것은 '악의 꽃'
2	한국경제	2003.07.08	문화	버려진 담배공초, 美를 빚어내다.. 아트사이드 한원석 개인전
1	VOGUE KOREA	2005.12	인물	PEOPLE ARE TALKING ABOUT 악의꽃, 한원석

Coverage Clipping

MEDIA	ART NEWS		
DATE	2011.10.18	SECTION	공연/미술/전시

작가 한영석의 작품 '형언'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By J00034M KOL - Tue Oct 18, 9:30 pm

4 Comments [댓글](#)

[도움](#) / [1](#)

[00](#) [00](#) [00](#) [00](#)

[Print](#) [Share](#)



작가 한영석의 작품 '형언'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영석의 '형언(無言)'은 <달콤 소리가 깊고 증증하게 귀진다> 라는 작품의 마지막집 곡호 제29호로 지점된 설악대 할 신공을 30여개의 스피커를 모아 일방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설악대할 신공은 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잊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찾고 살아한 풍수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불내재다. 설악대할신공을 만들기 위해 일대 최고의 장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 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언'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옮겼고, 2종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팀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설악대할 신공을 완성하기 위해 여객이외의 회원이 있었 다는 경이로운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영석의 치열한 시후와 그대도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영석이 6000개가 넘는 납품을 통해 '형언'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영 찬 열이 회선을 다하 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당시 반 천 년의 역사 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영석의 '형언'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강제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미묘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회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긴장한 축제의 열이 되기 바라는 작 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오한 고유의 거리를 상상할 채 버려진 가치에 빛의 실을 부여함과 동시에 한이민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 치들의 소용돌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홍지 HLAB

HLAB 소개 HLAB는 전시회 및 갤러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사회안전신문		
DATE	2011.10.18	SECTION	공연/미술/전시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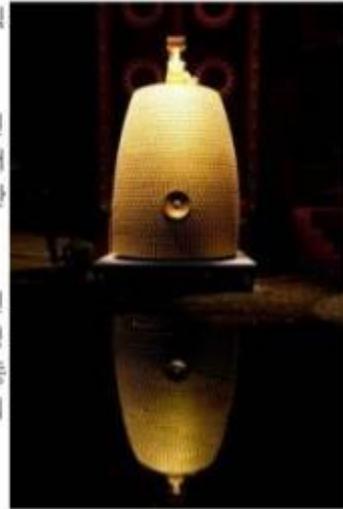
2011/10/18 20:00 입력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원석의 '형연(泐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씻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맑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처절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낱땀을 통해 '형연'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원석의 '형연'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 시금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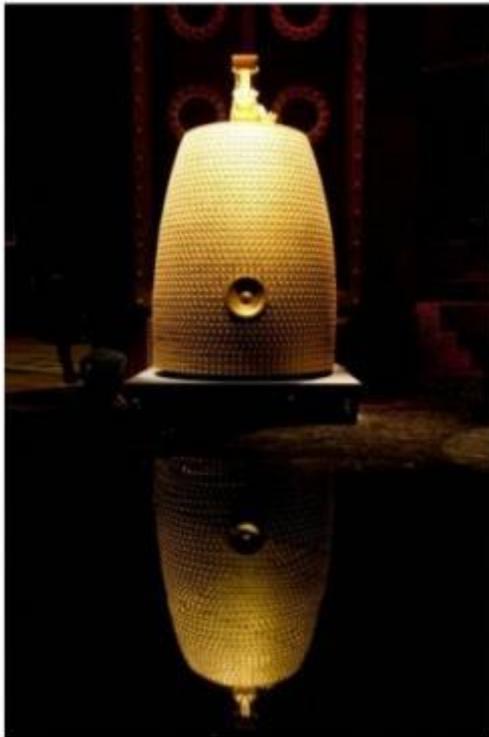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디지털신문		
DATE	2011.10.18	SECTION	행사·전시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 한원석 작가 '형연' 전시

2011년 10월 18일 (화) 17:41:58

서울디지털신문 ☎ webmaster@sodnn.kr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됐다.

한원석의 '형연(泐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 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씻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받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됐다.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

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철저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낱팜을 통해 '형연'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원석의 '형연'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와이어		
DATE	2011.10.18	SECTION	행사·전시

[이메일](#)
[+컴퍼니](#)
[스크랩](#)
[프린트](#)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홍인=뉴스와이어) 2011년 10월 18일 —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원석의 '형연(泐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음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음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헛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달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음 완성이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치열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낭독을 통해 '형연'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의 영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원석의 '형연'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출처: HLAB

HLAB 소개

HLAB는 전시회 및 갤러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위키트리		
DATE	2011.10.18	SECTION	문화·연예

3,088개 스피커를 6,000번 넘는 납땜으로 음집해 완성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은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인 한원석의 '형연'이 제46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형연(淸然)'은 3,088개의 스피커를 6,000번이 넘는 납땜으로 음집해 완성한 작품으로,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동원했다.

'맑은 소리가 깊고 음은하게 퍼진다'는 제목의 '형연'에는 청선을 다해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이 3,000개의 스피커를 통해 세계만방으로 퍼져 나가기를 희망하는 한원석 작가의 소망이 담겨있다.

한원석 작가가 실물 그대로 재현한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반영되었으며, 12만근의 구리가 사용되었다.

- '형연'에 대한 '황 두'씨의 말 -

프레지에서 수거된 3088개의 스피커는 중앙최고의 범종 성덕대왕신종 크기(폭2.3m 높이3.7m)와 소리의 가치를 그대로 재현했다. 우리는 종으로 재구성된 폐 스피커는 하나하나의 존재가 울림을 상징하고, 이는 그대로 청각적 기능을 가진 성덕대왕신종 자체의 존재의미와도 통한다.

이번 전시 형연"淸然"은 버려진 가치들의 효용을 되살리고, 극단적 소비사회의 단편과 범람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버려지는 가치의 재구성 작업을 보여준다. 시대상황에 따라 언젠가 재정의 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서의 프레기는 작가만의 통찰력으로 인간과 자연의 환경적 소통,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 소통을 시도한다.

형연은 프레기를 단순히 실재적 대상으로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재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 재 버려진 가치에 재정의 삶을 부여한다.

- 황 두

Coverage Clipping

MEDIA	원펀치뉴스		
DATE	2011.10.18	SECTION	문화·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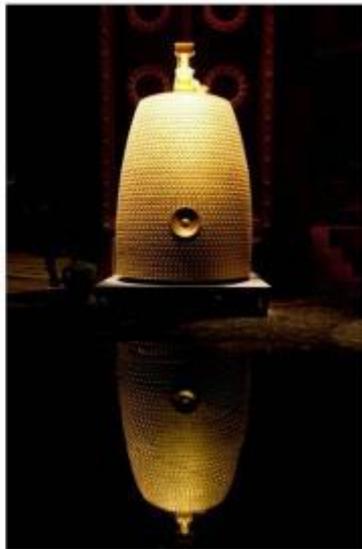
3088개 스피커로 만든 '형연', 대중상영화제 무대위 전시

조회 1309 | 북위티뉴스 555905 | 2011-10-20 01:56:10 | 조우남



3,088개 스피커를 6,000번 넘는 낱말로 편집해 완성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설악대팔 신중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인 한원석의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형연(惺然)'은 3,088개의 스피커를 6,000번이 넘는 낱말로 편집해 완성한 작품으로,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동원했다.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는 제목의 '형연'에는 최선을 다해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경성이 3,000개의 스피커를 통해 세계만방으로 퍼져 나가기를 희망하는 한원석 작가의 소망이 담겨있다.

한원석 작가가 실물 그대로 재현한 설악대팔 신중은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으며, 12만근의 구리가 사용되었다.

- '형연'에 대한 '황 두'씨의 평 -

프래기에서 수거된 3088개의 스피커는 통상최고의 범용 성악대용신중 크기(폭2.3m 높이3.7m)와 소리의 가치를 그대로 재현했다. 울리는 울음으로 재구성된 퍼 스피커는 하나하나의 존재가 울림을 상징하고, 이는 그대로 청각적 기능을 가진 성악대용신중 자체의 존재의미와도 통한다.

이번 전시 형연"惺然"은 버려진 가치들의 효용을 되살리고, 극단적 소비사회의 단편과 범람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버려지는 가치의 재구성 작업을 보여준다. 시대상황에 따라 언젠가 개정의 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서의 프래기는 작가만의 통찰력으로 인간과 자연의 환경적 소통,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 소통을 시도한다.

형연은 프래기를 단순히 실재적 대상으로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재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유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한다.

Coverage Clipping

MEDIA	코리아뉴스타임		
DATE	2011.10.18	SECTION	연예

[tv]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형연' 전시

기자 : 곽진희 날짜 : 2011-10-18 (화) 17:51  글자확대 ▲ 글자축소 ▼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원석의 '형연(洞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씻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맑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처절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납땀을 통해 '형연'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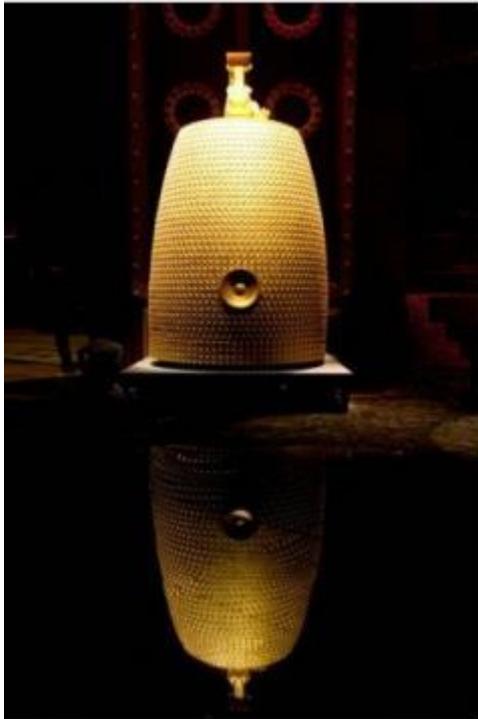
한원석의 '형연'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노컷뉴스		
DATE	2011.10.18	SECTION	

한원석 작가 '형언',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동인=뉴스와이어) 2011년 10월 18일 --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언'이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원석의 '형언(惺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잊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앓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언'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옮기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처절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납땀을 통해 '형언'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원석의 '형언'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뉴스출처: HLAB

회사소개: HLAB는 전시회 및 갤러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언론문의처 : HLAB 홍보팀 김정희 과장 010-2768-1751 wonsookhan@hotmail.com

Coverage Clipping

MEDIA	트렌디	SECTION	문화>전시회
DATE	2011.10.18		

한원석 작가 '형연',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

2011.10.20 10:01 입력



작가 한원석의 작품 '형연'이 제48회 대중상영화제 시상식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한원석의 '형연(洞然)'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 하는 작품의 제목처럼 국보 제29호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한반도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한 통일신라가 아직도 씻기지 않은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을 달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고자 만든 종(鐘)이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이 동원되었고 구리는 12만근이나 사용되었다.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까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방식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다는 전설은 작품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한원석의 처절한 사투와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다.



영화는 작품이다. 한원석이 6000번이 넘는 납땀을 통해 '형연'을 완성한 것처럼 영화 역시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낸 작품이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대중상영화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유일한 영화제로 벌써 반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한원석의 '형연'에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경계 없이 어디든 퍼져나가는 작품의 소리처럼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화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영화인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다스림 되새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출처 : H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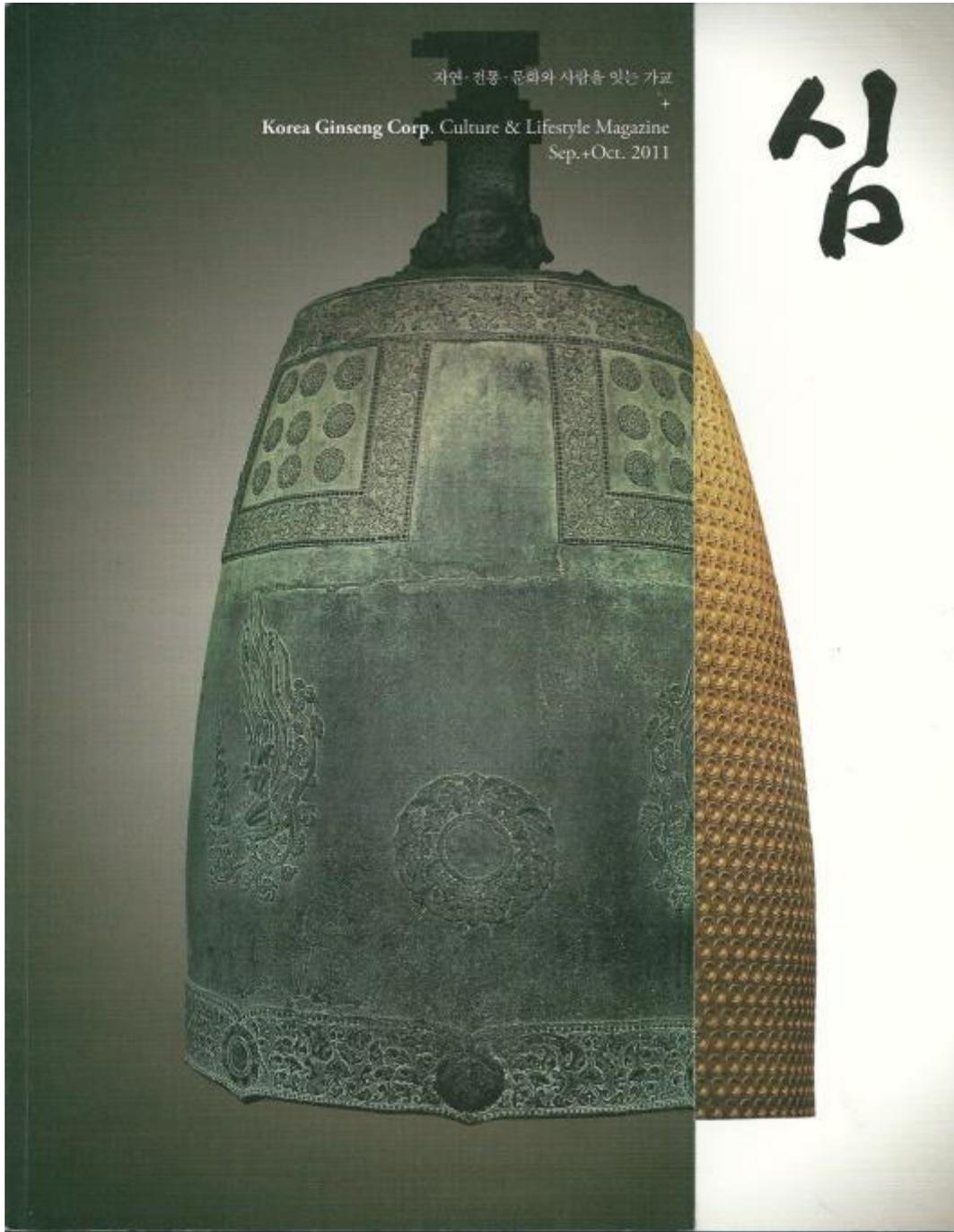
Coverage Clipping

MEDIA	KBS2	SECTION	제48회 대중상영화제
DATE	2011.10.17		



Coverage Clipping

MEDIA	심		
DATE	2011.09-10	SECTION	문화/생활





COVER STORY

성덕대왕 신종
 *
 문화재청 (경인문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간직하다

성덕대왕 신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 신종은 1,200여 년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종소리를 간직하고 있어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덕대왕 신종은 상하, 좌우 부분의 두께가 다른데 이는 종소리의 어운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라인들의 고도의 계산과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을 만들 때에 어린아이들 넣었다 하는 설화가 있어 '예밀레'라고 불리기도 하나 이는 종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려 생긴 설화라는 추측이다.

* 성덕대왕 신종 높이 3.75m, 밑지름 2.27m, 무게 11~25ton, 1898년 청양군내의 국립경주박물관



종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담아내다

형연 泃然

3,088개의 비러진 스피커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소리가 되었다. "맑은 소리가 퍼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형연'. 작가 한원식은 성덕대왕 신종을 '찰아 울림이 되는 마음'이며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변해도 종 자체가 변함이 없듯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길' 안 되길 그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비러진 스피커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소리되는 이 없이 모두가 소용하고 화합하길 바란다.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종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형연의 형연(泃然), 3,088개 스피커에 의해, 2015년 227cm, 2018

Coverage Clipping



MEDIA	시민일보		
DATE	2011.10.04	SECTION	인천자치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 활짝

시청 중앙홀서 7일까지 열어 10.4남북정상선언 기념 일환

인천시가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을 인천아트플랫폼 주관으로 30일부터 10월7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시각예술의 언어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이번 기념전에는 27명의 작가 50여 작품이 전시되며 회화, 영상, 설치, 평화선언문을 포함한 문학 등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분단의 상징처럼 돼버린 웅진군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를 답사해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과 풍광들에 담겨진 분쟁의 고통과 상처, 일상의 평화로움이 지속되기를

염원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번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은 10.4 남북정상선언이 표방한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정신이 우리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 행사다.

시청 입구에 설치된 황금색의 종은 한원석의 ‘형연洞然- 화해의 울림’으로 국보 제29호인 경주의 성덕대왕 신종을 모티브로 삼아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모아 제작한 작품이다.

통일신라 초기 당대 최고의 합금기술을 동원해 만든 선덕대왕 신종처럼 ‘형연’ 역시 3000개가 넘는 스피커를 하나하나 용접하고 2톤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공학적 설계가 수반됐다.

〈형연〉은 ‘화해의 울림’을 통해 성덕대왕 신종을 들으며 통일신라시대 사람들이 전쟁의 묵은 앙금을 치유했듯이, 우리 모

두 〈형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 속에 남아있는 휴전선부터 지워 버리기를 나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화를 갈구하는 예술가와 시민들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나무 조각 설치 작품 ‘연평평화카페’도 시선을 끈다.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展’은 의미 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해 5도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서해가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되기를 염원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상태 기자 ist@siminilbo.co.kr

◆ 시민일보 ◆
www.siminilbo.co.kr



Lofty Idealism Facing Reality

• Antonio Lario/Quartz Contributor • Photography: Sam Zupano

The architecture that we see today is being created from through many channels, including software, hardware, and the construction and through this process we can achieve and appreciate. In the context of the age of computer-aided design, the architecture of the world is moving in ways that are necessary to bring that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ee the distinction, and the way of thinking, in the way we create and the aspects of people of the construction for disabled people, which is a part of contemporary society. A dimension of change comes, a part of what we are and understanding is a part of what we are.

The architecture that we see today is being created from through many channels, including software, hardware, and the construction and through this process we can achieve and appreciate. In the context of the age of computer-aided design, the architecture of the world is moving in ways that are necessary to bring that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ee the distinction, and the way of thinking, in the way we create and the aspects of people of the construction for disabled people, which is a part of contemporary society. A dimension of change comes, a part of what we are and understanding is a part of what we are.

In the context of the age of computer-aided design, the architecture of the world is moving in ways that are necessary to bring that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ee the distinction, and the way of thinking, in the way we create and the aspects of people of the construction for disabled people, which is a part of contemporary society. A dimension of change comes, a part of what we are and understanding is a part of what we are.

Through the use of computer-aided design, the architecture of the world is moving in ways that are necessary to bring that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ee the distinction, and the way of thinking, in the way we create and the aspects of people of the construction for disabled people, which is a part of contemporary society. A dimension of change comes, a part of what we are and understanding is a part of what we are.

PHOTO: SAM ZUPANO

PHOTO: SAM ZUPANO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11.09.30	SECTION	사회

인천시청 앞에 에밀레종 같은 '평화 기원 종' 작품 전시

경향신문 기사입력 2011-09-30 11:48 | 최종수정 2011-09-30 11:58 | 기사입문



▲인천시청 현관에 전시된 한원석작가의 '형연-화해의 울림'

인천시청 앞에 통일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처럼 통일과 화해를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빛의 종이 설치됐다. 인천시는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 전시회'를 30일부터 10월7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연다.

시각 예술의 언어와 화해,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념전에는 27명의 작가 50여명의 작품이 회화와 영상, 설치, 평화선언문을 포함한 문학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가들은 분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의 분쟁의 고통과 상처, 일상의 평화로움이 지속되기를 염원하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특히 시청 입구에는 한원석 작가의 '형연(洞然)-화해의 울림'이 전시됐다. 국보 제 29호인 성덕대왕의 에밀레종을 모티브로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제작한 이 작품은 통일신라 초기 전쟁의 상처를 맑고 청아한 종소리로 치유하기 위한 만든 것이다.

높이 3.75m, 입지름 2.27m로 크기와 모습도 똑같고 스피커를 통해 자연의 소리를 종소리로 승화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가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되기를 염원하고 이 시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MEDIA	서울신문		
DATE	2011.08.11	SECTION	사설·오피니언

30 2011년 8월 11일 목요일 | 오피니언

이외수, 인천아트플랫폼

문화마당

신 동 호
시인



고등학교 까까머리 문예부 시절에 춘천에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닭갈비촌으로 유명한 춘천 명동, 나뭇으로 모던한 거리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춘천 소양로에는 미군기지 캠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곳을 근거로 형성된 유곽 장미촌은 그의 소설 '꿈꾸는 식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곳 세상에서 버림받은 누이들과 2년여 긴 언덕길 작은 글목에서 그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쿠! 하루는 이층집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작은 방에 쇠창살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벽에는 은퐁 먹물로 새겨 넣은 글씨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등진 채 쇠창살 사이로 먹을 것과 배설물이 오가는 사이, 그 세월 그가 완성한 소설은 바로 '갈'이었습니다. 광기가 아니고는 지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걸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2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했을 때 하셨던 말, "너 이외수처럼 될 줄래?"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기인처럼, 클래식 다방의 한구석에서 '고베리'들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운을 품은, 그러나 그저 지저분하고 세상과 답을 쌓은 듯한 풍모, 그것이 춘천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작가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물레 시를 썼는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친 작가들을 선망하면서 살아왔는데, 모더니즘과 사실주의 틀에서 우아한 작가가 되고 싶어서 방향도 했는데, 이 지난 주요 20개국(G20) 시대에 그분들은 다 어디를 가셨나요.

그즈음 게오르규의 소설 '25시'를 들었고 또 읽었고 시인과 작가는, 또 예술가는 '25시'에 등장하는 토끼처럼, '소설' 속의 토끼는 잠수함에서 키워집니다. 토끼가 눈을 깜빡거리며 즐기 시작하면 잠수함 안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토끼의 상태에 따라 산소를 공

급합니다. 생존과 직결된 것이지요. 예술가의 역할이 바로 토끼와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부조리를 먼저 자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를 무난히 건너 가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걸 시인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로 죽음도 불사해야 할 터입니다.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이 글을 쓰는 지금 또다시 연평도 인근에서 포격이 있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이토록 분명한 분쟁과 불행 앞에서 급속도로 한쪽으로 쏠린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 어떤 소수 의견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 상식적으로 분쟁보다는 평화가 우리들의 일상에 안전을 보장하겠지만, 그저 언젠가는 이 시대가 지나가겠지... 무력하게 지나왔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에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관하고는 아주 다른 풍경을 만납니다. 들어가는 문도 나오는 문도 없는, 아무 곳이나 걸이라 여기면 거기가 입구입니다.

이곳은 과거 대한봉운과 일본의 우선 주식회사 같은 개항기 건물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에서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최원식 선생이 "정부가 머뭇거리면 시인이 먼저, 서울이 주저하면 지방이 먼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평화의 노동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면서 평화선언을 했고, 화가들과 작가들이 토끼를 자처했습니다. 이도 없었다면 우리 무력으로만 평화가 온다고 여겼겠지요?, 저는 한원석의 설치작품 '화해'가 좋았습니다만-수천 개의 스피커에 서해 5도 주민들의 육성을 담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진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모두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머니에게 대답해야겠습니다. "이외수처럼 되려고요" 요즘 모두, 시인과 작가 예술가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청춘'들과 대화하는 이외수가, '청춘'들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이외수가,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저 인천아트플랫폼의 작가들이, "되려고요"라고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신문		
DATE	2011.08.11	SECTION	사설·오피니언

[문화마당] 이외수, 인천아트플랫폼/신동호 시인

서울신문 | 문화마당 | 2011년 08월 11일 21:14 | 기사입력



[서울신문]

고등학교 까까머리 문예부 시절에 춘천에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당갈비촌으로 유명한 춘천 명동, 냇골으로 모인한 거리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춘천 소양포에는 미군기지 캠프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곳을 근거로 형성된 유익 장마촌은 그의 소설 '꿈꾸는 식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곳, 세상에서 버림받은 누이들과 2년여, 긴 언덕길 작은 골짜기에서 그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쿠 하루는 이충징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작은 방에 좌창살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벽에는 종종 먹물로 새겨 넣은 글씨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동진 채 좌창살 사이로 먹을 것과 배설물이 오가는 사이, 그 세월 그가 왕성한 소설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광기가 아니고는 지낼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걸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2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했을 때 하셨던 말, "너 이외수처럼 빌래?"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기린처럼, 클래식 다방의 한구석에서 '고백리'들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운데 품은, 그러나 그저 지저분하고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풍모, 그것이 춘천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작가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클래식 시를 썼는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힌 작가들을 신망하면서 살아왔는데, 모더니즘과 사실주의 틀에서 우아한 작가가 되고 싶어서 방황도 했는데, 이 지난 주에 20개국(G20) 시대에 그분들은 다 어디를 가셨나요.

그즈음 게오르규의 소설 '25시'를 물었고 또 읽었고, 시인과 작가는, 또 예술가는 '25시'에 등장하는 토끼처럼, '소설' 속의 토끼는 참수함에서 키워집니다. 토끼가 눈을 깜빡거리며 풀기 시작하면 장수함 안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상황입니다. 선명물은 토끼의 상태에 따라 산소를 공급합니다, 생존과 직결된 것이지요. 예술가의 역할이 바로 토끼와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시대와 사회의 무조리를 먼저 자각하고 시정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를 무난히 건너 가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걸 시인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로 폭풍도 몰사해야 할 터입니다.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이 글을 쓰는 지금 또다시 연평도 인근에서 포격이 있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이로써 문명만 문명과 불명 앞에서 급속도로 한쪽으로 쏠린 대한민국의 정서는 그 어떤 소수 의견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 상식적으로 문명보다는 평화가 우리들의 일상에 안전을 보장하겠지만, 그저 연평가는 이 시대가 지나가겠지... 무척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인천으로 가는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에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관과는 아주 다른 풍경을 만납니다. 들어가는 문도 나오는 문도 없는, 아무 곳이나 갈아라 여기면 거기거 입주입니다.

이곳은 과거 대한항공과 일본의 우성주식회사 같은 개항기 건물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에서 '문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최원식 선생이 "장부가 대못거리면 시민이 먼저, 서울이 주저하면 지방이 먼저, 경성스러운 마음으로 평화의 노동불을 놓을 일이다." 라면서 평화선언을 했고, 화거들과 작가들이 불씨를 지켰습니다. 이도 없었다면 우한 무력으로만 평화가 온다고 여겼겠지요? 저는 한원식의 설치작품 '화해'가 좋았습니다만-수천 개의 스피커에 세워 5도 주민들의 육성을 담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진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모두의 보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머니에게 대답해야겠습니다. "이외수처럼 되려고요." 요즘 모두, 시인과 작가 예술가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청춘'들과 대화하는 이외수가, '청춘'들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이외수가, 문명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

좀 늦었지만 어머니에게 대답해야겠습니다. "이외수처럼 되려고요." 요즘 모두, 시인과 작가 예술가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청춘'들과 대화하는 이외수가, '청춘'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신문		
DATE	2011.07.30	SECTION	문화

분쟁은 가라앉고

서해 5도 주제 인천

인천시 해안동에 자리잡은 인천아트플랫폼은 풍경이 특이하다. 한쪽으로는 차이나타운이 들어서 있다. 화려한 중국집이 여럿 보인다. 그 반대편이 나뉘어으로는 직산기숙이라 할 만한 것들이 있다. 옛 일본 본부 건물이다. 이승미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은 "개항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계지가 맞붙어 있던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옛 일본과 중국 풍경이 고스란히 겹친다. 전시장 건물도 무엇가에 남아선 창고들을 재활용했다. 옛 조선소를 활용한 테러치아비 엔날레 (이탈리아) 전시장 아스날레와 달았다.

● **새달 28일까지... 국내의 예술가 60여명 참여**
 이곳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전이 열린다. 전함이 정물하고 해안이 벌어지고 푸란이 날아드는 곳에 인접한 위치에 걸맞은 주제다. 인천지역 작가뿐 아니라 국내의 예술가 60여명을 5월에서 5월까지 백련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답사본격 한 뒤 그 느낌을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행장은 "인천하면 자유 서울에 묶인 수도권이라 생각하는데, 인천은 서해 5도를 비롯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깨우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설치작가 자기들은 '순환의 여행' 화해'를 선보인다. 검은 상각대 위에 아순안, 핵이다. 마오쩌둥, 마르크스, 스탈린 등 격동의 한국사에 영감을 끼쳤던 인물상들을 배치했다. 앞에는 서해 5도 침몰 상징하는 돌들을 놔뒀다. 키본(죽은 자를 지상으로 건네준다)는 그리스신화 속의 헷사(헷)의 폐안이 건넬 수 있을 만한 음울함이 있는 반면, 바다는 그렇게이 역사를 겪안



이명백 '두 남자', 원빈 (왼쪽)과 김정운을 나란히 배치했다.



서해안 '혁명도' 특유의 붉은 처지로 상징한 대지현상을 표현했다.

화해는 떠오른다

아트플랫폼

고 있다는 비장함도 느껴진다

스피커 수천개를 함께 배치해 온 한문석 작가의 설치작품 '화해'도 마찬가지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욕망인데, 그 수많은 입들이 울어내는 얘기들이 구성이다.

● **원빈·北 김정운이 해변에서 마주친다면?**
 이명백 작가의 '두 남자'는 웃음을 자아낸다. 핵병대에 지원 입대에 화제를 모았던 배우 원빈과 북한 권력자의 아들 김정운을 나란히 붙여놓는데 인물의 특성을 꼭 짚어 잘 끌어냈다. 이 작가는 "두 사람이 해변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다."고 말했다.

'붉은 산수'로 유명한 이계현 작가도 '비트윈 레드' (Between Red) 시리즈를 내었다. 남북한 사이에 놓인 서해 5도의 풍경을 반박적으로 겹쳐 보여지면서 우리 마음 속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핵의 작가 가운데는 중국 허먼주에의 '달'이 눈에 띈다. 깊은 코발트 블루 바닷속을 수영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모든 것을 너네의 받아주는 바다. 그 바다에 비하지만 인공이 작은 인간이 함께 있는 풍경이 평화기 아니겠느냐는 얘기로 들린다.

서해 5도 얘기에서 심정도 빠질 수 없다. 심청이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는 백련도 부근으로 추정된다. 심청을 주제로 한 중저은 작가의 '푸른 심장' 등 화려한 꽃단장을 내세운 작품들도 눈을 사로잡는다. 1032) 456-7135.
 인천 조해성까지
 cho1904@seoul.co.kr



하문주에 '달', 바다와 그 속에서 헤엄치는 여의 대미가 필요하다.



자기들 '순환의 여행-화해', 서해5도의 역사상을 시각화했다.

Coverage Cl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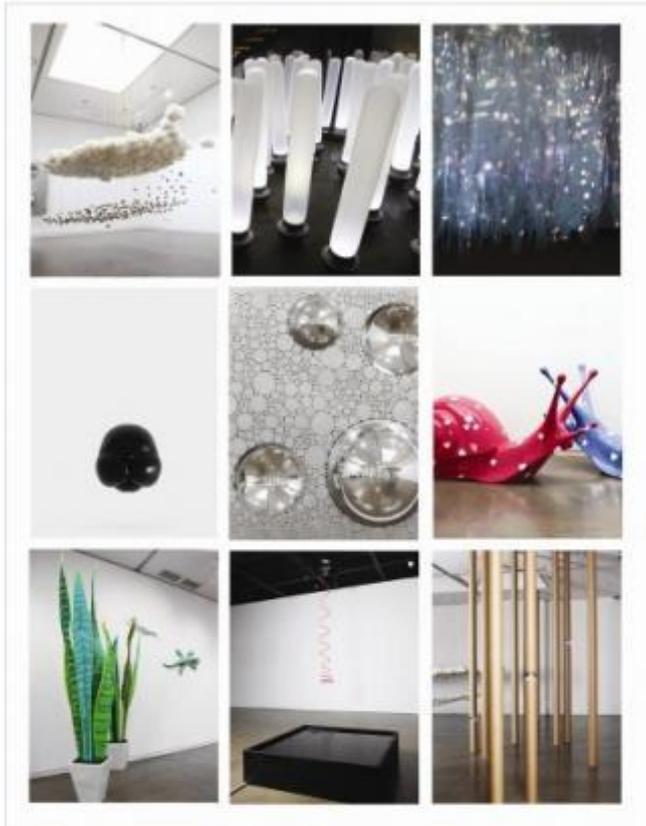
MEDIA	씨앤비뉴스		
DATE	2011.07.28	SECTION	ART IN

**ART
IN**

독특하고 다양한 현대미술로 만나는 지구

성북구립미술관, '지구-The Earth' 전 9월 4일까지

CNBNEWS 김대희 기자 / 2011-07-28 13:46:59



▲ 지구 전 작품 이미지 모음(9작가). ©2011 CNB뉴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성북구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함께 현대미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Summer Project'의 일환으로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지구-The Earth' 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지구'의 본질과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기발한 상상력과 재료를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현대미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시각화하며 이를 무대, 빛, 생명, 꿈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새롭게 조합된 지구의 모습을 작가 9명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섹션인 무대는 문명화,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잊혀져 가는 순수한 지구의 피부 자체, 즉 자연을 무대로 설정해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된다. 소리와 종이관을 통해 시각적-비시각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한원석과 생태론적 관점에서 숨과 실, 물 등을 이용해 공간에 접근하는 김순임, 비가시적인 자연의 요소를 키네틱 장치를 통해 가시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최종문의 작품을 선보인다.

Coverage Clipping

두 번째 섹션은 지구라는 공간에 어둠과 밝음, 혹은 다양한 색채를 제공하는 빛의 요소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빛으로 연출되는 새와 구름, 꽃잎 등을 통해 아름답고 환상적인 자연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박상화와 빛을 내는 풍선들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노혜환의 작품이 소개된다.



▲ 제1 전시실 모습. ©2011 CNB뉴스

세 번째 섹션은 지구라는 독립된 공간 속을 채워주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토끼와 돼지의 합성을 통해 탄생된 호그빗의 생성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박은영과 다양한 색채의 플라스틱 빨대를 재료로 동물과 식물을 재창조 해내는 정찬부의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탄생되는 독특한 지구 생명체들을 보여준다.

네 번째 섹션은 꿈이라는 주제로 지구의 공간 혹은 존재들을 통해 새롭게 꿈꾸는 것들에 관하여 생각해본다. 달팽이 조각에 자신 혹은 다양한 상징을 투영하는 이규민과 구름 기초로 증식과 분열 혹은 확산을 통해 지구를 둘러싼 우주의 공간 혹은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신한철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구'라는 독립된 공간을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다양한 재료, 기술 등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고 조형시켜 이를 감상하는 관객들 역시 지구의 본질과 의미에 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관객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을 자극하는 영상, 설치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새로운 경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설봉구립미술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작가가 연구하고 개발한 독창적인 표현기법과 재료를 직접 체험해 보는 'Museum Talk' 프로그램도 전시와 연계해 진행한다. 문의)6925~5011

MEDIA	PUBLIC ART		
DATE	2011.06	SECTION	전시 리뷰

exhibition review



한원석 (Reconciled)

무의식이 들려주는 말을, 소리들, 침묵의 언어를 듣다 한원석 전 4.22~5.19 갤러리 안생트

한원석은 일전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어쩌면 문명화의 과정에서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에서 동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며 아이콘을 발견한 신사실주의의 진정한 후예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의 작업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정크아트나 리사이클링 아트와 같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처음에 그는 사람들이 피다 버린 담배꽂이를 이용해 회화를 만들었다(나의 꽃). 마치 모를 심듯 화면에 때죽하게 심겨진 이미지는 제법 그럴 듯한 꽃이며 초상을 재현해 보여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재현된 이미지가 무척하게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담배꽂초 작업의 표면이 이미 지라고 한다면, 냄새는 그 이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의 포커스는 당연히 이면의 냄새에 맞춰진다. 그리고 나와진 작업이 (환생)이다. 폐기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침상대를 만든 것인데, 여기서 환생의 의미는 다중적으로 다의적으로 파생된다. 이를테면 죽은 불빛의 불씨를 되살려냈다는, 천문 관 별을 관찰하던 창상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냈다는, 그리고 여기에 벌어져던 꿈을 상실한 시대에 별(꿈)을 되살려냈다는 의미가 하나의 층위로 포개진다. 그리고 여기에 작품 (형식)이 뒤따른다. 패스피커를 이용해 성막대왕신중(일명)에 말레종을 만든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말 할 것도 없이 소리 가 될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이 일련의 작업들에서 폐기된 공산품 쓰레기들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현해 보이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서 미술표현의 영역과 범주를 단순한 시각정보의 차원에서 냄새(후각)와 빛(광학) 그리고 소리(청각)를 아우르는,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놓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왕의 작업에서 선보였던 스피커를 재차음에 소리작업을 심화시킨다. 소위 사운드아트 혹은 사운드스케이프를 범주화되는 작업이다. 사운드아트란 소리 자체를 일종의 질료 혹은 매질 혹은 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크게 자연음, 재질음, 일상음, 우연음에 착안한 언플러그드아트와 다양한 유형의 전자 미디어를 매개로 소리를 얻는 플러그드아트로 구분된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청각적 소리)를 기본으로 하여, 반겨지는 소리(소리의 파동을 이용한 촉각적인 소리)와 보이는 소리(시각적 소리)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얻는다. 이 가운데, 작가의 작업은 일단 스피커를 소재로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그드아트의 한 경우로 보인다. 그런데 중작 작업을 위해서 동원된 무려 16,000여 개의 스피커는 하나같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공간 가운데 세워진, 소리가 지나가는 일종의 울림통 역할을 하는, 그 표면에 검은 옷칠을 한 지관 위에 얹힌 스피커 하나가 유일한 음원에 해당할 뿐, 지관에는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소리를 빛으로 환원하는 기능도 하는데, 공간을 온통 뒤덮고 있는 스피커나, 유일한 음원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그 소리에 반응하는 빛이 어우러져서 정적이고 광조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이번 전시가 주효했던 것은 소리 자체로서보다는 공간적 접근을 통해서 소리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칠혹같이 어두운 밀폐된 공간에 적음할 즈음에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간헐적인 빛이 일종의 내면공간이나 무의식 공간 속에 들어온 것 같고, 이로써 자신의 내면과 만나지는 것 같은 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회해'인데, 아마도 이처럼 제마다의 내면과 만나지고 화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듯싶다. 무의식이 들려주는 말 혹은 소리 혹은 침묵의 언어에 귀 기울이게 하며, 이로써 폐쇄적인 공간으로 표상된 자기와 화해하게 한 것이다.

● 고충환 미술비평

그림자 정원 백승민 전 5.4~5.18 릴레비전 12 갤러리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역사의 기록은 폭력과 전쟁에 의한 기만과 지배자의 위함에 대한 위선된 복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 그리고 원칙은 체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종을 요구하거나 권수를 희유하는 데 쫓겨, 공익, 도덕, 안전함 등을 담보로 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폭정 소수의 불공평한 이익을 향하여 있기에 조직된 것이며 인간은 세계와 부조리한 관계를 갖고 불평한 진실의 허구를 기록하기 위하여 희생되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백승민은 가상의 국가인 DIVERLAND(advertimento와 land의 조합어)의 건국신화를 시작한다.

Coverage Clipping

MEDIA	주간한국		
DATE	2011.05.16	SECTION	ARTS

한원석 개인전 - 화해

주간한국 기사일력 2011-05-16 13:36 기사원문



관성

담배꽂초를 겹겹이 꽃아 만든 '악의 꽃', 1374개의 헤드라이트를 쌓아 만든 첨성대, 3088개의 스피커를 한 데 모아 재현한 선덕대왕신종. 이 작업들과 10년째 '죄수복'을 입고 작업하는 작가가 만나면, 관람객은 어디쯤에서 쓰악함을 멈추어야 할지 의문스러워진다.

이제 '화해'하겠다고 내놓은 작품이 16000개의 스피커를 붙여 만든 '소리의 방'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융합을 찾아야 하는지 영문을 모를 관람객 앞에, 작가 한원석의 작품은 그러나 화해의 제스처를 한껏 보여주고 있다.

버려질 물건들의 재구성은 허구적 이미지와 실제 속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현대의 상징적인 쓰레기로 쌓은 전통적 건축물은 과거와 오늘, 미래의 경계를 허문다. 소리를 내지 않는 스피커가 모인 방에서 들리는 '무방향성'의 발자국 소리는 스피커의 일방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큐레이터 이대형은 이 같은 특징을 "쓰레기와 예술, 인간과 자연, 문명과 환경, 전면과 후면, 빛과 그림자 등은 이원론적 구조 사이의 경계 위에 있다"고 정리했다.

어디서 무엇을 만들어낼지, 어떤 무용지물을 유용한 재료로 사용할지, 작가 한원석의 작업은 그의 행태만큼이나 예측불허하다. 그러나 그래서 흥미롭고, 그래서 의미 있다. 버려진 사물에서 '욕망'을 읽어내는 작가의 다른 시각이 어떤 화해를 청할지는 오리무중. 그러나 이런 화해라면 흔쾌히, 청하고 받을 수 있다.

5월 19일까지. 갤러리 압생트. 02)548-7662~3

이인선 기자 kelly@hk.co.kr

Coverage Clipping

MEDIA	ART NEWS		
DATE	2011.04.27	SECTION	sculpture ,installations

갤러리 압생트, 한원석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 개최

By JONGSAH KIM - Wed Apr 27, 12:12 am

0 Comments

좋아요

트윗 0

Email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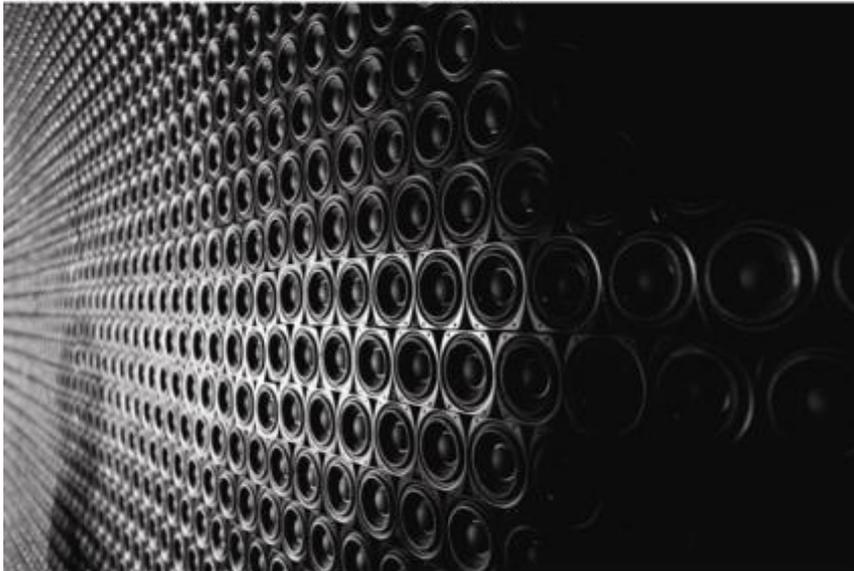
갤러리 압생트는 4월22일부터 5월19일까지 한원석 작가의 4번째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꽃을 풀어내다'란 뜻인 <화해>라는 주제로 40여일간 1만 6,000여개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여 어두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소리와 침묵하고 있는 스피커란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말을 건네고 싶지만 머뭇거리고 침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설치 미술가 한원석 작가는 2006년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창조한 청성대 작품 '환생', 2008년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선억대왕신종을 재현한 '형언' 등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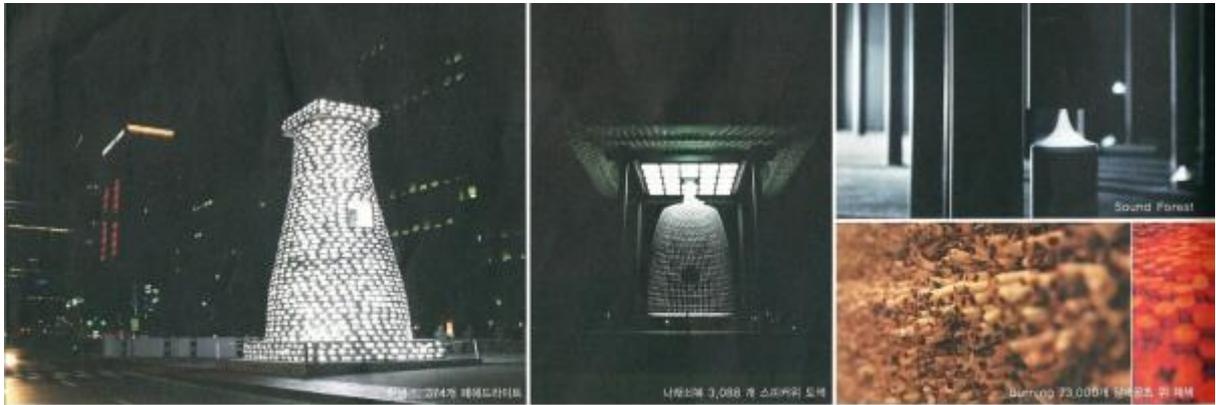
전시개요

- ▶ 전 시 명: 화해 花解 Reconciled
- ▶ 기 간: 2011년 4월 22일 ~ 5월 19일
[오 프 닝: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오후 5:00]
- ▶ 장 소: 갤러리 압생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21 지하1층)
- ▶ 관람시간: Mon-Fri AM 10:00 ~ PM 7:00 /Sat AM 10:00 ~ PM 6:00 /일요일 휴관
- ▶ 참여작가: 한원석
- ▶ 주최/주관: 갤러리 압생트
- ▶ 후 원: 서울문화재단, 하나은행, BHA쿠스텔, 한솔제지



Coverage Clipping

MEDIA	에이앤뉴스		
DATE	2011.04.18	SECTION	문화



화해(花解) 꽃을 풀어나다

Reconciled

"꽃을 풀어나다"란 뜻에서 출발한 전시 '화해'는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풀어 놓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40여 일간 1만 6000여개의 스피커를 전시할 벽면에 붙여 나갔다. 처음에는 프레이머(틀)와 작은 화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세상과의 화해, 환경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확장되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1만

6000개의 작은 스피커에 흘러 들인 소리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자 희미한 울림이 들릴 커진다. 그러나 소리의 울림을 찾기 쉽지 않다. 벽면의 수많은 스피커들 중 어느 것 하나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전시장을 가늠 해두고 있는 소리와 침묵하고 있는 스피커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실지만 아무 기리고 침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침묵의, 정적(靜寂)의 신중 뿐 이전까지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형상 자체를 지워 버렸다. 그래서 소리에 좀 더 몰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공적 소리의 원리와 자연의 소리의 원리 사이에서 침묵을 발견하는데 집중했다. 원래는 비교적 간단했다. 일반적으의 스피커가 특정 방향으 로 소리를 전하는 지향성이려면, 그가 만들어 내는 울림된 지향 스피커는 인간의 목소리처럼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무지향성이다. 1만 6000개의 스피커 중 달달 1개만 해아와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동그런 지면

을 울림이 설치했을 뿐인데, 효과는 일 달 백이다. 작은 스피커 하나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스피커와 예술, 인간과 자연, 생명과 환경, 권력과 후면, 빛과 그림자 등 원형적 작품의 큰 특징은 이원론적 구조 사이의 경계 위에 있다. 그리고 이를 건축가답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이 그려진 천천만 감 조하는 화해에 반기를 들고, 남세나는 담배공조 작업으로 천천과 이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일과되가에게 있어 남겨주는 이원이 진실이고 화려한 꽃이 그려진 천천이 허상이고, 대 해드라이브에서 벌어져 나오는 1:2D 빛을 통해 융성대의 역사적, 공간적 관계성을 극복하며 미래의 빛을 만들어 냈고, 스피커 작업을 통해 가치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이렇듯 남세, 빛, 소리 등을 고집스럽게 수집해온 한원석의 일관된 주제는 화해이다. 그는 그것을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욕망으로 나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개인의 욕망으로, 사회적 욕망은 출세욕, 권력욕, 풍류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정적과 동적일 거울해지고 있는 사회적 욕망과 혼자 사다 게 가는 개인의 욕망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할 처방제를 '화해'다. 다다에서 찾는다.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욕망에 의해 대어났지만, 그 기능을 다한

고 버려져야만 하는 '스피커'가 결코 회적의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남세, 빛, 소리 모두 생명의 상징이기에 버려진 오브제가 쉽게 탈락하리라 되어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스피커를 죽일수록" 배울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만들어 낸 판점중적인 수집 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까이 스스로를 '죽임', '화해'지 모 영영하며 파수복을 입고 작업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일시적이면 뭐고요냐고 말할 땐데, 벌써 10년째다. 언어로 진실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 고대 할 이터스트가 세상과 화해하는 일년 역시 하나 유방이다. 그래서 힘들 사람보다 그래서 바글 세상엔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믿는 현용서이다. 2011

*작가 브로디 윌슨 대표설 Home Greeting Company CEO
*전시문의 경우과 02-558-1111 www.galaxyart.com



윌슨의 Wilson Han
건축가이자 디자인 컨설턴트 영국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Design for the Environment 석사학위 취득, 일본 동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취득(2005년 10월) 건축을 위한 건축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SH ARCHITECT & ASSOCIATES 4-방어 중국 Beijing UVA 건축사사무소 이끄는 데다, PR&G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고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파이낸셜뉴스		
DATE	2011.04.22	SECTION	사회

파이낸셜 뉴스



설치미술가 한원석씨가 7000여개의 담배꽂초로 만든 'burning' 앞에서 있다.

갤러리 압생트 개관... 한원석 '화해'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22일 새롭게 문을 여는 갤러리 압생트가 '화해(花解)'라는 타이틀로 개관전을 펼친다.

설치미술가 한원석씨의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이번 개관전은 말 그대로 '꽃을 풀어내다(花解)'라는 뜻에서 출발한 기획전시로 작가는 세상과 자연 그리고 작가 자신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폐품을 활용한 설치미술을 주로 선보여온 한원석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1만6000여개에 달하는 페스피커를 전시장 벽면에 설치했다. 특히 3088개의 페스피커를 이용해

높이 3.7m에 달하는 성덕대왕신종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형연'이라는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대형 Hzone 큐레이팅 컴퍼니 대표는 이번 전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번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 압생트는 작가 한원석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 놓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사회로부터 버려진 것들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환생시키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9일까지. (02) 548-7662

shkim@fnnews.com | 김소희 객원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한국경제		
DATE	2011.04.21	SECTION	Life & Culture

한원석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 개최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11-04-21 18:14 | 기사원문



갤러리 absinthe는 22일부터 5월19일까지 한원석 작가의 4번째 개인전 '화해 花解 Reconciled'를 개최한다.

'꽃을 풀어내다'란 뜻인 '화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전시장은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 마음을 털어 놓는 공간이 되고 1만6천여개의 스피커를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한다.

어두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소리와 침묵하고 있는 스피커란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말을 건네고 싶지만 머뭇거리고 침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작은 화해에서 시작되어 이내 세상과의 화해, 환경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작가 자신과의 화해가 현대인의 마음을 울린다.

설치 미술가 한원석 작가는 2006년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창조한 청성대 작품 '환생', 2008년 3천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선덕대왕신공을 재현한 '형연' 등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미술	SECTION	전시
DATE	2011.04		

HAN Won Suk
The 4th Solo Exhibition

연암사미술연구소
연암사미술연구소
연암사미술연구소

하나은행

화해
花解
Reconciled
2011. 4.22 - 5.19
Opening 4.22 (금) 5pm

gallery **absinthe**

630-21,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T 548-7662-3 F 548-7607

Coverage Clipping

MEDIA	스포츠월드		
DATE	2011.04.18	SECTION	문화



한원석(왼쪽), 3088개 스피커로 제작

버려진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한원석 개인전 '화해' | 22일부터 갤러리 입생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 새로 오픈한 갤러리 입생트(02-548-7662)는 설치미술가 한원석(41)의 개인전 '화해(和解: Reconciled)'라는 제목으로 4월22일부터 5월19일까지 연다. 한원석은 토크피커 등 제 기능을 상실한 폐품을 이용한 설치미술을 주로 선보여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전시에선 3088개의 토크피커를 이용해 높이1.7m 폭 2.3m인 성덕대왕 신종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작품을 설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원석의 작품세계를 이대형 Hzone Curating Company 대표의 전시 '연극(연극)'을 통해 살펴본다. 김민영 전문기자

2003년 처음 만난 한원석은 경제성 상극장에, 대인기피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언어와 행동의 진폭은 보통사람과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린다. 그에게 있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어떤 것과 해선 안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은 중요치 않아 보인다. 화가가 되고 싶어 노가다판에 뛰어 들더니 진짜 건축가가 되었고, 음악이 좋아 소리를 쫓다니 꽤 괜찮은 소리작업도 만들어 냈다. 2010년 가을 한영서 작가를 다시 만났다. 작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4년 좌수복을 입고 갈래풍조 수심만계를 팔아 올린 '악의 꽃'으로 출발했을 때만하

도, 다시는 버려진 오브제(사람들은 이를 '쓰레기'라고 부른다.)를 예술품으로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마땅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야 할 수 있는 전시였기 때문이다. 예상은 빗나갔다. 2006년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청성대 작품 '환생'을 만들더니, 2년 뒤 2008년에는 3088개의 스피커를 모아 선미대 왕신종을 재현한 '형언'을 선보였다. 사료로부터 버려진 것들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환생시키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지켜온 것이다.

말 그대로 '꽃을 불어넣다'란 뜻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 '화해'는 그 동안 표

현하지 못했던 속 마음을 불어 넣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40여일간 1만 6000여개의 스피커를 전시장 벽면에 붙혀 나갔다. 처음에는 규레이(김)만자의 작은 회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세상과의 화해, 환경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작가 자신과의 화해로 확장되었다.

청성대, 성덕대왕 신종 등 이전까지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형상 자체를 지워 버렸다. 그래서 소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앙금적 소리의 원리와 자연의 소리가 원리 사이에서 걸음을 발키는데 집중했다. 원리는 비

교적 간단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특정 방향으로 소리를 전하는 지향성이 라면, 그가 만들어 내는 울쭉쭉 지향 스피커는 인간의 목소리처럼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무지향성이다.

어둠듯 냄새, 빛, 소리 등을 교집스런 게 수줍음은 한원석의 말리던 주제는 유망이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으로 나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개인적 욕망으로, 사회적 욕망은 출세욕, 권력욕, 명예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점차 치열처럼 기대해지고 있는 사회적 욕망과 점차 사라져 가는 개인적 욕망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할 처방제를 '쓰레기' 타

마에서 찾는다. '쓰레기를 작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만들어 낸 반김종적인 수집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까이 스스로를 '좌연' '외계자'로 명명하며 좌수복을 입고 작업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일시적이면 피로만이라고 말할텐데, 벌써 10년째다. 언어로 진상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 괴짜한 아티스트가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 역시 꽤나 유별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가치기 더 크다고 믿는 한원석이다.

글=이대형 Hzone Curating Company 대표 사진=갤러리 입생트

Coverage Clipping

MEDIA	스포츠월드		
DATE	2011.04.17	SECTION	연예·문화

연예·문화 버려진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다 <스포츠월드>
 공연·문화 | 2011.04.17(일) 21:15 ~ 2011.04.17(일) 21:19

한영석 개인전 '화해'
 22일부터 갤러리 업생트



한영석의 3000개 스피커로 장식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 새로 오픈한 **갤러리 업생트**(02-540-7992)는 한지미술가 한영석(41) 개인전을 '화해(花解 Reconciled)'라는 제목으로 4월22일부터 5월19일까지 연다. 한영석은 피스피커 등 제 기능을 상실한 폐품을 이용한 **설치미술**을 주로 선보여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 전시에선 3000개의 피스피커를 이용해 높이3.7m 폭 2.3m인 삼각대형 작품을 실음 그대로 재현한 작품을 설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영석의 작품세계를 이어갈 Hzone Curating Company 대표의 전시 명문(요약)을 통해 살펴본다.

일인일 전문기자

2009년 처음 만난 한영석은 겉저장 **설치미술**, **대안미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언어와 행동의 진폭은 **보통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답답스럽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래서 있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해아할 것과 해선 안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은 중요치 않아 보인다. 황가가 되고 싶어 노가다판에 뛰어 들더니 진짜 건축가가 되었고, 음악이 좋아 소리를 뜻하니 또 연장은 소리작업도 만들어 냈다.

2010년 가을 한영석 작가를 다시 만났다. 작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4년 조수복을 입고 **달변골초** 수습민간을 맞아 열린 '약과 꽃'으로 출발점을 재확인했다. 다시는 버려진 오브제(사실물은 이를 '쓰레기'라고 부른다.)를 예술품으로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야 할 수 있는 전시였기 때문이다.

해설은 빚나갔다. 2009년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협설대 작품 '함부'를 만들더니, 2년 뒤 2008년에는 3000개의 스피커를 모아 **설치미술**을 재현한 '화해'를 선보였다. 사회로부터 버려진 것들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지켜온 것이다.



말 그대로 '꽃을 뿜어내다'란 뜻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 '화해'는 그 중의 표현장기 표현단 속 마음을 열어 놓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400여량 1만 60000개의 스피커를 전시장 **변면**에 붙여 나갔다. 처음에는 큐레이터(필자)와의 작은 화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세상과의 화해, 환경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그리고 작가 자신과의 화해로 확장되었다.

협설대. 국립대학 건물 중 예전까지 한국의 **문화적** 부리를 상징하는 황실용 건물이었다면, 이번에는 황실 자체를 자취 버렸다. 그래서 소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공적 소리의 원리와 자연의 소리의 원리 사이에서 경계를 발견하는데 집중했다. 종리는 비교적 간단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특정 방향으로 소리를 전하는 지향성이라면, 그가 만들어 내는 울림된 지관 스피커는 인간의 목소리처럼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무질량성**이다.

이렇듯 냄새, 빛, 소리 등을 고집스럽게 수집해온 한영석의 일관된 주제는 욕망이다. 그는 그것을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욕망으로 나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개인의 욕망으로, 사회적 욕망은 숭례, 권력욕, 명예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점차 괴물처럼 거대해지고 있는 사회적 욕망과 점차 사라져 가는 개인의 욕망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할 처방제를 '쓰레기' 테마에서 찾는다.

'쓰레기를 작품으로' 배울 수 있다는 그의 밑줄이 만들어 낸 편집증적인 수집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스스로를 '최인' '회개자'로 명명하며 죄수복을 입고 작업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일시적이든 파도면스라고 말할엔데, 벌써 10년째다. 언어로 진심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 괴막한 아티스트가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 역시 꽤나 유별한다. 그래서 황문 사람보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하는 한영석이다.

글=이대형 Hzone Curating Company 대표, 사진=갤러리 업생트

Coverage Clipping

MEDIA	씨앤비뉴스		
DATE	2010.12.10	SECTION	문화 생활

문화 생활 2010년 제2회 Korea Tomorrow



©2010 씨앤비뉴스

▲ 씨앤비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제2회 '코리아 투모로우(Korea Tomorrow)'전이 서울 **대치동** SEITEC에서 13일 까지 열린다. 전시 **기획사** 그미그라미와 Hzone이 1회에 이어 공동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는 지난 1년여간 **한국 현대미술 작가 발굴과 비평적 담론 확산**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국 작가 71명을 선정, 이들의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는 정치, 삶, 이데올로기, 자본 등 권력과 금기에 의한 도전을 즐기는 반항아적 '색갈복자물 Red Complex', 풍요와 세망,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의 경계를 뛰어 넘는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Hybrid Reality', 불가능한 **꿈**, 백악하게 뒤얽린 시절, 공간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기묘한 사진들 Strange Photos', 새로운 기법 중 철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 '스킨플렉스 SkinFLEX', 현실의 또 다른 단면을 찾아 내세는 '마성현실 Spin-off Reality', 이질적인 것들이 만들어 내는 대안적 공간 '헤터토피아 Heterotopia', 순거친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Smart Space', 마지막으로써 환경과 자연을 테마로 구성된 '클럽 모우 Club MOW' 등 8개의 주제 아래 작품을 보여준다.



©2010 씨앤비뉴스

이처럼 대표는 "올라선 문화 환경과 미디어 시스템의 사회에서 더 이상 '변주'에 관한 담론은 필요치 않다. 미술 안으로 정치 안으로 식의 범주화를 가지고는 경계를 넘나들며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 제대로 담아 낼 수 없다.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담는다는 역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입장 세우고 소통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의 의미를 순간순간 발견해 나가는 관찰해야 필요하다. 코리아 투모로우에 이 같은 역전을 반영한다."고 전시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2010 Korea Tomorrow는 2010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SEITEC(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자하왕 3호선 학여울역)에서 열린다.

■ **참여작가(기명)**

Red Complex(색갈복자물) 안우진, 조훈, 김수연, 이세현, 이승민, 박윤영, 선무, 박영일
 Strange Photos(기묘한 사진들) 송승현, 정장연, 권두현, 이지연, 이은호, 박상호, 류정민, 유현미
 Hybrid Reality(하이브리드 리얼리티) 조덕현, 최수일, 한진수, 홍성철, 장승효, 권소정, 이영호, 박정혁, 유은호
 Spin-off Reality(마성현실) 반주영, 박영만, 황재은, 허수영, 김지희, 김종현, 김여은, 이우일, 임영선, 설상은
 Smart Space(스마트 스페이스) 조형석, 최재혁, 최기중, 김은택, 이보경, 신정현, 이정연, 이근세, 박형진, 유정아, 박의성, 김디데, 송재업, 장혜진
 Heterotopia(헤터토피아) 현승희, 안기라, 안경미, 문용, 박상훈, 황은수
 Club MOW(클럽 모우) 최정호, 김희서, 이태성, 이이진, 최원성, 정광선, 이재훈, 박태훈
 SkinFLEX(스킨 플렉스) 최태훈, 최형섭, 김현준, 이영호, 이길래, 박승우, 박건기, 장승훈

■ **www.koreatomorrow.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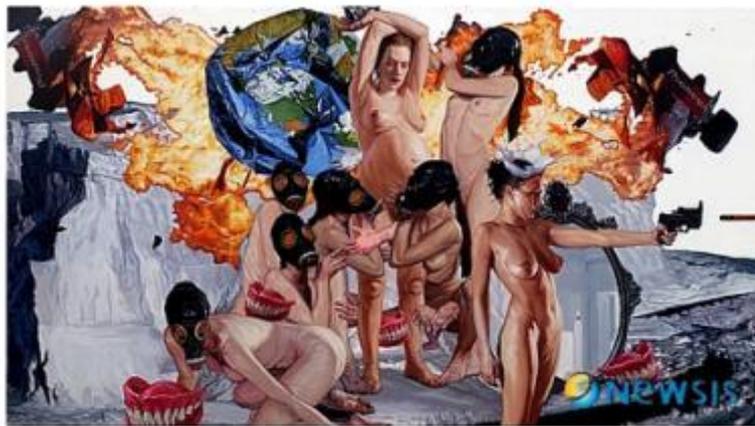
- 주최/주관 : 그미그라미, Hzone
- 후원 : 서울특별시
- 협찬 : Club MOW(클럽모우), p-bein(지-빔), Slens water(시렌스워터), Cass(카스), 오비텍주버

Coverage Clipping

MEDIA	뉴시스		
DATE	2010.12.05	SECTION	생활/문화

미술·디자인·건축 '코리아 투모로우'...접속관계

www.NEWSIS.() 기사입력 2010-12-05 15:12



【서울=뉴시스】 유상우 기자 = 미술과 디자인, 건축이 어우러지는 '코리아 투모로우' 전시가 8~13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그미그라미와 H존은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전시는 뉴욕의 메리 문 갤러리의 토머스 아널드와 컬럼비아대의 존 라이크만 교수가 지난 1년여간 한국 현대미술작가의 발굴과 비판적 담론 생산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구성됐다"며 "미술과 디자인, 건축 등 경계를 넘어선 창작환경의 변화와 그것들의 다양한 해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접속 관계'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하는 전시는 정치와 성, 이데올로기, 자본 등 권력과 금기에 도전하기를 즐기는 반항아적 '색깔론자'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또 불가능한 풍경과 뒤틀린 시선, 공간의 반전 등을 보여줄 '기묘한 사진물', 재료와 기법 등 형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들이 만들어 내는 대안적 질서 '헤테로토피아', 숨겨진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등 8개 주제로 작가 71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8일 작가 장승효, 재즈피아니스트 교회안, 미디어아티스트 삭개오가 펼치는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토머스 아널드와 존 라이크만 교수의 강연회도 마련된다.

참여 작가는 안두진, 조훈, 정소연, 이세현, 이승민, 박은영, 선무, 위영일, 홍승희, 전장연, 권두현, 이지연, 이문호, 박상호, 류정민, 유현미, 조덕현, 최수양, 한진수, 홍성철, 장승효, 전소정, 이명호, 박정혁, 유승호, 반주영, 배운환, 정해운, 허수영, 김지희, 김용관, 김여운, 이우림, 임영선, 성상은, 조형석, 최재혁, 최기준, 김은학, 이보경, 신장현, 이진영, 이근세, 박현진, 유정아, 탁의성, 정재엽, 김다미, 정혜진, 정승희, 김기라, 이경민, 문훈, 박상욱, 한승수, 한정욱, 김현식, 이재삼, 이이남, **한원석**, 정광식, 이재효, 박태홍, 박선기, 최태훈, 최형섭, 김현준, 이병호, 이길래, 박승모, 성동훈 등이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스		
DATE	2010.12.05	SECTION	생활/문화

코리아 투모로우, 이지연 '워킹 온 에어(Walking on Air)' 49.5x99cm-2010

NEWSis () 기사입력 2010-12-05 15:10 | 최종수정 2010-12-09 09:21



【서울=뉴스스】 유상우 기자 = 미술과 디자인, 건축이 어우러지는 '코리아 투모로우' 전시 8~13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그미그라미와 H존은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전시는 뉴욕의 메리 문 갤러리의 토머스 아널드와 컬럼비아대의 존 라이크만 교수가 지난 1년여간 한국 현대미술작가의 발굴과 비판적 담론 생산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구성했다. '며' "미술과 디자인, 건축 등 경계를 넘어선 창작환경의 변화와 그것들의 다양한 해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접속 관계'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하는 전시는 정치와 성, 이데올로기, 자본 등 권력과 금기에 도전하기를 즐기는 반항아적 '색깔론차'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또 불가능한 풍경과 뒤돌린 시선, 공간의 반전 등을 보여줄 '기묘한 사진들', 재료와 기법 등 형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것들이 만들어 내는 대안적 질서 '헤테로토피아', 숨겨진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등 8개 주제로 작가 71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8일 작가 장승효, 재즈피아니스트 고희안, 미디어아티스트 식개오가 펼치는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토머스 아널드와 존 라이크만 교수의 강연회도 마련된다.

참여 작가는 안두진, 조훈, 정소연, 이세현, 이슬민, 박은영, 선무, 위영일, 홍승희, 전장연, 권두현, 이지연, 이문호, 박상호, 류정민, 유현미, 조덕현, 최수양, 한진수, 홍성철, 장승효, 전소정, 이명호, 박정혁, 유승호, 반주영, 배윤환, 정해운, 허수영, 김지희, 김용관, 김여운, 이우림, 임영선, 성상은, 초형석, 최재혁, 최기준, 김은화, 이보경, 신장현, 이진영, 이근세, 박현진, 유정아, 탁의성, 정재연, 김다미, 정해진, 정승희, 김기라, 이경민, 문훈, 박상욱, 한승수, 한정욱, 김현식, 이재삼, 이이남, **한원석**, 정광식, 이재효, 박태홍, 박선기, 최태홍, 최형섭, 김현준, 이병호, 이길래, 박승모, 설동훈 등이다.

Coverage Clipping

MEDIA	파이낸셜뉴스		
DATE	2010.12.04	SECTION	문화>미술

미술 디자인 건축 '발칙한 상상력'..8일 '코리아 토머로우'展

파이낸셜뉴스 기사일지 2010-12-04 14:11 | 등록시간 2010-12-04 14:17 (30일전)



▲ 최수양 'The Wing' 2009.

미술, 디자인, 건축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 충무로 H zone(대표 이대형)과 창작가구 전문 갤러리 MGRANK(대표 김금희)가 손잡고 제 2회 '코리아 토머로우'전을 오는 8일부터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 S ETEC 3관에서 개최한다. 미술 디자인 건축이 한자가 되는 창작환경의 변화를 표방하며 지난해부터 전사를 열고있다.

뉴욕 매리온 갤러리 디렉터 토마스 아놀드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접속 관계'에 대한 탐험으로 시작했다.

전시의 구성은 정치, 삶, 이머젠포기, 저본물 영역과 급기에 대한 도전을 즐기는 반항아적 △석갈튼저본, 풍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 포괄리즘과 글로 발리즘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불가능한 풍경, 백악하게 위험 린 시공, 공간의 변전들을 보여줄 △기묘한 사진들, 재료와 기법을 철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 △스킨물럭스, 현실의 또 다른 단면을 찾아 나서는 △파생한 실, 이질적인 것들이 만들어내는 대안적 질서, △해리포도피아, 옮겨진 공간의 의미는 발견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환경과 자연을 테마로 구성된 △플러시 모우를 8개의 주제아래 71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 이보경6신장현/strawing furniture.

내용이 폭넓은 듯 하지만 21세기 테크놀로지 발달과 디지털시대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전시다.

최수양 장승효 유승호 김현석 이이남 정광식 이재효 박선기 성동훈 이영호 김기라 등 이미 유명세를 탄 스타작가를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독특한 재료와 다양한 매체의 표현으로 발칙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국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디자인, 건축과 어울려 서로서도 어떻게 소통해야하는지 엿볼수 있는 기회다.

이대형 H존 디렉터는 "미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디자인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건축은 공간을 정의해왔다"면서 "이제 미술은 디자인으로부터 소통의 방법 배우고 디자인은 건축으로부터 공간에 대한 혁신법, 건축은 미술가들의 아방 거드로 정신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장승효작가와 켄즈 피어니스트 고환인, 미디어 아티스트 석개오가 보이는 퍼포먼스가 8일 오후 6시 매리온 갤러리 디렉터 토마스 아놀드, 존 라이크만 교수의 강연들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전시는 13일까지. (02)567-6072

Coverage Clipping



▲ 김현준/ TOUGH/20102

<다음은 전시 구성과 참여작가>

△RED COMPLEX (색깔론자들)

안두진, 조훈, 정소연, 이세현, 이승민, 박은영, 선무, 위영일

△STRANGE PHOTOS (기묘한 사진들)

홍승희, 전장연, 권두현, 이지연, 이문호, 박상호, 류정민, 유현미

△HYBRID REALITY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조덕현, 최수알, 한진수, 홍성철, 장승효, 전소정, 이명호, 박정혁, 유승호

△SPIN-OFF REALITY (파생현실)

반주영, 배윤환, 정해윤, 허수영, 김지희, 김용관, 김여운, 이우림, 임영선, 성상은

△SMART SPACE (스마트스페이스)

조형석, 최재혁, 최기준, 김은학, 이보경, 신장현, 이진영, 이근세, 박현진, 유절아, 탁의성, 정재엽, 김다미, 정혜진

△HETEROTOPIA (헤테로토피아)

정승희, 김기라, 이경민, 문훈, 박상욱, 한승수

△Club MOW (클럽모우)

한정욱, 김현식, 이재삼, 이이남, 한원석, 정광식, 이재효, 박태홍

△SkinFlex (스킨플렉스)

박선기, 최태훈, 최형섭, 김현준, 이병호, 이길래, 박승모, 성동훈

Coverage Clipping

MEDIA	에이빙뉴스		
DATE	2010.11.16	SECTION	생활/문화

세라믹과 예술의 만남, '2010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 ② 테크아트관

[바임오피스 바로가기](#)

유민재 2010-11-15

[f](#)
[t](#)
[b](#)
[v](#)
[e](#)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RSS](#)



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세라믹과 예술의 컨버전스를 통해 현대인들이 세라믹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김경희)은 10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2010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세라믹 테크르트를 만나다)'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안종현의 '빛의 영혼'이란 작품으로 유리구 안에서 변화하는 LED의 다채로운 빛이 퍼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차아내고 있다)

전시회 주요내용은 ▲첨단세라믹관 ▲테크아트관 ▲세라믹컬처관 ▲세라믹아트관 ▲한식문화관 ▲세라믹라이프관 ▲첨단영상미디어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라는 전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세라믹 기술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세라믹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세라믹 기술과 제품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접목시켜 그 부가가치를 높여려는 시도가 담긴 다양한 전시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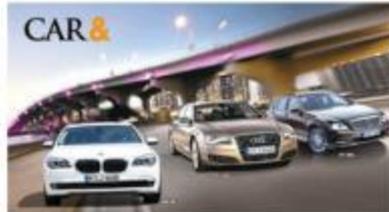
테크아트관은 세라믹 첨단 소재와 신기술을 접목한 공간으로써 안종현의 '빛의 영혼'이란 작품 이외에 김치아나, 김동호, 김영섭, 손봉채, 정와현, 김준기, 한원석 등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매일경제		
DATE	2010.11.15	SECTION	생활/문화

내가 '왕중왕'...아우디 뉴A8, 8년만의 화려한 '귀환'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0-11-15 10:30 기사전문



아우디가 8년 만에 자사 최고급 세단인 A8 신형 모델을 한국에 선보이면서 벤츠-BMW-아우디 '3각 프리미엄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미 지난해 가을 벤츠는 신형 S600L을, BMW는 신형 760Li를 나란히 출시하고 최고급 세단 시장을 호령하던 중이었다.

트레버 힐 아우디코리아 대표는 이달 3일 신형 A8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올해 안에 400대를 팔 계획인데 이미 200대가 사전 계약됐다. 내년엔 1000대까지 팔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시 1주일 만에 100명이 더 몰려들면서 아우디는 1억4000만~1억5700만원짜리 차 300대를 단숨에 팔아치웠다. 이제껏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1억원이 넘는 고급차가 1000대 넘게 팔린 적은 없었다.

아우디 관계자는 "한국은 아우디 판매국가 중 18~19위 규모에 불과하지만 유독 A8 판매량 만큼은 전 세계 5위에 꼽힐 정도로 대단한 럭셔리카 시장"이라면서 "중동 부호들이 몰려 있는 두바이보다도 한국에서의 판매대수가 더 많다"고 전했다.

아우디는 이번에 A8을 출시하면서 화려함의 극을 달리는 인테리어를 차별화 포인트로 잡았다.

경쟁자로 분류되는 벤츠 S600이나 BMW 760Li 모델에 비해 동력 성능이 뒤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마치 '요트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발산하기 위해 벨트라인을 원주형 곡선인 랩 어라운드(wrap-around) 디자인으로 감쌌다.

문전석 도어에서 대시보드를 타고 다시 뒤편석 도어로 이어지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이어주는 섬세한 크롬 라인이 공간감을 배가시켰다. 좌석은 비행기 일등석과 경쟁하려는 듯 22단계 조절 기능에다 히팅은 기본, 3단계 물리 기능까지 넣었다. 공기압 마사지는 5단계 강도로 조절할 수 있다.

인테리어의 압권은 변속레버. 요트의 추력레버(thrust lever)와 같은 형상을 한 이 신형 변속레버는 오른손으로 슬며시 쥐었을 때 한 손에 속 들어오도록 유선형으로 디자인됐다. 레버를 가볍게 닿기만 변속이 시작되고 다시 중심 위치로 자동 복귀한다.

아우디의 장기로 자리매김한 LED 라이트 기술은 신형 A8에서 농익었다. 헤드라이트를 2분하는 날개 모양의 크롬 윤곽선 아래 22개의 흰색 LED와 같은 숫자만큼의 황색 LED가 나란히 자리잡아 주간 운행 때, 또는 방향지시등을 켤 때 점멸하면서 멀리서도 'A8이다' 하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Coverage Clipping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고 세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존 모델보다 출력과 토크를 높였다. 4163cc의 뉴 아우디 A8 4.2 FSI 콤팩트는 최고 출력 371 마력, 최대 토크 45.4kg·m,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시간) 5.7초, 공인연비 8.3km/l의 성능을 보였다.

아우디 본사와 한국지사는 A8을 최대한 화려하게 론칭하기 위해 마케팅에도 특별한 공을 들였다.

잠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2층짜리 'A8 파빌리온' 건물을 짓고 총 3088개 스피커로 선악대왕 신중을 형상화한 한원석 작가의 작품 '형언'을 전시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 난 프랑스 요리사 피에르 가니에르를 직접 불러 요리를 선보이는 등 문화 이벤트를 벌였다.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독일에서 비행기로 A8을 미리 공수해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34대의 G20 스페셜 에디션 차량은 정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판매가 완료됐다. 수많은 명차 브랜드를 거느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독 A8 발탄차를 직접 공수해 타고 다님으로써 아우디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가하면 전통의 벤츠는 그 어떤 공세에도 아랑곳없이 최고급 세단에서만은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증명하고 있다.

배기량 5514cc, 517마력, 84.6kg·m이라는 최대 토크의 벤츠 S600L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파워를 보였다. 제로백은 4.6초로 BMW 뉴 760Li와 동일하다. V12 트윈터보 엔진에서 폭발하는 힘은 운전석에서 계기판을 통해 느낄 수 있을 뿐 뒷좌석에 탄 VIP는 절대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알칸타라 천장 마감, 최고급 호두나무 무늬트림으로 광택 마감된 장식, 차체 측면에 새겨진 V12 엠블럼은 최고 명차를 탄다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들이다.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는 하만카돈 사운드시스템은 어느 좌석에 있던 최고 소리를 연출한다.

지난해 9월 새로운 S600L이 출시된 후 지난해 70대, 올해 들어 120여 대 등 지금까지 190여 대가 팔렸다. 2억6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세 꼭지 벌이 주는 최고 자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되는 셈이다.

성능에서 벤츠 S600L에 대적할 맞수는 BMW 760Li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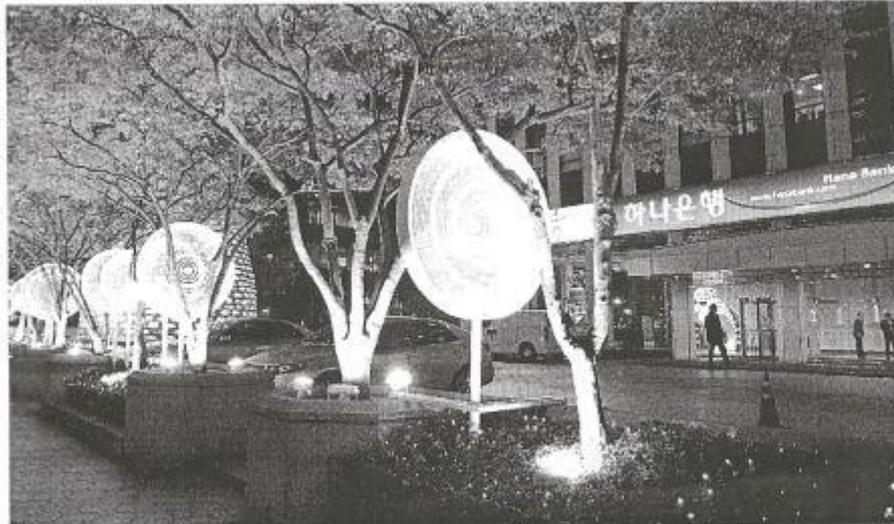
S600L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트럭을 능가하는 파워를 지닌 760Li는 12기통 6000cc에 육박하는 엔진으로 최고 출력 544마력, 최대 토크 76.5kg·m, 제로백 4.6초의 동력 성능을 보였다. 시내 도로에서는 자칫 잘못된 힘을 썼다간 속지법을 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BMW 최초로 자동 8단 기어를 얹어 부드러운 변속감을 더했다는 점이 5단 변속기를 쓰는 S600L과 대조된다.

더 정교해진 헤드업디스플레이나 발길 눈이 띄우는 나이트비전, 운전 방향에 따라 길을 비추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등은 BMW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면서 760Li에 가장 신경을 써서 장착한 첨단 사양들이다. 가격은 2억6500만원.

이 밖에도 자칭 '니치(틈새) 프리미엄'이라고 명명된 재규어의 기함 뉴 XJ, 폭스바겐의 럭셔리 갈망은 담은 뉴 패이론, 현대차의 미래를 담은 예루스 4.6 등도 럭셔리 대전에 뛰어들고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디지털타임스		
DATE	2010.11.09	SECTION	금융/재테크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 등 공공 예술작품을 설치,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하나은행 본점 예술무대 변신

도시빌딩 형상화한 집·탑 입체구조물 설치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 건물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 빌딩을 상징화 한 집과 탑 형태의 무명 입체구조물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설치해 내년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옵티컬 시티(Optical City)'로 사람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느끼는 동시에 시가상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온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름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

또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원근법, 빛의 조화 그리고 착시현상을 이용해 주위의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도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설치 예술작품은 설치작가인 윤상렬의 작품이다.

윤 작가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프랑스 시에 레지던스 프로그

램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Fear'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선율의 환영전' 등을 선보인 역량 있는 젊은 작가다.

하나은행은 앞서 2009년 한원석 작가의 '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은행의 소장품을 본점에 전시한 '하나 컬렉션', 2007년 고우서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2006년 김혁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보낸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예술작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은행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기자 jokim@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10.11.09	SECTION	경제

세라믹 전시회 “세라믹, 아트&테크놀로지 - 세라믹 테카르트를 만나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0-11-09 14:56 기사원문



[동아닷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큐레이팅 컴퍼니 Hzone 주관으로 열리는 전시 “세라믹 아트 & 테크놀로지”가 양재동 aT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인류사의 오래된 숙제인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융합을 시도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놀랍게도 도자가 아닌 첨단 아트 작품들이다. 핸드폰의 햅틱 기술, 자동차의 거리 감지 센서, 현관 자동 점열등, 태양열 배터리, LED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첨단 세라믹 덕분이라고 하니 이번 전시의 취지를 짐작케 한다.

특히 한원석 작가와 안종연 작가의 작품이 인상적이다. 세라믹으로 만든 스피커가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어두운 방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등 뒤 다리 쪽에서 소리가 울린다. 한원석 작가의 작품 사운드 포레스트는 이 처럼 소리를 이용해 공간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작품이다. 기존의 지관 스피커에 한국세라믹 기술원의 기술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품에 내재된 세라믹 센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LED가 켜지고 수십 개의 관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의 울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의 협업으로도 유명한 안종연은 작품 ‘빛의 영혼’을 출품하였다. 유리구 안에서 변화하는 LED의 다채로운 빛이 퍼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만다라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만화경’의 이미지는 빔프로젝트를 통해 영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overage Clipping

이번 전시를 주최한 김경희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은 “식기, 위생도기, 시멘트, 유리 등 전통세라믹부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각종 첨단제품의 핵심 부품의 소재인 첨단세라믹까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세라믹의 산업적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세라믹산업의 경쟁력은 전통세라믹 분야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가격경쟁력에, 첨단세라믹 분야는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경쟁력에 힘겹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세라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국내 세라믹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첨단세라믹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을 예술과 산업으로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산업, 기술, 예술,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설치 및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는 24명의 작가들과 전통세라믹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30 여명의 작가 그 밖에 다양한 기업체들의 기술과 라이프관을 통해 전통과 현대, 과학과 예술, 산업과 순수예술, 장르와 장르가 서로 교감하고 협업하는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Karim Rashid가 디자인한 세턴베스의 위생도기 작품을 체험한 뒤, 건축가 한원석의 반응하는 지관 세라믹 스피커 숲을 걸어 나와, 유럽 8개국 16명의 아티스트들이 제안하는 세라믹웨어를 감상하고, 알렉산드로 만디니와 그의 수석 디자이너 그리고 한국의 해강청자가 협업한 청자와 디자이너의 만남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녹색 성장을 선도할 그린 세라믹 기술을 예술작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함으로써, 관객들이 쉽게 첨단 세라믹을 이해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압력을 받아서 생긴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 해주는 '압전 세라믹' 기술, 체온이나 외부 열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열전 세라믹', 미래 대체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초경량화된 세라믹 소재인 경량소지 등을 응용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직접 참여 할 수도 있다.

전시를 기획한 Hzone 이대형 대표는 “작가들의 상상력이 기업과 도시 경관 등 실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체에게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02 567 6070)

Coverage Clipping

MEDIA	디지털타임스		
DATE	2010.11.08	SECTION	경제

하나은행 본점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력 2010-11-08 14:21 기사원문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 건물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빌딩을 상징화 한 집과 탑 형태의 투명 입체구조물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해 내년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옵티컬 시티(Optical City)'로 사람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느끼는 동시에 시기상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온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를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 또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원근법, 빛의 조화 그리고 착시현상을 이용해 주위의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도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설치 예술작품은 설치작가인 윤상렬의 작품이다. 윤 작가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프랑스 시떼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Fear'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선율의 환영'전 등을 선보인 역량 있는 젊은 작가다.

하나은행은 앞서 2009년 한원석 작가의 '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은행의 소장품을 본점에 전시한 '하나 컬렉션', 2007년 고우석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2006년 김혁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보낸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예술작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은행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age Clipping

MEDIA	파이낸셜뉴스		
DATE	2010.11.08	SECTION	경제

하나은행 "본점 예술작품 설치운영"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 2010-11-08 14:20 기사원문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 건물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빌딩을 상징화한 집과 탑 형태의 투명 입체구조물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 오는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옵티컬 시티(Optical City)다. 하나은행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느끼는 동시에 시기상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예술작품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시각적 온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를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원근법, 빛의 조화 그리고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주위의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도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치 예술작품은 설치작가인 윤상렬의 작품으로 윤작가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프랑스 시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Fear'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선물의 환영'전 등을 선보인 역량있는 젊은 작가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지난해 한원석 작가의 '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은행의 소장품을 본점에 전시한 '하나 컬렉션', 2007년 고무석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2006년 김혁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브레이크뉴스	SECTION	경제
DATE	2010.11.08		

하나銀, 본점 주변에 예술작품 설치

김광호 기자 ☎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을지로 본점 주변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 내년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작품들은 'optical city'라는 주제로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빌딩을 상징화한 집과 탑 형태의 투명 입체구조물 등으로 제작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보낸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안겨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운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를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지난해 한원석 작가의 '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 컬렉션', 2007년 고우석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등의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kkh6794@naver.com

Coverage Clipping

MEDIA	이투데이	SECTION	경제
DATE	2010.11.08		

하나은행 본점 건물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최종수정시간 : 2010-11-08 11:12



🔍 [속 늙어진 50대 다시 새운 정력재는?](#)

🔍 [백화점에서 25%할인받는방법~!!](#)

이투데이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 건물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빌딩을 상징화한 집과 탑 형태의 투명 입체구조물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Optical City'로 사람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느끼는 동시에 시기상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온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를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원근법, 빛의 조화 그리고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주위의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도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설치 예술작품은 설치작가인 윤상철의 작품이다. 윤 작가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프랑스 시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Fear'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선물의 환영'전 등을 선보인 역량있는 젊은 작가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2009년 한원석 작가의 '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은행의 소장품을 본점에 전시한 '하나 컬렉션', 2007년 고우석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2006년 김혁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보낸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안겨주고자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은행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ahnkj@)

Coverage Clipping

MEDIA	경제투데이	SECTION	금융
DATE	2010.11.08		

하나은행 본점 건물 주변 예술품으로 탈바꿈

기사입력 2010-11-08 10:53 | 최종수정 2010-11-08 11:09

본점 건물 주변에 다양한 예술작품 설치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주변에 설치된 공공 예술작품 모습 / 사진-하나은행 제공

[경제투데이 민동훈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을지로 본점 건물 주변에 원형의 표적 모양과 도시빌딩을 상징화 한 집과 탑 형태의 투명 입체구조물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해 내년 1월까지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작품의 주제는 '옵티컬 시티(Optical City)'로 사람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느끼는 동시에 시가상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겨울과 연말연시라는 시간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온기를 느끼고 동시에 발길을 머무를 수 있는 흥미를 유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 또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의 색채, 원근법, 빛의 조화 그리고 착시현상을 이용해 주위의 집중적이고 밀도 높은 도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설치 예술작품은 설치작가인 윤상열의 작품이다. 윤 작가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프랑스 시메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동을 해왔으며, 2007년 'Fear'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선율의 환영'전 등을 선보인 역량있는 젊은 작가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2009년 한원석 작가의 '침성대 설치미술', 2008년 하나은행의 소장품을 본점에 전시한 '하나 컬렉션', 2007년 고우석 작가의 '본점건물 래핑', 2006년 김혁 작가의 '본점 건물 래핑'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힘든 한해를 보낸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안겨주고자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은행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신문		
DATE	2010.11.05	SECTION	생활/문화

전통·상상이 만났다 10~13일 '테크놀러지전' 세라믹 아트의 향연

첨단 세라믹 기술의 다양한 변모를 예술과 결합시킨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국내 유일의 세라믹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미술기획사 Hzone은 10~13일 서울 양재동 a7센터에서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전을 개최한다.

전통 세라믹은 도자기나 식기의 소재로 주로 쓰였지만 현대 세라믹은 휴대전화의 절연 기술, 자동차의 거리 감지 센서, 태양전지, 발

광다이오드(LED)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회는 국내외 50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적인 세라믹 제품부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작품까지 총 500여점을 선보인다.

'세라믹 컬처관'에서는 세계적 디자이너 카림 카시드가 디자인한 위성도기 작품과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한국의 해강형자가 협업한 '인테리어채널의 청자 프로젝트', 유럽 8개국

10명의 도자 아티스트가 참여한 작품을 통해 전통 세라믹과 예술적 상상력의 결합을 보여 준다.

'테크 아트관'에서는 알렉으로 생긴 진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압전 세라믹 기술, 체온이나 외부 열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열전 세라믹 등 첨단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미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별 초대 전시인 설치미술가 안종연의 세



안종연 '빛의 영혼'

준다. 무료. (02)567-8070

이순너기자 coral@seoul.co.kr

라믹 센서와 LED 조명을 이용한 '빛의

영혼'. 건축가 한원석의 세라믹 스피커 숲은 세라믹 신소재의 신기술을 접목한 세라믹 테크 아트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10.11.04	SECTION	문화

단신

10일부터 세라믹 체험 전시

세라믹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세라믹 아트&테크놀로지'가 10~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2관에 서 열린다.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김경희)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휴대폰의 햅틱 기술, 자동차의 거리 감지 센서,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설치·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는 24명의 작가와 전통 세라믹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 30여명의 작품 및 다양한 기업체의 첨단 제품들을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의 위생 도기 작품, 건축가 한원석의 지관 세라믹 스피커 숲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02)567-0670

Coverage Clipping

MEDIA	아시아경제		
DATE	2010.11.04	SECTION	경제

아우디 신차 행사서 협회 '역할론' 대두된 까닭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10-11-04 10:53 | 최종수정 2010-11-05 08:09 | 기사원문



뉴 아우디 A8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우디 코리아가 8년 만에 야심차게 선보인 최고급 세단 '뉴 A8' 신차 발표회장에서 수입차협회의 '역할론'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사정은 이렇다. 아우디는 올해 경쟁사인 폭스바겐과 BMW 등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데 반해 연말로 예정된 뉴 A8 공개를 위해 1년 내내 묵묵히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실제 지난 3일 신차 발표회 현장은 웅장하고 화려함 그 자체였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한쪽에 'A8 파빌리온'을 특별히 설치하고 입구에서부터 뉴 A8 영상과 소리를 담은 미디어 작품을 전시했다. 총 3088개의 스피커로 성덕대왕 신종을 형상화한 한원석 작가의 '형연'을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원의 '전기 인간' 등 국내 신진 예술가들을 대거 기용했다. 또한 미술랭 3스타를 받은 세계적인 요리사 피에르 가니에르가 음식 아트를,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브라이언 윌슨이 식사 중 마들린 면로 초상화와 뉴 A8을 그리는 퍼포먼스까지 더 해졌다.

아우디는 올해 진행된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 발표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우디는 뜻하지 않게 흥행에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 같은 날 도요타가 자동차 기자단을 일본 본사로 초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전북 변산반도 일원에서 신형 엑센트 시승회를 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된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사실 아우디는 신차 발표 일정을 잡으면서 고민이 깊었다. 비슷한 시기 현대차가 소형 세단 엑센트 시승 행사 등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이 도요타에서 일본 공장 견학 행사를 갑자기 잡았고 본의 아니게 3개의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책임론의 불뚱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측으로 쏠렸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 신차 발표의 흥행 실패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간의 상도덕을 깬 도요타의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협회의 역할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입차협회장은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맡고 있다.

MEDIA	아시아경제	SECTION	산업
DATE	2010.11.04		

아우디 신차발표 흥행실패는 수입차協 탓?

현대차 시승행사·도요타 日견학 중복일정 조율못해

아우디 코리아가 8년 만에 아심차계 선보인 최고급 세단 '뉴 A8' 신차 발표 회장에서 수입차협회의 '역할론'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사정은 이렇다. 아우디는 올해 경쟁사인 폭스바겐과 BMW 등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데 반해 연말로 예정된 뉴 A8 공개를 위해 1년 내내 묵묵히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실제 지난 3일 신차 발표회 현장은 웅장하고 화려함 그 자체였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한켠에 'A8 파빌리온'을 특별히 설치하고 입구에서부터 뉴 A8 영상과 소리를 담은 미디어 작품을 전시했다.

총 3088개의 스피커로 성덕대왕 신종을 형상화한 한원석 작가의 '형언'을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뮌의 '전기 인간' 등 국내 신진 예술가들을 대거 기용했다. 또한 미술랭 3스타를 받은 세계적인 요리사 피에르 가니에르가 음식 아트,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브라이언 올슨이 식사 중 마블린 먼로 초상화와 뉴 A8을 그리는 퍼포먼스까지 더해졌다.

아우디는 올해 진행된 수입차 브랜드의 신차 발표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우디는 뜻하지 않게 흥행에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왜 그랬을까. 같은 날 도요타가 자동차 기자단을 일본 본사로 초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전북 변산반도 일원에서 신형 엑센트 시승회를 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된

탓이 컸다는 분석이다.

사실 아우디는 신차 발표 일정을 짚으면서 고민이 깊었다. 비슷한 시기 현대차가 소형 세단 엑센트 시승 행사 등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이 도요타에서 일본 공장 견학 행사를 갑자기 잡았고 본의 아니게 3개의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책임론의 불똥은 수입차협회 측으로 튀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 신차 발표의 흥행 실패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간의 상도덕을 깬 도요타의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협회의 역할에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입차협회장은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맡고 있다.

김혜연 기자 kimhye@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10.11.03	SECTION	문화

[단신]10일부터 세라믹 체험 전시 外

경향신문 | 24면 4단 | 기사입력 2010-11-03 21:40 | 기사원문



서양화가 이영화 유화 개인전

서양화가 이영화의 개인전 '2000 return to innocence'가 서울 청담동 only갤러리에서 6일까지 개최된다. 작가의 감정과 감동을 표현한 파스텔톤의 유화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02)548-3692

10일부터 세라믹 체험 전시



세라믹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세라믹 아트&테크놀로지'가 10~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2관에서 열린다.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김경희)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휴대폰의 햅틱 기술, 자동차의 거리 감지 센서,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설치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는 24명의 작가와 전통 세라믹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 30여명의 작품 및 다양한 기업체의 첨단 제품들을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워생도기 작품, 건축가 한형식의 지관 세라믹 스피커 숲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02)567-0670

색과 빛의 작가 9인의 작품전

색과 빛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작가 9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색과 빛, 그 지점'전이 서울 삼성동 인터알리아에서 18일까지 열린다. 색색의 작은 풀 이미지를 모아 인물을 형상화한 사진작가 우종일, 이탈리아 풍경을 색과 빛으로 표현한 국대호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02)3479-0114

스마트 포토 기부 페스티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기부받아 전시하고, 판매해 얻은 수익을 다시 기부하는 전시 '2010 스마트 포토 페스티벌 - 스마트하십니까?'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 앱(아이폰용) '스마트 포토', 홈페이지 s.martphoto.or.kr와 e메일 2010smartphoto@gmail.com 등으로 24일까지 보내면 된다. 접수한 사진 중 1000여점을 선별해 소개하는 전시는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나우에서 열린다.

Coverage Clipping

MEDIA	머니투데이		
DATE	2010.11.03	SECTION	경제

아우디 A8 초호화 출시... "올해만 400대 판다"

MT **자동차** 기사입력 2010-11-03 16:47 기사종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8년만에 최고급 세단 품체인지 모일, "출시행사에 가장 많은 돈 쏟아부어"]



아우디코리아가 8년 만에 바뀐 최고급 모델 뉴 A8을 3일 국내 출시했다. 최고급 세단의 품칭 행사 인 만큼 특유의 문화 마케팅을 앞세워 호화롭게 진행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아예 행사를 직접 만들었다. 서울 올림픽 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 'A8 퍼블리온'이라는 2층 규모의 가건물을 설치했다.

1층에는 신차 발표를 위한 무대와 수 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됐고 2층에는 어지간한 레스토랑을 방불케 하는 식당과 주방이 마련됐다.

이 건물은 이날 미디어 출시행사 후 오는 5일까지 고객과 딜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를 더 치르고 6일 철거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날아온 요리사들이 작업할 주방 등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짓는 편이 낫다"며 "역대 국내 출시행사 중 가장 많은 돈을 들었다"고 말했다.

음악이나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화려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세계적 요리사인 피에르 가니메르가 프랑스에서 방향해 주방을 운영하고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브라이언 플린이 안무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펼쳤다.

행사장 입구에는 한왕석 작가가 모두 3000개의 스피커로 설악대장 신중을 형상화한 '할연'이란 작품도 전시됐다.

이날 발표된 뉴 A8 역시 성능과 외관, 편의사양 등이 돋보였다. 외관은 전장 5137mm, 전폭 1949mm, 전고 1460mm, 휠베이스 2902mm의 크기로 이전 모델보다 전장(+75mm), 전폭(+55mm), 휠베이스(+48mm)가 모두 커졌지만 전고는 낮게 유지해 역동적 모습을 연출한다.

파워트레인도 더욱 강력해졌다. 4.2 FSI 콰트로 모델은 배기량 4163cc의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371마력, 최대 토크 45.4kg.m의 힘을 발휘한다. 제로백(정지상태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은 5.7초다.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연비는 1리터당 8.3km를 기록한다.

고급사양도 강화돼 4개 구역으로 나뉜진 자동 조절 에어컨, 햇빛속 전동식 햇빛가린개, 전동식 테일게이트 등이 적용됐다. 앞차와의 자동 간격 조절은 물론 앞차의 진행에 따라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할 수 있는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갖췄다. 햇빛속 마사지 기능과 전동 스크린 등 햇빛속의 고급스러움도 최고 수준이다.

트레버 힐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올해만 400대를 팔 예정인데 벌써 200대 정도는 예약이 끝났다"며 "내년부터 연간 1000대 이상을 팔 것"이라고 밝혔다.

뉴 A8의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4.2 FSI 콰트로 모델이 1억4000만원, 4.2 FSI 콰트로 RSE 모델이 1억5700만원이다.

Coverage Clipping

MEDIA	오토타임즈		
DATE	2010.11.03	SECTION	수입차>신차

아우디코리아 '뉴 아우디 A8' 발표

입력 2010-11-03 09:45 | 수정 2010-11-17 11:28



아우디코리아는 3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특별히 설치한 신차발표회장 'A8 파빌리온'에서 뉴 A8을 발표했다.

아우디에 따르면 8년만에 풀체인지된 뉴 A8은 다이내믹한 성능, 혁신적인 기술, 최상의 안락함을 모두 갖춘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경량 알루미늄 차체,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 더욱 향상된 MMI(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라이트비전**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풀 LED 헤드라이트, 우아한 인테리어 등으로 아우디의 기업 슬로건 '기술을 통한 진보'를 증명하고 있다.



새 차는 길이 5,137mm, 휠베이스 2,992mm, 너비 1,949mm, 높이 1,460mm로 구형이나 경쟁차종보다 훨씬 크다. 반면 높이는 경쟁차종보다 낮아 더욱 역동적이고 균형잡힌 모습이다. 차체가 커진 만큼 더욱 넓고 편안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뉴 A8은 엔진에 적용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 혁신적인 열관리 시스템 등 아우디 모듈 이피센시 시스템의 지능형 부품들을 비롯해 새로운 8단 톱트로닉 자동변속기 등 첨단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료효율을 부쩍 높였다. 4.2 FSI 쿼트로에는 가솔린 직분사 4,163cc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371마력, 최대토크 45.4kg·m를 발휘한다. 0→시속 100km **가속시간**은 5.7초, 최고속도는 210km/h(안전제 한속도)다. 연비는 l당 8.3km.

Coverage Clipping



새 차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스키팩이 포함된 **로드-스루**, 전통식 **태일게이트**, 캠프트 커, 헥유리 전동식 햇볕가리개, 4구역 자동 조절 에어컨, LED 실내등 패키지 등 다양한 고급 편의장치들을 갖췄다. 출력을 크게 높인 보스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은 선택품목으로 제공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발표회에서 '진보가 낡은 예술품 뉴 A8'을 선보이기 위해 특별히 신차발표회장 'A8 파빌리온'에 많은 공을 들였다. 먼저, 입구의 A8 아트 **갤러리**에 뉴 A8의 영상과 소리를 담은 미디어 작품을 전시했다. 스피커 3,088개로 성역대할 산공을 형상화한 **한영석 작가의 '형언'**을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편의 '경기 인간' 등 국내 신진 예술가들을 기용해 아우디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문화**를 예술과 접목해 엮을 수 있게 꾸몄다. 또 세계적인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가 직접 주방을 운영하며 특별 코스 메뉴를 선보이는 **음식 아트**.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브라이언 올슨이 음악과 안무, 메인탈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펼쳐며 **마블린** 면로 초상화와 뉴 A8을 그리는 **페인팅 아트**를 선보였다.



한편, 아우디 코리아는 이번 뉴 A8 신차발표회에서 사회공헌의 노력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은 의전차 34대에 특별 제작한 G20 엠블럼을 부착해 행사 종료 뒤 스포셜 에디션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모델이 판매될 때마다 대당 100만 원씩 적당해 모두 3,4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올슨이 신차발표회에서 그린 작품도 **갤**에 판매 금액 전액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할 예정이다.

뉴 A8 4.2 FSI 콤팩트의 판매가격은 1억4,000만 원, 뉴 A8 4.2 FSI 콤팩트 RSE는 1억5,700만 원이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시스		
DATE	2010.10.31	SECTION	IT/과학

세라믹, 데카르트 Tech Art를 만나다

www.NEWSIS.com | 기사등록 2010-10-31 09:11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세라믹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융합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세라믹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KCET)과 미술기획사 HZONE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0 세라믹 아트 & 테크놀로지'전을 펼친다.

'세라믹, 데카르트(Tech-Art)를 만나다'가 주제다.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세라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라믹은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를 일컫는다. 유리와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전시회는 식기 같은 전통적인 세라믹 제품부터 휴대폰과 발광다이오드(LED) 등 첨단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기술로 이용한 작품까지 총 50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디자이너 카를 카시드가 디자인한 위성도시 작품과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한국의 해양철자가 협업한 '인터아트채널의 철자 프로젝트'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유럽 8개국 16명의 아티스트들이 작업한 세라믹웨어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김형기 교수의 인터랙티브 아트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설치미술가 안중연씨의 세라믹 센서와 LED조명을 이용한 전시, 건축가 한원석씨의 지관 세라믹 스피커 등도 초대전도 마련된다.

KCET 김경희 원장은 "세라믹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HZONE 이대형 대표는 "세라믹 기술 제품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덧대 부가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고 소개했다.

KCET와 HZONE은 이 전시를 매년 열 계획이다. 입장료는 없다. 02-567-0670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10.10.29	SECTION	문화

<문화소식>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展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0-29 13:41



안종연 '빛의 영혼'(Econ of light), variable scale 010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세라믹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세라믹 아트&테크놀러지'전이 다음 달 10~13일 양재동 aT센터 2관에서 열린다.

미술기획사 HZONE이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김경희)과 함께 여는 전시로, 식기와 위생도기 등 전통적인 세라믹부터 휴대전화나 디스플레이 장치 등 각종 첨단제품 속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 기술을 이용한 예술작품들이 전시된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건축가 한원석, 설치작가 안종연 등이 참여해 압력으로 생긴 진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압전 세라믹 기술, 체온이나 외부 열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생

산하는 열전세라믹 등 첨단 세라믹기술을 이용한 미술 작품들을 소개한다. ☎02-567-0670.

▲평창동 가나아트갤러리는 악기제조업체 삼익악기와 함께 미술작가들이 꾸민 피아노를 소개하는 '아트포르테'전을 연다.

장승효와 인도네시아 작가 줄렛 쿠스비다난토, 중국 작가 리진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이들이 삼익악기에서 제공받아 각자의 스타일로 꾸민 피아노들이 다음 달 1~7일 전시된다.

이 중 장승효가 꾸민 '블레스 어스-윈터'(Bless Us-Winter) 피아노는 G20 정상회의 만찬 공연 때 사용될 예정이다.

▲여성주의(페미니즘) 미술작가 7명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으로 가정과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다중적 역할을 수행한 여성들의 면모를 이야기하는 '워킹 맘마미아'전이 열린다.

'바리공주 신화'를 소재로 한 윤석남의 설치 작품과 돈을 소재로 한 박영숙의 사진 작품, 조선시대 문자도를 재해석한 류준화의 그림을 비롯, 정정엽과 김인순, 윤희수, 이피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여성가족부가 대방동에 설립한 여성사전시관에서 다음달 4일부터 12월15일까지, ☎02-824-3086.

▲월간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소개된 사진 중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을 다룬 사진들을 모은 사진전이 29일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자연 풍경, 동식물의 삶,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 현장,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노력 등 4가지 주제의 사진 180여점이 12월9일까지 전시된다. ☎1544-1681.

Coverage Clipping

MEDIA	공감코리아		
DATE	2010.06.12	SECTION	정책정보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4월 20일 2010-06-12 11:44 (수정됨)

◆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소풍, 추모, 감사, 화합 등 주제별 다양한 행사 열려 ◆

◆ 온라인, 광화문 광장, 형제광장,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에서 전시, 퍼포먼스, 합전국 공연 등 다채로운 참여행사 준비 ◆

6.25전쟁 60년을 맞아하여 전쟁의 실상을 기억하고, 감사와 추모의 뜻을 모아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평화 염원 범국민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이 주최하며,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온라인을 비롯하여 광화문광장, 형제광장,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 서울 곳곳의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소풍, 추모, 감사, 화합의 기간별 주제에 따라 전시, 퍼포먼스, 합전국 공연 및 시민참여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은 6.25전쟁 이후 모범적으로 경제, 사회적 성과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21개 합전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감사와 보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지구촌 통합의 장이 될 것이다.

- 기억, 평화의 메시지로 거듭나다.

형제광장에서는 합전 21개국을 상징하는 미디어 조형물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디시는 울리지 못할 줄 알았던 페이스키가 모여서 희망의 염원을 담은 향연(忽然)으로 살아 소통의 상징물이 된다.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 기억과 회개, 평화라는 한마당의 주제를 클래식, 록, 재즈를 빌어 노래한다.

이 밖에 '평화를 선포하는 가게'를 통해 6.25전쟁 합전국이자, 구호발령지원에 나선 애타오피아와 아이티에 수익금을 전달하는 평화 메신저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 참여, 평화를 염원하다.

한편,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포토타일을 만들고, 이 포토타일에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평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인 'Face of Peace'가 열리고, 평화 염원 메시지를 세계 지도 벽화에 꽂는 프로그램인 '평화의 바람개비' 등이 펼쳐진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외벽에는 합전 21개국의 합전 현장을 비롯하여 '이제는 우리가 평화와 희망을 전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미디어 타사드 영상으로, 유유히 흐르는 직계전 유수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문양을 조합한 영상소가 펼쳐져 눈치있는 관람객의 추억을 선사한다.

세계, 평화의 울림을 듣다. 서울광장에서는 평화의 그림일기 대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준비한 어린이 경찰악대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여의도 광장에서는 1만여 개의 화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형상화한 설치미술 '희망! 대한민국'이 전시된다.

- 참여, 평화를 염원하다.

한편,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포토타일을 만들고, 이 포토타일에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평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인 'Face of Peace'가 열리고, 평화 염원 메시지를 세계 지도 벽화에 꽂는 프로그램인 '평화의 바람개비' 등이 펼쳐진다.

Coverage Clipping

또한,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외벽에는 참전 21개국의 참전 현장을 비롯하여 '이제는 우리가 평화와 희망을 견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류유호 호르는 절제된 유수에 다양한 패턴과 문양을 조합한 영상쇼가 펼쳐져 문치있는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세계, 평화의 물질을 듣다. 서울광장에서는 평화의 그림일기 대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준비한 어린이 경찰학대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여의도 공작에서는 1만여 개의 화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형상화한 설치미술 '희망! 대한민국'이 전시된다.

<행사 소개>

'가슴으로부터(From the Heart)'

청계광장에 설치될 참전국 21개국을 상징하는 12m의 미디어 스크린 타워와 22개의 미디어 스크린으로 구성된 미디어 조형물

'황연(滄然)'

광복교에는 3086개의 페스피커를 이용하여 성덕대왕 신종(폭2.3m 높이3.7m)를 실물 그대로 재현한 한림익 작가의 '황연(滄然)'이 설치된다. 특히 이 작품은, 전쟁의 실존을 간직한 패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소용의 미학을 현대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 영상쇼

매주 금, 토, 일 밤 9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외벽을 통해 펼쳐질 미디어 파사드 영상쇼는 전쟁의 피하를 딛고 광복을 앞둔 대한민국이 이전 참전국 21개국에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이다.

평화 콘서트

기억, 화해, 평화라는 3가지 주제의 평화콘서트가 6월 11일, 19일, 26일의 3일간 청계광장에서 펼쳐진다. 코리안 합스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콘서트로 그 문을 열게 될 평화콘서트는 소울스튜디오 옥커스, 갈산에 밴드, 크라이 넷의 록 콘서트, 윈터플레이, 노영심과 정재일, 윌리엄지외아가 선사하는 재즈의 황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평화를 선물하는 가게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평화를 선물하는 가게'도 기간 내 예정되어 있다. 이는 '평화'라는 무형의 이미지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전달하는 행사로 금, 토, 일요일에 열린다.

평화 어울마당

'평화 어울마당'은 21개 참전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술 공연 및 참전국 장기자랑, 퀴즈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Face of Peace'와 '평화의 바깥개비'

청계천변에서 펼쳐지는 'Face of Peace'는 사진에 온라인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접수받아 포토타일로 Peace of Korea라는 글자를 만들고 그 배경을 이루는 타일에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평화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참여행사이다. '평화의 바깥개비'는 관람객들이 바깥개비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적은 후 대형 세계 지도 벽화에 꽂는 프로그램이다.

평화의 그림일기 대회

6월 19일 서울광장에서는 초등학교와 국제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평화의 그림일기' 대회가 펼쳐진다. 이 날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연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어린이 경찰학대 연주를 시작으로 인기 연예인인 조소유와 류수열이 소속된 호두라기 연극단과 서울경찰학대의 멋진 공연이 서울광장 무대에서 펼쳐지며 경찰청의 마스코트인 포동이 포순이와 사진찍기, 거미대 말과 경찰 사이드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DATE	2010.06.11	SECTION	사회

11일부터 서울 곳곳에서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

www.NEWSis. | 기사입력 2010-06-11 14:56

【서울=뉴스시스】 이인준 기자 =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은 11일부터 27일까지 '평화염원 범국민 한마당'을 서울 곳곳에서 연다.

기획단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쟁 상흔을 기억하고, 감사와 추모의 뜻을 모아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17일간 온라인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여의도 공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계광장에는 참전 21개국을 상징하는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광통교에는 3088개의 페스피커를 이용해 국립경주박물관의 성덕대왕 신종울 실물 그대로 재현한 한원석 작가의 '형언'도 전시된다.

또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 청계광장에서 '기억과 화해, 평화'라는 주제로 평화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11일, 19일, 26일 세 차례 열리며 소울스튜디오 록커스, 강산에 밴드, 크라이밍 넷, 윈터플레이, 노영심과 정재일, 클래지콰이 등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 중 청계천변에서 온라인 사전접수 받은 일반인의 사진을 포토타일로 제작, 'Peace of Korea'라는 글자로 형상화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바람개비에 적어 대형 세계지도 벽화에 꽂는 '평화의 바람개비'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 토 일 청계광장에서는 21개 참전국의 전통문화 공연, 장기자랑, 퀴즈 경연 등이 펼쳐지는 '평화어울마당' 등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외벽에는 참전 21개국의 참전 현황이 전시되며, 매주 금 토 일 밤 9시에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쇼를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19일 평화의 그림일기 대회와 어린이 경찰악대 연주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인기 연예인 조승우와 류수영이 소속된 후투라기 연극단과 서울경찰악대의 공연이 이어지며,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와 사진찍기, 기마대 말과 경찰사이드카 체험 등 서울경찰청의 공연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여의도 광장에서는 1만여 개의 화문으로 대한민국을 형상화하는 설치미술 '희망! 대한민국'이 전시된다.

Coverage Clipping

MEDIA			
DATE	2009.12	SECTION	

LIFESTYLE_jeonju
 Editor Yu Seon
 cooperation AUDI KOREA 6039-0000



The most dynamic sedan, New Audi A8

A8이 8년 만에 풀 체인지되었다. 성능, 기술, 인테리어 등 모든 면에서 아우디의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로 손색이 없다.

지난 11월 3일 올림픽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는 특별한 공간이 설치되었다. 바로 뉴 아우디 A8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A8 파빌리온'. 2층 규모로 다이내믹하고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파빌리온에서는 아우디의 기업 슬로건인 '기술을 통한 진보(Vorsprung durch Technik)'에서 착안, '진보가 낳은 예술(The Art of Progress)'이라는 컨셉으로 음악, 음식, 그림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간 펼쳐왔던 문화 마케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파빌리온 입구의 A8 아트 갤러리에 뉴 A8의 영상과 소리를 담은 미디어 작품을 전시했다. 총 3088개의 스피커로 성역대주 신중을 형상화한 한원석 작가의 '형언'을 비롯해 미디어 아티스트 핀(Moon)의 '전기 인간(Menschenstrom, Electric Human)' 등 국내 산진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또한 미술관 3스타에 빛나는 세계적인 제프 피에르가(Pierre Gagnaire)가 A8 파빌리온에서 직접 주방을 운영하며 특별 코스 메뉴를 선사했고, 미국 유명 아티스트 브라이언 올슨(Brian Olsen)이 음악과 안무, 퍼포먼싱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펼치며 마블린 연로 초상화와 뉴 A8을 그리는 페인팅 아트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뉴 아우디 A8은 8년 만에 풀 체인지된 모델로 지난 11월 11~12일 양일간 열린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전 차량으로 선정되어 출시 전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다이내믹한 성능, 혁신적인 기술, 최상의 안락함을 모두 갖춘 뉴 아우디 A8은 차체가 경량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더욱 향상된 MM(Multi-Media Interface), 나이트비전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여기에 풀 LED 헤

드라이프와 뛰어난 인테리어도 빼놓을 수 없는 뉴 아우디 A8의 강점이다. 일단 이전 모델보다 전장(5137mm)과 전폭(1949mm), 휠베이스(2992mm)가 훨씬 커졌다. 다만 전고(1460mm)는 경쟁 차종보다 낮게 유지해 훨씬 역동적이고 균형 잡힌 라인을 선보인다. 차체가 커진 만큼 실내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편안한 것은 당연한 이치. 센터 디스플레이의 계기판도 7인치로 커졌으며 좀 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운전 정보 시스템과 MM 등 최첨단의 다양한 기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뒷자석 역시 메모리 시트, 마사지 등 항공기의 피스트 클래스 수준의 편의 장치가 제공된다. 외관은 철보다 무거게 40%나 가벼운 알루미늄 차체 ASF(Audi Space Frame)가 적용돼 차의 보디가 강靑하고 안전하면서 놀랄 만큼 가벼워 운전하는 데 탁월함과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또한 고강도 보디 컴포넌트의 강도를 더욱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만으로 도중량을 6.5kg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면부에 설치한 풀 LED 헤드라이트는 주간이나 어둠이 내린 후에도 뉴 A8을 돋보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를 더욱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엔진은 새로운 8단 톱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했고, 에너지 회수 시스템, 혁신적인 열 관리 시스템 등 아우디 모듈 이파선시 시스템의 지능형 부품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효율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뉴 아우디 A8 4.2 FSI 파트 모델은 배기량 4163cc의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해 37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최대토크는 45.4kg·m이다. 0~100km는 5.7초가 걸리며 연비는 1리터당 6.3km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DATE	2009.12.16	SECTION	사회

송년에 빛나는 첨성대의 빛

NEWSis. () 기사입력 2009-12-16 18:30



【서울=뉴스시스】고명진 기자 = 16일 저녁 서울 하나은행 입구에 설치된 첨성대 작품에 빛을 이용한 송년 장식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환생'이란 제목을 가진 한원석 작가의 첨성대는 폐차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photodesk@newsis.com

Coverage Clipping

MEDIA	경기일보	SECTION	문화
DATE	2009.06.19		

week & 경기일보 문화산책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7가지 것들 ...

■이천아트홀 개관전

경기 동남부 최대 문화시설을 자랑하며 이달 초 문을 연 이천아트홀이 개관전을 열고 있다.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7가지 것들'을 주제로 실험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미술작가와 건축가 등 공간 연구가가 2명씩 짝을 이뤄 7팀이 각각 하나의 작품을 완결된 구도로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음식과 똥, 몸, 영혼, 개인, 지능, 의식을 소재로 펼쳐진다. 공간디자이너 신수용은 생명의 속을 들여다보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차종려가 호흡이 느껴지는 나무조각을 결성시켰다.

장르 다른 작가·건축가 등 짝이뤄 '실험적 전시'

도 건축가 정동현은 검은 차양막 밑에 자갈을 깔아 놓았고, 이재상은 목탄으로 그린 대나무숲을 전장 중앙에 걸쳐놓아 어둡게 조명처리했다.

이 공간디자이너 홍승표는 격자형의 프레임이 기둥기워 세워 올린 후 도예가 송영화가 팔다리가 뽀뽀머리 형태의 도예작품을 얹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여기다 공간의 숨기를 머금고 있는 사진작가 고명근의 건축적 입체사진을 공간 디자이너 박홍기가 미로 형태의 투과된 구조물을 만들고 관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 밖에 김영욱·차기율이 생명의 순환을 다뤘고, 한원석·김태근·김창훈이 대나무관을 이용해 공감각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선보였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이천아트홀은 행정타운 시청사 옆 6만7천292㎡ 부지에 사업비 360억원을 투

입,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천843㎡ 규모로 건립됐다.

전체 외형은 이천의 상징인 도자기 모양이며, 공연장 1천200석과 소공연장 450석, 전시관 600㎡를 갖추고 있다. 전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열린다. 무료. 문의 031)644-2100

/이전=김정오기자 jokim@kgib.co

▲ 차기율 '순환의 여정' 김영욱과 김석시아

▲ 구민재 '벽세'

▲ 차종려 '드라네기 드러나기'

▲ 고명근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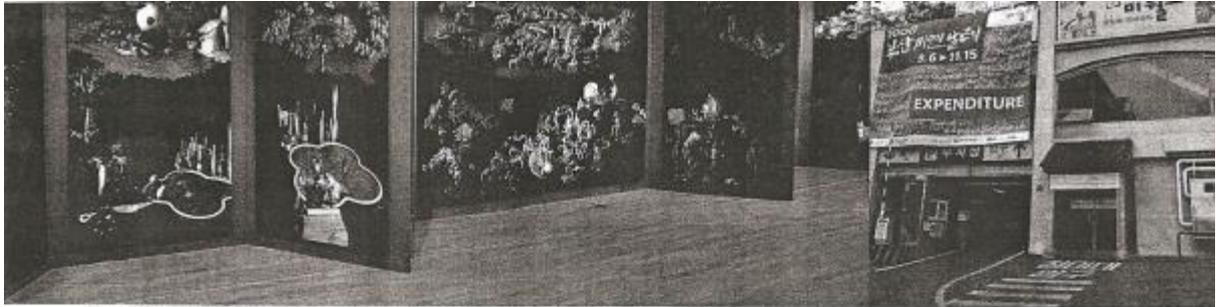
▲ 한원석·김태근·김창훈 '송고'

▲ 이재성 '겨너마'

▲ 신수용 'Casual View'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미술		
DATE	2008.10	SECTION	문화



왼쪽·마오사오순(소우주) C-프린트, 영상설치 가변크기 2008 하에르니투스 보슈의 《배려의 정원》을 레퍼디언 초형실주의적인 작품, 현대미술관에 출품했다. 오른쪽·민력동 미술드 놀이공원의 직관.

적인 교류, 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재건에 주목한다.

스포츠센터와 헬스클럽으로 쓰였다는 미합중 일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개구된 비디오 전시실 혹은 개별 작가의 전시공간으로 전환시킨 부분은 특히 효과적이다. 육식 용도의 공간에 남아 있는 타일 벽과 해묵은 카펫 등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화이트 큐브' 같은 전시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마치 작품의 일부처럼 도입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프탈렌으로 만들어진 일상의 물품들이 주를 이룬 미야나가 아이코의 작품은,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존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임의적인 전시 공간의 성격에 잘 부합된 예다.

바닷가 모래밭이라는 쉽지 않은 환경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삼은 작품들은, 보다 관습적인 의미의 '하의 조각' 작품들과 영구적이지 않은 임시성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자연 조건 자체를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은 임옥상, 김해성, 양주혜 외에도, 부산 시가의 현대적 변화를 개현한 김미예의 《유물》, 대북 선전용 스피커를 통해 평범한 바닷가의 소리를 전달한 김석의 《형연》 등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로 수렴되는 개념적, 시각적 축 겹쳐가 아쉬워

한편 2006년에 이어 영구 설치될 조각공원의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부산조각프로젝트는, APEC 나무공원에서 20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정형 전시감독에 의해 '전위 정원(Avant-Garden)'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조각의 본질을 공간에 대한 전위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을 내재화한다. 출품된 작품들의 성격은 상당히 개별적이어서, 기획자의 의도가 한 주제의 일관적인 흐름보다는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오랜 시간 다양한 관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의 선택에 집중되어 있었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수천 개의 황금색 스피커를 모아 국보 에밀레 종을 담은 《형연》을 선

보인 한원식 물성보다는 언어와 아이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작품인 《우리가 만난 이곳》의 황혜선 등을 이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걸쳐 개념미술의 대표적 작가로 활동한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는, 표의문자의 시체를 응용하여 부산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조상》을 통해,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를 언급한다. 한편 스코틀랜드 작가 케니 헌터(Kenny Hunter)는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의 일화에 바탕을 둔 《처칠의 개》라는 작품을 통해 애완 동물이 지니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회화적으로 전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 개의 확고히 분리된 영역으로 구성된 부산비엔날레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국제 행사에 비해 하나로 수렴되는 개념적, 시각적 축을 결여한 듯하다. 반드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슨한 관계의 필연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거의 야심적이라고도 할 만한 이론적 주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들 사이의 토론이 담론의 교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은 또 다른 이슈다. 물론 이런 상황은 1년이 채 안 되는 준비기간에서 기인한 물리적인 제한을 고려할 때 이해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다음 행사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비엔날레 같은 행사의 성공 여부는, 사실 단순한 관람객 수나 미디어의 반응 수준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대다수 한국 관람객이 뉴욕이나 런던, 마이징, 베를린 등 세계 각 도시에서 개최되는 주목할 만한 전시들을 직접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의 작가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런 비엔날레는, 매우 매력적인 전시의 생산과 소통 시스템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쇠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전시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든 미술의 창작과 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유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일지도 모르겠다. ●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8.09.10	SECTION	문화

미리 가 본 2008 부산비엔날레 주요 작품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10 21:47



미리 가 본 2008 부산비엔날레 주요 작품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6일 개막돼 장장 71일간 '바다의 도시' 부산을 '미술의 바다'로 안내할 2008 부산비엔날레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까.

올해의 주제는 '낭비'. 문화예술의 역사는 예술가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만들어 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40개국, 190여명의 작가가 출품한 작품들이 현대미술전과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로 나뉘어 전시된다.

2008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주요 작품과 이색작품을 분야별로 미리 살펴본다.

◇ 현대미술전 =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되며 부산비엔날레의 주 행사답게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했다.

일본 니시오 야스유키는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여성 히로인 '세일러 마스'의 죽음을 표현한 조각 작품 '광! 세일러 마스'를 전시한다.

네덜란드의 에릭 반 리샤우트의 영상설치 작품인 '록(Rock)'은 자본 앞에 선 예술가의 반응을 섬세하게 묘사했고, 우리나라 작가 윤영석은 보디빌더의 몸을 고층건물 경쟁에 비유한 사진 작품 '해부학의 건설'을 선보인다.

Coverage Clipping

또 중국 리우 웨이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통 등으로 호텔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 뒤 싸구려 녹색 페인트를 칠한 작품 `녹색호텔'을 전시한다.

자본주의의 찌꺼기를 표현하기 위해 로봇 카메라로 영국의 하수구를 촬영한 영상 작품인 이스라엘 카렌 루소의 `과잉의 경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바다미술제 =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상가 및 도로, 미월드 놀이공원, 지하철 금련산역에서 펼쳐지는 설치미술의 향연으로 부산비엔날레의 독특한 면이다.

우리나라 작가 김종구의 청동 인체상인 `그 사람'은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백사장에서 모래를 파낸 뒤 골판지 등으로 부산의 도심을 표현한 김미애의 `유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백사장에 난 작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의 `웬홀'도 놓쳐서는 안될 작품이다.

삭막한 수영구문화센터 건물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킨 이진경 작가의 `공공 프로젝트'와 거대한 나무틀안에 베이비 파우더를 이용해 부산의 지도를 만든 태국 니판 오라니웨스나의 작품 `유령의 도시'도 지나치면 후회할 작품으로 꼽힌다.

◇부산조각프로젝트 = APEC나루공원에 15개국, 20점의 조각 작품이 영구 설치된다.

현대미술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로버트 모리스가 우리나라 서예가 박후상이 쓴 `조상'이라는 글귀를 마치 돌담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리스가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가장 인상깊게 봤던 것이 돌담이었다는 것도 참고할만한 뒷얘기다.

또 현대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의 데니스 오펜하임은 `반짝이는 초콜릿'이라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데 관람객들은 작품의 안으로 들어가 감상할 수도 있다.

버려진 스피커 2천여개로 성덕대왕신종을 형상화한 우리나라 조각가 한원석의 `향연'과 부산출신의 조각가 안재국의 작품 `절제'도 거대한 설치물로 관람객들을 압도할 전망이다.

MEDIA	국제신문	SECTION	문화
DATE	2008.09.09		

'낭비'의 탐닉 vs '주제없는' 파격

"비엔날레 경쟁은 아니다. 비엔날레를 통해 다양한 작가들의 여러 관점의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지난 4일 열린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기자회견에서 5·18이 행운자(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학생) 예술감독은 우수작순차형 영자간 국내외 여러 비엔날레들과의 차별성을 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50여 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만 골목한 비엔날레가 두 개나 진행되고 있다.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엔날레가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대답이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식으로 부산과 광주에서 열려 지니 뛰어나거나 막을 올린 두 가지 빛깔의 비엔날레를 만났다. 영웅적 예술감독의 관점으로 두 비엔날레가 꾸러놓은 전시현장을 돌아볼 기회를 갖았다.

이성철 기자 ischo@kookje.co.kr

부산비엔날레

2008 부산비엔날레 본 전시가 열리고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 로비에 들어서니 나시오 야스유키(일본)가 출품한 '황: 색채와 미스'의 공보스피온 프로젝트 등 3개의 색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여인 전시인 현대미술전에서 시작한다.

지난 6일 개막한 이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낭비'를 주제로 열리며 40개국 작가 180명을 초청했다. D 현대미술전 D 비다미술계 S 조각프로젝트 등 3개의 색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여인 전시인 현대미술전에서 시작한다.

시립미술관 2층으로 올라서자 눈에 띄는 무라야마 후리코(일본)의 '무제, 조그마한 깃가지 색의 전 조각들을 비는일로 오래불어 거대한 사각형상을 만들었는데 올해 비엔날레의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오키와와 야스마의 영상을 '독재자를 비웃다'에서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은 "편안한 수면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당신은 독재자가 아니니까"라는 대사를 날리며 일상 속의 파쇼를 꼬집는다. '꽃대' 유희재를 벽면에 붙이고 귀에 영상을 붙여 조는 미우진의 '대기도시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묘 브레드도 대표되는 부산의 단편을 풍자하고 있다.

현대미술전은 인근 수영관 요트경기장 임시 건물에서 계속됐다. 조국익 기암전 '공포 브레드' '코끼리'와 영화 프로젝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제작한 김기호의 '광고로서의 코끼리'와 '유니버설 배틀', 요트경기장 야외전시 전시는 전준호의 '부활 예수상', 자살 시범연습을 암시하는 알렉스 맥클린(미국) '시공간'이 시선을 끌었다.

비다미술관은 풍안과 높이공안인 미켈레 데 사살레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영상물인 '벨레보 칼라이클로라'와 '포자 칼라이클(프랑스-독일)'의 '불안정현상'은 상가로 사카고 등 각국 도시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만들을 엮어 노래로 만든 것으로 '손님은 환영인데 서비스는 영합일까', '직장상사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잘 나는 미소'가 '미소'의 기사가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조각프로젝트에서는 스페인계 예술감독을 만난 '황' (한영석)과 울림을 상징하는 오봉기 도예의 '부산 2007 (크리스토퍼 키스 호리국)'이 인기를 끌었다.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전체적으로 진지한 작품이 많아졌으나 수작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본 전시간 경쟁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막 일만 한 미술장은 '여' 지 작품이 이 속에서



부산비엔날레 3개 색의 연결

여정적 결합 전시간 경쟁 중구난방 지적도

광주비엔날레 제대시장 빈 정보 미술관 꾸미 눈길

작품제치나 조맹 뒤떨어져

전시하는 가하는 미분이 생길 정도로 범주 규정이 확실치 않다"며 "자리의 현대미술관을 확대하고 다른 색상은 규모를 줄여 특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풍안의 연극 가에서의 전시는 '의사하지 않는 이상 작품을 갖고 관람하기 어려우, 전시장소로 적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도회와 조각 등 전통 장르까지 대가 눈에 띄었으나 신산하다는 반응과 비엔날레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었었다. 작품 간 공간은 충분한 두고 관람의 편의를 제공한 점은 돋보였다고 현대미술관을 둘러본 미술인들이 입을 모았다. 반면 개막 때까지 설치기 마무리 되지 않은 작품도 일부 있어 눈길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보다 하루 먼저 개막한 2008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 9일)의 올해 계획은 '연체보고-일 년 동안의 전시', '특별한 주제에 어울리며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하려는 의도로, 율령에 동안 전 세계에서 열렸던 의미있는 작품을 모았다. 총계 127명 작가가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산은 부산의 약 20%에 불과

광주비엔날레관을 중심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의대미술관, 대안시장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지나치게 전시장이 분산된 부산과 대조되었다.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요취일 순환도(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 영의 영

악기'로부터 시작했다.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동물 벽에 앞에서 4명의 음악가가 실제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996년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이고 시적인 다른 다큐멘터리 영과 '입맞춤'도 전시해 벽과 간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강태훈의 옥도영준 분영을 다룬 '조시마 프로젝트'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별거리는 광주 대안시장, 대안시장의 침투로 4박에가는 제대시장의 빈 정보를 활용, 미술관으로 꾸민 공공미술로 흐트러진다. '1교, 2교, 3교, 4교'는 총여의 공식을 모티브로 만들어 전시관 작품으로 점토 입구에는 "안정한 용어용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박물관 작가는 "관객도 대표유신 참여도 실제로 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여의 예술, 잘 갖가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작가 구한주의 '시장 구멍 프로젝트'는 관객 내린 서터 위에 하이킹을 위한 구멍을 달아 스킵 장미만 산수가 여가를 참여시키는 장면을 그려내어 정제된 제대시장의 활력을 불러넣고 있다.

관객적으로 향이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전시공간 활용이나 조명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고은 여타 불력 '진을 올리면 한 여출 관계자는 '미국 LA에서 같은 전시회를 봤는데 그에 비해 작품제치나 조명 용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관' 있어 행사

광주비엔날레 장점

이성철 기자

광주비엔날레는 부산비엔날레와는 달리 전용관이 있어 행사 진행이 한층 예뻐졌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시작과 함께 서울 연 5개 전시실로 구성된 3층 규모(면적 1만 5000여㎡)의 비엔날레 전용관이 주 전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다른 행사장인 시립미술관도 같은 층의 공간 내 위치해 있어 도보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떨어진 의대미술관과 대안시장에서 도연사가 멀리나 이 두 곳에서 비엔날레 전시의 70%가량을 소화하고 있어 관람이 용이한 것이다. 시립미술관에서도 1개 전시실만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전시실들은 기획전을 열고 있어 비엔날레 참가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은 전용관이 없다보니 개인 전시관으로 시립미술관 전체를 대관해 행사를 치르고 있다. 시립미술관 전시는 전체 본 행사의 30%가량에 불과해 전용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비엔날레에서 만난 대안구림미술대 추더이 교수는 "비엔날레를 위한 시립미술관 전용

Coverage Clipping

MEDIA	국민일보		
DATE	2008.09.09	SECTION	문화

미술의 도시 광주·부산 그곳에선 감동도 작품

국민일보 2008-09-09 17:47 기사입력



지난 5일 광주비엔날레관을 찾은 관객들이 박제된 동물들 크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놓린 남 아를 요하힘 손펠트의 작품 '포 유저스츠'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 6일 개막한 부산비엔날레 설치 작품 '유물'. 알안리혜수목장해 설치된 이 작품은 모래를 파고 그 안에 부산의 모양을 만들어 전시했다. 김이해 작.



미술의 바다로 풍덩! 누가 현대 미술을 어렵다 했던가,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현대 미술에 당당히 맞서리라는 비장한 각오가 아니어도 좋다. 그냥 가볍게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느끼고 싶다면 광주와 부산으로 떠나자. 마침 하늘도 높고 푸른 가을이다. 미술관에서만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바닷가를 거닐며, 지하철 역사에서도 관람은 이어진다. 관객을 찾아가는 공공미술의 중요함을 알아챈 광주와 부산이 푸짐한 상차령을 마치고 관람객을 기다린다.

◆ 비엔날레는 광주= 영화는 부산이지만 비엔날레는 광주다. 1996년에 시작돼 7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총감독을 맡았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학장인 오쿠이 연워제다. 광주비엔날레의 높아진 위상을

Coverage Clipping

보여주듯 올해는 프랑스 르몽드지 기자가 첫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 아사히 신문, 미국 아트 인 아메리카 등 30여개 외국 언론사가 취재를 왔다. 올해 비엔날레의 특징은 주제가 없다는 것. 엔위저 감독은 "현대예술은 다각적인 모습과 많은 아이디어가 모여 있어 하나의 주제로 묶기보다는 지난 1년간 해외에서 전시된 작품 중 화제작만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제목도 '연례보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요하힘 스펀트의 박제된 동물울 역 피라미드로 쌓은 작품이 눈에 띈다. 1400여개 작품 중 무얼 봐야 할지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가의 유명세를 기준으로 몇 작품을 골라보면 비엔날레관에 전시된 독일 작가 한스 한케의 '넙고 하얀 호랑',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국 작가 고든 마타 클락의 회고전이다. 한스 한케는 뉴욕 첼시의 '파올라 루퍼 갤러리'에서 살았던 개인전을 가져왔다. 클락은 '아나키택처'(건물 자르기)라는 독특한 방식의 작업으로 유명세를 타다가 단명한 작가로 그를 기려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개최했던 회고전을 옮겨왔다. 다만 휘트니미술관 전시 때와는 달리 작가의 주요 작업인 설치물은 거의 없고 드로잉, 사진, 영상 위주여서 아쉽다.

무등산 자락의 외재미술관에서는 브루스 코너의 사진과 풀라주, 바이링 킴의 추상화를 허백현의 풍양화와 함께 전시 중이다. 대인시장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 무려 15시간짜리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에도 도전해보자. 주 전시장에서 외재미술관과 대인시장, 광주극장으로 셔틀버스가 다닌다. 11월9일까지.

◆도전하는 부산! = 2000년에 시작돼 올해 5회째인 부산비엔날레는 명성으로 치자면 광주보다 한 수 아래이지만 볼거리는 꽤 많다. 일반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는 실험적인 작품은 오히려 부산이 더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두식 운영위원장은 '점점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아르테어외의 차별화를 위해 비엔날레는 실험성이 높은 작업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시 작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주제는 예술가의 창작욕구를 해소한다는 뜻을 담은 '남비'다. 주 전시관은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다. 다양한 작품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시관 1층 입구에 있는 일본 나시오 야스유키의 대형 조각 '광!세일러 마스'. 또 예수를 무릎 위에 놓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유리성유경화 플라스틱(FPP)과 칠 조각으로 표현한 이흥백의 조각 '피에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마련된 전준호의 설치작품 '우할 예수상' 등이다.

바다미술제가 펼쳐지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동 미월드 놀이공원에는 생기 넘치는 작품들이 있다. 미월드 놀이공원 내 음식점과 스포츠센터 등은 실험적인 작품들로 짝 채워졌다. 이중 작가가 모델이 되어 자신의 성형수술 과정을 작품으로 만든 프랑스 행위 예술가 오를랑의 영상작품과, 베이비 파우더를 캔버스에 상아도시 모습을 만든 태국 작가 니판 오라니웨스나의 설치물에는 임이 약 붙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속으로 사라져가는 나프탈렌으로 작업하는 미야나기 아이코의 조형물도 볼 수 있다.

부산비엔날레가 자랑하는 조각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작가 로버트 모리스의 40억 원짜리 작품이 선보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던 작가는 무상으로 작품을 기증해 화제가 됐다. 이외 데니스 오렐하임과 소리나는 에밀레종을 만든 한형석의 작품 '형연'이 눈길을 끈다. 11월15일까지.

광주·부산=글 한승주 기자, 사진 김지훈 기자 sjhan@kmib.co.kr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8.09.08	SECTION	생활/문화

추석연휴 나들이 유혹하는 미술전시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08 16:55 | 최종수정 2008-09-08 17:51



2008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주요작품 모습 (부산=연합뉴스) 2008 부산비엔날레의 주요작품으로 잊
 줄은 현대미술전에서 전시하는 일본 니시오 야스유키의 '황' 세일러 마스크, 윤영석의 '해부학의 건설', 중
 국 리우 웨이의 '녹색호텔', 가운데쪽은 바다미술제에서 선보이는 김미애의 '유물', 커리나 스미굴라 보빈
 스키의 '일출', 이진경의 '공공 프로젝트', 아랫쪽은 부산조각프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는 미국 로버트 모
 리스의 '조상', 데니스 오웬하임의 '반짝이는 초콜릿', **한림직의 '형면'**, 안재국의 '결계' << 전국부 기사
 합조 >> youngkyu@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가까운 미술관에 들러 예술의 정취를 느껴보면 어떨까. 연휴 기간 미술관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들을 소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사진 60년展' · '미술이 만난 바다展' =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련한 의미있는 전시 두 가지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국사진 60년전'(10월26일까지)은 건국 60주년에 맞춰 한국 사진 60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전으로, 사진 작가 106명의 작품 380여점을 시대별로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는 만 18-65세 성인만 3천원이고 나머지 연령층은 무료.

Coverage Clipping

'미술이 만난 바다'전(9월15일까지)은 오감을 활용해 보고, 듣고, 만지며 체험하는 어린이 특별전으로, 심해를 연상시키는 공간에 들어가 보거나 모래 위에 그림 그리기,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을 이용한 파도 만들기 등 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포함돼있다.

초등생과 청소년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함께 온 성인도 2명까지는 무료 혜택을 적용한다.

☎02-2188-6114.

◇덕수궁미술관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거장전' = 멕시코 벽화운동의 3대 거장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의 작품을 비롯해 리베라의 아내인 화가 프리다 칼로, 콜롬비아 출신의 '똥똥이 인물' 작가 페르난도 보테로 등 남미 16개국 대표작가 80명의 작품 12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11월9일까지. 입장료는 6천-1만원. ☎02-368-1114.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26개국, 79개팀이 제작한 영상, 인터랙티브, 설치 등 77점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5회째를 맞는 이번 비엔날레는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한다.

연휴 기간에는 미술관 앞 마당에서 페이스 페인팅, 캐릭터 그리기 등 행사도 진행된다.

11월5일까지. 무료. ☎02-2124-8942.

◇고양 아람미술 '풍경과 상상, 그 뜻밖의 만남'전 = 미술 작가 18명의 사진, 그림, 미디어 등 작품 50여점으로 꾸며지는 전시다.

작가 박형근 씨가 런던 근교의 공원과 숲에서 제작한 사진 시리즈인 '언타이틀드 & 텐스리스', 휴대용 가방에 풍경 사진과 잔디를 배치해 작품을 만든 이민호 씨의 '휴대용 풍경', 과일 등의 익숙한 사물을 도자기로 만든 김문경 씨의 '변형사과' 등이 전시된다.

15일에는 마임아티스트 고재경 씨의 퍼포먼스 공연도 열린다.

입장료는 성인과 학생이 3천원, 아동이 2천원이다. ☎1577-7766.

◇비엔날레 =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가 휴무 없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양대 비엔날레 전시도 둘러볼 수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경제		
DATE	2008.09.07	SECTION	문화

광주·부산은 지금 미술축제중

서울경제 기사입력 2008-09-07 17:21 기사원문



제3세계 작가 대거 초청... 미술단체 관공물가 사진전... 바다서 조각전시...

비엔날레 잇달아 막을려...실형적 작품 선보이기도

"일단 전시를 보고 생각하세요"

반도 남쪽의 동서(東西)가 비엔날레로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미술의 축제 '제7회 광주 비엔날레'가 5일 66일간 대강당의 막을 올렸다. 연이어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는 '제5회 부산 비엔날레'가 6일부터 시작돼 미술의 바다로 예술가들을 초대한다.



◇광주 비엔날레, '주제없음'의 주제찾기-외국인으로는 처음 전시총감독으로 선임된 오우이 엔위저씨는 예년과 달리 주제가 없이 '연례보고'라는 제목으로 관객이 전시를 보고 느끼는 것이 곧 주제"라며 지난 1년반 동안의 주요 전시를 재구성했다. 여상을 권 외국인 감독의 기용부터 '주제없음'의 특이성, 유명 거장보다는 제3세계의 작가들을 대거 초청한 점 등은 시민항쟁의 역사성을 가진 광주의 지역배경과 어우러져 소외에 대한 재조명과 낮은 목소리의 정치적 주장, 역발상의 기회를 던져준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렸다. 평론가 김홍기씨 등은 "광주 비엔날레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미술평론가 임근준씨 등은 "우리의 관상사에서 떨어진, 전시총감독의 취향에 치우친 전문가 위주의 전시라 실망"이라고 혹평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니퍼 알로라탐의 조형물 '양금, 감정-연상와 형태물'은 오페라 가수들이 높이 3m가 넘는 비정형 석고 조형물 속에 타일을 깔고 누워 실시간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한스 하케의 하얀 천 설치작 '널고 하얀 호롱', 이델 압테세메드가 열기에 자신의 몸을 대단 채 그린 '인간 공황을 위한 드로잉', 정치·사회성이 부각된 '물아갈 곳 없는 자들의 황학에 관하여'(큐레이터 김성연), 시내 대인시장에서 펼쳐지는 '복덕방 프로젝트'(큐레이터 박성현) 등이 눈길을 끈다. 36개국 127명의 작가가 참여해 115개 작품을 선보였으며 오는 11월 9일까지 광주전역에서 펼쳐진다. (062)608-4223-7

◇부산 비엔날레, 관객을 무르는 젊은 감성-이무식 운영위원장은 "비엔날레가 급성장하는 아트페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선택한 것은 실형성"이라며 "현대미술의 숙명적 난해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특별전도 기획했다"고 전시 기조를 밝혔다. 과도한 에너지의 분출을 뜻하는 '날비'가 경제 주제, 김원방 전시감독의 '현대미술전'에는 니시오 니시오 아스유키의 대형 조각 '황, 세월 리마스', 선정적인 포르노 이미지 때문에 미술단체 관공물가인 빨간색 별도 공간에 전시된 브루스 라브루스의 사진작품들, 수영요트경기장에 해수상을 세우다 수차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관공회의 '부활 해수상' 등 22개국 92개 작가가 실형성을 선보였다. 전승보 전시감독이 공안리해수욕장 뱃사장과 민력중 미술도 놀이공원 건물 내 1,200명을 채운 '바다미술제'는 더 파격적이다. 베이비 파우더로 만든 거대 지도, 나프탈렌으로 이뤄진 귀중한 물건들의 조각, 벽사장의 설치 작품 등은 시간이 지나 사라지는 것이 숙명이다. 77명의 작가가 설치·영상 등을 선보인다. '부산조각프로젝트'에는 40억원대 작품을 내 놓은 로버트 모리스, 2,000여 개 스피커로 만든 성덕대왕신종을 형상화 한 한형석 등 20명의 작가들이 전위적인 작품을 출품했고 전시 후 영구 기념기로 됐다. 11월15일까지 열린다. (061) 888-

-6591-9

Coverage Clipping

MEDIA	아시아투데이		
DATE	2008.09.07	SECTION	문화

2008 부산비엔날레에는 어떤 작품이?

40개국 190여명 참여... 11월15일까지

기사입력 [2008-09-07 10:21]

☞ 인쇄하기 | ☞ 가 | ☞ 가

트위터 페이스북



니시오 야스유키의 '광! 세일러 마스크'.

즐거움 부산은 '미술의 바다'로 변모한다.

6일 개막돼 11월15일까지 40개국, 19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2008 부산비엔날레가 열리는 것.

올해 주제는 '낭비'다. 문화예술의 역사는 예술가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작품들은 현대미술전과 바다 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로 나뉘어 전시된다.

◇현대미술전-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되며 부산비엔날레의 주 행사답게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했다.

Coverage Clipping

일본작가 니시오 아스유키는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여성 히로인 세일러 마스의 죽음을 표현한 조각 작품 '황! 세일러 마스'를 전시한다.

네덜란드의 예력 반 리사우트는 영상설치작품 '록(Rock)'을 통해 자본 앞에 선 예술가의 반응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우리나라 작가 윤영석은 보다빌더의 몸을 고층건물 경쟁에 비유한 사진 작품 '해부학의 건설'을 선보인다.

또 중국작가 리우 웨이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통 등으로 호텔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 뒤 싸구려 녹색 페인트를 칠한 작품 '녹색호텔'을 전시한다.

자본주의의 피겨기를 표현하기 위해 로봇 카메라로 영국의 하수구를 촬영한 영상작품인 이스라엘 카렌 투소의 '과잉의 경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바다미술제=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상가 및 도로, 미월드 놀이공원, 지하철 금련산역에서 펼쳐지는 설치미술의 향연이다.

우리나라 작가 김종구의 청동 인체상인 '그 사람'은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벽사장에 난 작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의 '임홀'도 놓쳐서는 안될 작품이다.

삭막한 수영구문화센터 건물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킨 이진경 작가의 '공공 프로젝트'와 거대한 나무들 안에 베 이비파우더를 이용해 부산의 지도를 만든 태국 니판 오라니웁스나의 작품 '유형의 도시'도 볼만하다.

◇부산조각프로젝트=APEC나무공원에 15개국, 20점의 조각 작품이 영구 설치된다.

현대미술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로버트 모리스가 우리나라 서예가 박후상이 쓴 '조상'이라는 글귀를 마치 돌담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모리스가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돌담이었다는 것도 참고할만한 뒷얘기.

또 현대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의 데니스 오펜하임은 '반짝이는 초콜릿'이라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데 관람객들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 감상할 수 있다.

버려진 스피커 2000여개로 성덕대왕신종을 형상화한 우리나라 조각가 한원석의 '형연'과 부산 출신의 조각가 안재국의 작품 '열제'도 거대한 설치물로 관람객들을 압도할 전망이다.



한원석의 '형연'

Coverage Clipping

MEDIA	조선일보		
DATE	2008.09.06	SECTION	아트

아트 '젊은 감성 눈길' 부산 비엔날레
핫! 랭킹!

Url 복사하기
스크랩하기
블로그담기
+ 메신저서비스

2008 부산 비엔날레가 6월 71일간의 대장전에 돌입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는 젊고 현대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특히 많이 눈에 띈다.

이두식 운영위원장은 "점점 경계가 흐릿해지는 아트페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비엔날레는 실험성이 높은 작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로 전시 작품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실험성을 은유하듯이 예술가의 창작욕구를 해소한다는 뜻을 담은 '남비'를 주제로 해서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의 3가지 구성으로 진행된다.

이 중 현대미술전은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메인공간인 시립미술관 1층에 들어서면 일본 니시오 야스유키(39)의 대형 조각인 '황', 세일러 마스가 관객들을 맞는다.

2층에는 예수를 무릎 위에 놓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과 철 조각으로 표현한 이용백(42)의 조각 '피에타',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야한 이미지 때문에 별도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공간에 전시된 브루스 라브루스(44, 캐나다)의 사진, 카토고(44, 일본)의 대리석 조각, 몽상적인 내용을 담은 미야오 사오촌(44, 중국)의 애니메이션 등이 전시된다.

3층에서는 붉은 카펫을 깔고 영상을 보여주는 수드 비어(35, 미국)의 영상 설치작, 매일 나무 조각과 목탄 그림 작업을 한다는 카민 룻차이프라슨(44, 태국)의 조각 366개와 목탄 그림 366개, 레이저 쇼를 연상시키는 시미즈 지오(42, 일본)의 '클라이젠 플라스크'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여성의 가슴을 연상시키는 피나리 산피탁(47, 태국)의 설치작과 벽면에 그려진 허구영(42)의 그림 '이중그림자', 스몰스컬 움직이는 숨을 바닥에 설치한 홍명섭(60)의 설치 및 렌티큘라 작품도 전시가 이뤄진다.

수영요트경기장에서는 전준호(39)의 설치 작품인 '부활 예수상'과 거대 영화사와 초국적 기업을 비꼰 김기라(34)의 영상과 설치물을 만나게 된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과 만락동 미술드 놀이공원 내 건물의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등 빈 공간을 활용해 연 '바다미술제'는 더 실험적인 작품들로 채웠다.

우선 실내 전시작으로는 자가 성형수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은 프랑스 행위 예술가 오를랑(61, 프랑스)의 영상과 사진, 베이비 파우더로 도시 모습을 만든 니판 오라니웬스나(46, 태국)의 설치물,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는 나프탈렌으로 작업하는 미야나기 아이코(31)의 조형물 등을 볼 수 있다.

아웃인 해수욕장에는 생화와 조화를 섞어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화는 썩고 조화만 남도록 한 유승재(38)의 설치물,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바다 가운데 바위 위에 설치한 김종구(45)의 인체 조각, 백사장 모래를 파고 그 안에 부산 모습을 재현한 김미애(45)의 '유물' 등이 놓여있다.

부산조각프로젝트는 APECL타워공원에서 펼쳐지는데, 로버트 모리스(77, 미국), 데니스 오펜하임(70, 미국), 한원석(37) 등 20점의 조각 작품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인 지하철역과 부산시청 등지에서도 전시가 진행된다.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8.09.06	SECTION	문화

부산 비엔날레, 한원석의 조형물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06 17:12



(부산=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6일 개막된 2008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돼 APEC 나루공원에 설치된 한원석의 조형물. << 문화부 기사 참조 >>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8.09.06	SECTION	문화

'젊은 감성 눈길' 부산 비엔날레

연합뉴스 7/21(목) 2008-09-05 13:46



(부산=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2008 부산 비엔날레가 6일 71일간의 여정장에 돌입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는 광고 현대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특히 많이 눈에 띈다.

이두식 운영위원장은 "음성 관계가 흐릿해지는 인터페이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비엔날레는 실험성이 높은 작품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로 전시 작품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올해 부산 비엔날레는 실험성을 은유하듯이 예술가의 창작특구를 축소한다는 뜻을 담은 '남바'를 주제로 해서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의 3가지 구성으로 진행된다.

이 중 현대미술전은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인공간인 시립미술관 1층에 들어서면 일본 나시오 아스유키(39)의 대형 조각인 '풍', 세일러 마스'가 관객들을 맞는다.

2층에는 여수를 무릎 위에 놓고 울먹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과 철 조각으로 표현한 이종백(42)의 조각 '피에타', 포로노를 연상시키는 아한 이미지 때문에 별도의 대상년자 관람불가 공간에 전시된 브루스 리브루스(44, 캐나다)의 사진, 카도고(44, 일본)의 대리석 조각, 풍성적인 내용을 담은 데아오 시오온(44, 중국)의 애니메이션 등이 전시된다.



Coverage Clipping

3층에서는 붉은 카펫을 깔고 영상을 보여주는 수드 비어(35.미국)의 영상 설치작, 대일 나무 조각과 목판 그림 작업을 한다는 커먼 토티아프라슨(44.태국)의 조각 366개와 목판 366개, 레이저 쇼를 영상시키는 시미즈 지오(42.일본)의 '플라이엔 플라스크'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여성의 가슴을 영상시키는 피나리 산피택(47.태국)의 설치작과 벽면에 그려진 허구영(42)의 그림 '이중 그림자', 스칼스웰 통치이는 송을 바닥에 설치한 홍명섭(60)의 설치 및 멀티플라 작품도 전시가 이뤄진다.

수영요트경기장에서는 현준호(39)의 설치 작품인 '푸할 예술상'과 거대 평화사와 조국익 기업을 비친 김기라(34)의 영상과 설치물을 만나게 된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과 민락동 미술드 놀이공원 내 건물의 예식장과 스포츠센터 등 빈 공간을 활용해 연 '바다미술제'는 더 실험적인 작품들로 채웠다.



부산 시내 전시작으로는 지가 성형수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은 프랑스 행위 예술가 오를랑(61.프랑스)의 영상과 사진, 베이비 파우더로 도시 모습을 만든 니판 오라니웨스나(46.태국)의 설치물,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속으로 증발하는 나프탈렌으로 작업하는 미야나기 아이코(31)의 조형물 등을 볼 수 있다.

이외인 해수욕장에는 성화와 조화를 섞어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화는 썩고 조화만 남도록 한 유승재(38)의 설치물, 광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바다 가운데 바위에 설치한 김홍구(45)의 인체 조각, 백사장 모래를 밟고 그 안에 부산 모습을 재현한 김미애(45)의 '유물' 등이 놓여있다.

부산조각프로젝트는 APEC나루공원에서 펼쳐지는데, 로버트 모리스(77.미국), 데니스 오펜하이임(70.미국), 한워석(37) 등 20점의 조각 작품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인 지하철역과 부산시장 풍차에서도 전시가 진행된다.

(사진설명 = 부산시립미술관 1층에 놓인 니시오 아스슈카(39)의 대형 조각 '불, 세월의 마스', 수영요트경기장 계곡실에 전시중인 김기라의 영상 상영공간권 설치물,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김미애의 '유물', APEC나루공원에 설치된 한워석의 조형물)

evan@yna.co.kr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8.09.03	SECTION	문화

미리 가 본 2008 부산비엔날레 주요 작품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03 13:05 | 최종수정 2008-09-03 13:43



2008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주요작을 모음 <부산=연합뉴스> 2008 부산비엔날레의 주요작품으로 일출은 현대미술전에서 전시하는 일본 니시오 마스유키의 '황' 세일러 마스', 윤영석의 '해부학의 건설', 중국 리우 웨이의 '녹색호열', 가운데들은 바다미술제에서 선보여는 갈미애의 '유물', 케리니 스미글과 보반 스키의 '일출', 이진경의 '공공 프로젝트', 마영철은 부산조각프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는 미국 로버트 모리스의 '조각', 데니스 오렌하임의 '반짝이는 소용돌이', 한영석의 '황면', 한재국의 '절제' << 전국무 기자 집조 >> youngkyu@yna.co.kr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6일 개막돼 장장 71일간 '바다의 도시' 부산을 '미술의 바다'로 안내할 2008 부산비엔날레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될까.

올해의 주제는 '낭비', 문화예술의 역사는 예술가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만들어 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40개국, 190여명의 작가가 출품한 작품들이 현대미술전과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로 나뉘어 전시된다.

2008 부산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주요 작품과 이색작품을 분야별로 미리 살펴본다.

◇ 현대미술전 =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되며 부산비엔날레의 주 행사답게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했다.

일본 니시오 마스유키는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여성 히로인 '세일러 마스'의 죽음을 표현한 조각 작품 '황' 세일러 마스'를 전시한다.

네덜란드의 예력 반 리사우르의 영상설치 작품인 '록(Rock)'은 자본 앞에 선 예술가의 반응을 섬세하게 묘사했고, 우리나라 작가 윤영석은 바다벌더의 몸을 고층건물 경쟁에 비유한 사진 작품 '해부학의 건설'을 선보인다.

또 중국 리우 웨이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쓰레기통 등으로 호텔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 뒤 싸구려 녹색 페인트를 칠한 작품 '녹색호열'을 전시한다.

자연주의의 찌꺼기를 표현하기 위해 로봇 카메라로 영국의 하수구를 촬영한 영상 작품인 이스라엘 카렌 루소의 '과잉의 경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 바다미술제 =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상가 및 도로, 미월드 놀이공원, 지하철교협산역에서 펼쳐지는 설치미술의 향연으로 부산비엔날레의 독특한 면이다.



2008 부산비엔날레 공식 포스터 <부산·연암뉴스> '나비'를 주제로 오는 9월 6일부터 7일간 부산시립미술관과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2008 부산비엔날레의 공식 포스터.<< 전국부 기사 협조 >>
> youngkyu@yna.co.kr

우리나라 작가 김홍구의 청동 인체상인 '그 사람'은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백사장에서 모래를 파낸 뒤 끝판지 등으로 부산의 도시를 표현한 김미애의 '유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백사장에 난 작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의 '원홀'도 놓쳐서는 안될 작품이다.

식막한 수영구문화센터 건물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킨 이진경 작가의 '공공 프로젝트'와 거대한 나무틀안에 베이비 파우더를 이용해 부산의 지도를 만든 태국 니판 오라니웨스나의 작품 '유령의 도시'도 지나치면 후회할 작품으로 꼽힌다.

◇부산조각프로젝트 = APEC나루공원에 15개국, 20점의 조각 작품이 영구 설치된다.

현대미술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로버트 모리스가 우리나라 서예가 박후상이 쓴 '조상'이라는 글귀를 마치 돌덩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전에 참가했던 모리스가 우리나라 양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깊게 봤던 것이 돌덩이었다는 것도 참고할만한 뒷얘기다.

또 현대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의 데니스 오펜하임은 '반짝이는 초콜렛'이라는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데 관람객들은 작품의 안으로 들어가 감상할 수도 있다.

버려진 스피커 2천여개로 성덕대항신종을 형상화한 우리나라 조각가 한원석의 '형연'과 부산출신의 조각가 안재국의 작품 '절제'도 거대한 설치물로 관람객들을 압도할 전망이다.

youngkyu@yna.co.kr

Coverage Clipping

MEDIA	부산일보		
DATE	2008.09.03	SECTION	문화

[2008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에게 듣는다] ③ 부산조각프로젝트 이정형 감독

부산일보 기사입력 2008-09-03 12:00 | 기사원문



해운대 나루공원을 세계적 조각 정원으로

"공원은 말 그대로 공공의 장소지요. 누구나 거닐면서 즐기는 공간이지만, 그런 반면에 그 누구도 적극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 없는 공간',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정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아끼고 거꾸고 느껴면서 혼자만의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지요. 나루공원을 그렇게 정원 같은, 보다 혁신적인 개념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입니다. 세계적인 조각 작품으로 말입니다."

2008 부산비엔날레 부산조각프로젝트의 주제는 '전위정원'(Avant Garden), 이정형(51·사진) 전시감독의 풀이는 그러했다. 간단히 말해, 도심의 공공 공원에 사적인 개념인 정원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조각프로젝트는 현대미술관, 바다미술제와 함께 올해 부산비엔날레의 주축을 이루는 행사, 부산 해운대 선암시대에 인접한 에이펙(APEC) 나루공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새로 전시되는 작품은 모두 20점,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설치했던 것이 20점 있으니까, 모두 40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감독이 내세우는 이번 부산조각프로젝트의 대표 작가는 로버트 모리스(77)와 데니스 오펜하임(70)이다. 두 사람 다 미국 출신으로 세계 미술관에서 워낙 위명이 정당한 인물들이다. 모리스는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인 미니멀리즘을 이론과 작품으로 정립한 인물이며, 오펜하임은 개념미술, 대지미술, 행위예술, 사진 등의 분야에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작품 하나가 수십억 원씩 하는 작가들을 살비만 제공하면서 초청하려다 보니 엄청 힘들었어요. 아는 연줄이란 연줄은 다 동원하고, 술쯤 곁경 순간까지 피 말리는 말고당기기를 계속했습니다. 끈기있게 대화로 설득한 게 주효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한국과 인연이 있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모리스는 1952년에 한국전쟁에 참여, 부산 수영비행장에서 현병으로 근무했고, 오펜하임은 1968년 서울올림픽공원에 조각을 설치한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감독은 이들 대가의 작품을 한瞥석이나 안재국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비교 감상해보면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미술이 어떤 형태로 조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빠듯한 예산으로 일을 치르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교유가, 고향을 때문에 작품 재료비도 60%나 올라 어려움이 더했어요. 때문에 오펜하임의 작품은 3점 연작으로 시도했지만, 1점 설치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비엔날레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조각프로젝트의 결과는 부산의 자랑스런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모리스의 경우 이런 공식적인 미술제에서의 설치작업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들의 작품이 지역 미술에 자극과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

Coverage Clipping

MEDIA	한겨레		
DATE	2008.09.02	SECTION	문화

'낭비는 나의 힘' 과잉사회 형상화

한겨레 기사입력 2008-09-02 19:46 | 기사원문



[한겨레] 부산비엔날레 6월 개막

소모·배출의 문제 고민…바다미술제 모래작품도 전시

비엔날레로 '문화의 가을'을 맞는 곳은 광주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낭비'를 주제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 26개국 9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영상, 설치작품뿐 아니라 평면작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BUSAN BIENNALE 2008
2008부산비엔날레

시립미술관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니시오 야스유키(일본)의 조각작품 <광시 세일러 마스크>(사진), 만화영화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주인공 세일러 마스가 모델, 에릭 빈 리사우트(네덜란드)의 영상설치작품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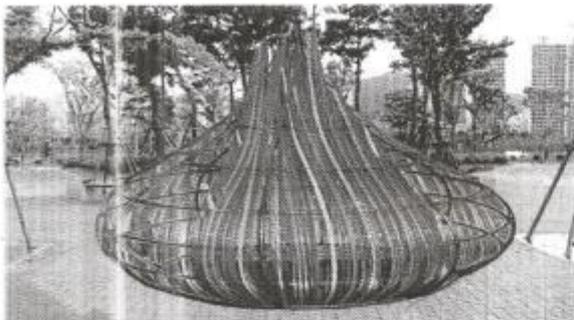
은 돈 앞에서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행태를, 윤영석(한국)은 보디빌더의 과잉된

욕망 등을 드러낸다. 요트경기장 계측실에서는 류웨이(중국)와 카렌 루소(이스라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류의 <녹색호텔>은 박스-쓰레기통으로 만든 호텔로 싸구려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카렌은 비계 낀 내장 같은 영국의 하수구를 짝어 보여준다.

이와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바다미술제가 열린다. 26개국 77명(팀)이 출품, 해변에서는 김미애와 스미라 보빈스키의 모래작품이 선보이고 해변 곳곳의 컨테이너, 금련산 지하철역사, 수영구 문화센터, 놀이공원인 미월드 등에도 작품이 전시된다. 니판 오라니웨스나(타이)가 아기 띠피약으로 그린 부산 지도가 불
거리, 아백 나무공원에는 20점의 새로운 조각이 들어섰다. 마니발리즘의 대가 로버트 모리스, 대지예술가 데니스 오펜하임의 작품과 버린 스피커 2천개에 중박 파도소리를 담은 한원석의 작품이 시선을 잡는다.

MEDIA	부산일보		
DATE	2008.08.28	SECTION	문화

‘예술적 낭비’는 모두를 생존하게 만드는 힘



데니스 오펜하임 '백작 키는 초콜릿'



윤영석 RAINBOW-해부학의 건설'

9월, 가을을 맞아 부산을 미술의 바다에 흠뻑 적게 준다. 30여 부산비엔날레가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려 7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산비엔날레는 기호 때마다 특정 주제를 놓고 진행되는데, 5회째를 맞은 올해는 '낭비'를 주제로 삼았다. 영문으로는 '익스펜디처'(Expenditure)'로, 불어 표현은 '데핀스'(Dépense)다. 올해 부산비엔날레 행사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게 될 개념인 '낭비'는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타야의 이론에서 차용한 의미라는 게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장의 설명이다.

바타야는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생산되고 축적된 여너지를 주기적으로 방출해 인간 유기체,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완전한 생존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 '데핀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부산비엔날레는 이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즉 '무질서한 과소비'가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예술적 열정을 표현함으로써 가우어는 심리적 여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순화되고 순화된 정신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낭비'를 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 낭비의 개념은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 등 3개 전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3개 축을 각각 40개국에서 190여 명.

이 중 현대미술전은 부산시립미술관 정관과 수영요트경기장 체육실 3개 동을 전시장으로 활용한다. 현대미술전의 전시 세부 주제는 '낭비-이미 항상 지나치기 때문에'(EXPERIMENTAL-as it is always and already excessive,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질서와 권력의 과용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이 넘쳐흐르는 에너지는 그런 과용의 질서와 권력을 외화시키는 하기 마련이며 미술도, 그처럼 '항상 지나침'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주 전시장 역할을 하는 부산시립미술관은 총 7차 열, 수영요트경기장 체육실은 18명의 작가 작품이 선보이게 된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올해 현대미술전은 예년에 비해 영상, 비디오, 설치 작품이 줄어들었고, 현대적 조각의 회화, 조각 등의 전통적

각고의 노력 담긴 열정... 심리적 안정 '승화' 현대미술전 등 3개 전시 40개국 190여명 참가 다음달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71일간 대장정



니시오 야스유키 'Crash! Svelte Mass'

장르를 많이 선보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조각가 니시오 야스유키, 벨기에의 영상 설치작가 에리크 리사우트를 비롯해 미국의 허난 바스, 중국의 리우 웨이, 한국의 윤영석, 특히 부산의 정준호 등은 이번 현대미술전에서 각별히 기대되는 작가들이다.

그에 비해 바다미술제는 살인성과 피격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스펙터클한 양상을 띠 전망이다. 바다미술제 전시 주제는 '비시간성의 항해'(Voyage Without Boundaries), 특정 불가능한 인식의 괴상 영역을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미학이미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다.

총 77명이 출품하는 바다미술제는 우선 공간의 해수욕장 배사정을 기본으로, 민락동 미월드 놀이공원과 부산지하철 금관산역사, 심지어 공간이해수욕장 인근 상가, 컨테이너까지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크게는 광안리해수욕장 배사장과 그 주변은 주로 조각이나 설치작품, 미월드 내부 공간에는 회화 등을 포함하는 영상작품, 그리고 방파제 등 바닷가 곳곳에는 컨테이너 전시장을 설치해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구별해 활용될 예정이다.

조각가 김중규를 비롯해 부산 작가인 김재태, 태극의 나만 오라(레스소)와 아르 풍스푸도, 미국의 테사 하버드, 스위스의 알렉산더 비를라가 이번 바다미

술에서 주목해야 할 작가군이다.

부산조각프로젝트는 미국의 세례적인 조각가 로버트 모리스와 데니스 오펜하임의 명성안으로도 올해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전시 주제는 '정원 정원'(Avent Garden), 서로 온 도시공간으로 진입하여 공공미술, 공공조각의 외연을 확장하고, 시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예술로서 전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는 의미다. 에이라(APBC) 나무공원을 중심으로 수영강변과 선형시티를 연계하는 일련의 공간에서 작품이 펼쳐진다. 출품작은 총 30점

올해 77세인 로버트 모리스는 현대 미술의 미니멀리즘을 이끈 대표작가로, 이번 부산조각프로젝트에는 부산의 사계 박후성 씨의 작품 '조상(Ancistor)'의 서체를 입체적으로 전환하여 돌담을 쌓는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가인 데니스 오펜하임은 1968년 서울 올림픽 공원에 조각을 설치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올해 79세인 그는 'Electric Kissa'(인력차)는 초콜릿이라는 작품을 나무공원 중앙 출입구에 설치한다.

국내 작가로는 한용운, 부산의 인제국 등이 작품을 선보이는데, 부산조각프로젝트의 첫 출품작품이 나무공원에 영구히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 부산비엔날레가 이전과 다른 점은 부산 지역 화랑들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갤러리 투스타일'이다. 부산비엔날레 기간을 부산의 전미술인들이 함께 하여 미술축제로 만드는 행사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모두 20개 화랑이 자체 기획으로 특별 전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비엔날레 관계자는 "미술은 특정 계층만이 독점하는 아려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올해 주제의 낭비는 그런 점에서 긴장의 핵심, 원동, 휴식의 의미도 지닌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즐겨온 전시가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iennale.org) 참고, 051-888-6691.

윤영명 기자 ymy@bunibo.com

MEDIA	Art Charity China		
DATE	2008.08.28	SECTION	Special Topic

当前位置: 首页 >> 艺术展览 >> 展览

“遗弃后的再生” Something, that dying'

2008-08-28 10:57 来源: 艺视网专稿

“遗弃后的再生” Something, that dying'

展音响1088个, 塑造中国急速发展的另一侧身观点。

本次展览以环境为主题, 传达非一种对中国急速经济过程中, 存在的严重环境污染的预警信息。人类强迫性的资本主义和日益过剩的物质文明当中, 被人们忽略的价值重新开始威胁着人类。作者收集被丢弃的废弃音响, 把它变成所有人都能够共享的艺术作品, 以期提供新的沟通。

韩国舞(88)是现代艺术当中受人类注目的作者。他不但从事作者工作, 而且作为建筑设计师发挥着其特长。他重视观众对自己作品的立场和经验及观众们所有的独特见解。概念美不成行过程中, 对大众艺术品的意识性解体和变形作业, 是对赋予事物的社会性普遍意义的解体和再结合过程, 可以连续地断绝或重新创造过去和现在。

回收造型物是用报废消费社会的垃圾作为作品的素材。通过重新组合的创作过程, 可以超越时代状况, 随时重新定义的开放的概念。作者可通过独有的洞察力, 对进行人类和自然的叫唤性沟通, 现在和过去的时间性沟通。与一种环境艺术相融合的这次创作过程中, 声纹不仅是实际性的对象, 更提供了可以重新审视其新形态和意义的可行性。也扩展了视觉、听觉性语言的新而条件。

以此, 展音响可再生为造型物, 脱离了普通所赋予的日常功能性存在定位的局限, 获得了自身具有意义的审美性, 艺术性存在价值。

回收的1088个展音响, 如果再现了圣诞老人装饰大小(宽2.3m 高3.7m)。为了能够在重新构成过程中增加耐久性, 使用了设置软件知结构物或装饰音响的方法。这些作品的构思从单纯的造型物, 延伸到了建筑学领域。而且可以知道, 在1330厘米边长和各个音响在线连接过程, 也引入了声音、电气学的因素。是已超出单纯造型物制作的界限, 实现了一种互相接近的学科之间研究方式的作品。以此再生的每个音响声音都有特定的暗示, 这也反映了具有知实所变功能的圣诞老人装饰物存在意义。

虽然造型物是在失去固有功能而选择的价值上, 重新赋予了再生的机会, 同时, 提供在现代人日常生活中, 有曾经会认价值的珍贵性认知刺激。

This exhibition delivers a kind of warning message against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existed in the other side of Chinese rapid development. Abandoned values in user-flowing material civilization and extreme consuming culture return as a threatening fact to the human beings. The artist tries to communicate through his art: work what we all can share by collecting discarded rubbishes.



相关文章

- 首届基金会2007年中国当代艺术展
- 谈文化21个语言
- 西方现代主义艺术之表面
- 一张海报
- 中国艺术的地位在中国本土
- 汉学王国的艺术
- 心灵之痛: 韩国现代行为艺术及其
- 一个划时代的作品——美国第六届国际展
- 当代艺术作品的哲学沉思
- 十分钟的体验
- “后画”之后, 当代艺术期待



Han Won-Suk (38) is the prominent artist in contemporary art. He has been active as an artist also an architect as well. He thinks it is important that the meaning of self-questioning when they chance art work. Also he says it is meaningful an experience of spectators and theirs views about the work. As he is doing conceptual art, transformation & semantic disorganization of ready-made object is the processing of disorganization & recombination of generalized social meaning which connects, sometimes cut, or newly create between past and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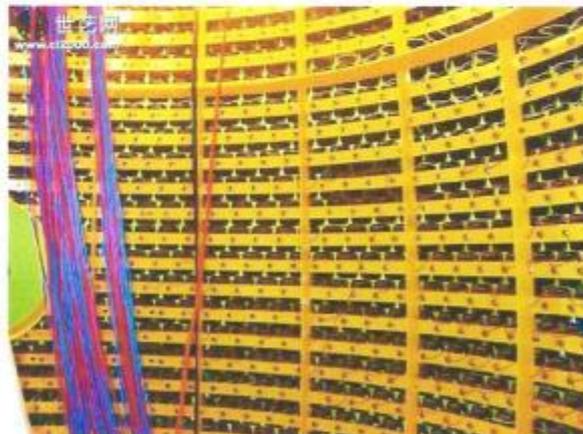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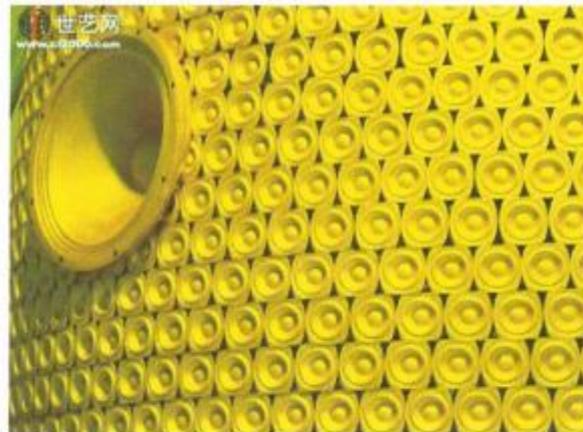
Coverage Clipping

The installation Hyeong Yeon "洞然" borrows wastes produced by excessive culture of consuming society. He shows the work by re-constructing these materials. Rubbishes always can be interpreted as a wide-open concept based on the situation of each era. These rubbishes pass through the artists' creative thought then becomes a media for communication between human & nature, past & present. It can be said that it is kind of environmental art or rubbish art. But it is not only that rubbishes are just realistic object but also that it presents the possibility as a new form what has meanings. It also can extend the new way of visual and auditory language.

Discarded speakers can be recycled as a formative art. Rubbishes can escape from daily functioning object through this processing. It actually can obtain the aesthetic value taking care of producing meaning.

Collected 3088 speakers have been reconstructed as it was in the history - the great King of Sung Duk's Bell, (height 3.7m, Width 2.3m) Constructing steel structures for durability in the process extend its arena from formative art to architectural engineering. Beside, scientific studies such as LED lights, wiring connections have been added as another important fact to the work. This is interdisciplinary studying over the simple formative-working process which have come true. As each speaker sounds, it gives a hint for a big resonance. It can meet the original meaning of Sung Duk's bell had an auditory function.

Hyeong Yeon "洞然" gives a shape to the abject value that have been lost its original function. Also it makes a chance to awake people in modern society about our precious sharing values around our life.



Opening _ 2008. 8. 16 (sat) PM 19:00

Exhibition period _ 2008. 8. 15 (fri) ~ 2008. 9. 15 (mon)

Contacts: space noon

Coverage Clipping

MEDIA	艺术国际		
DATE	2008.08	SECTION	正文

艺术国际 > 展览 > 正文

“钟”韩沅锡个展



点击查看 共1张图片

展览城市：北京
策展人：董琦
展览时间：2008-08-15-2008-09-15
展览地点：SPACE NOON 画廊
主办单位：
协办单位：
备注：

本次展览以环境为主题，传达着一种对中国急速经济发展过程中，存在的严重环境污染的预警信息。人类极端盲目性消费主义和日益泛滥的物质文明当中，被人们忽略的价值重新开始威胁着人类。作者收集被遗弃的废音响，把它变成所有人都能够共享的艺术作品，试图提供新的“疏通”。

韩沅锡(38)是现代美术当中受人关注的作者。他不但从事作者工作，而且作为建筑设计师发挥着其特长。他很重视对自己作品的立场和经验及观众们持有的独特见解。概念美术进行过程中，对天然艺术品的意识性解体和变形作业，是对赋予事物的社会性普遍意义的解体和再结合过程，可以连接或断绝或重新创造过去和现在。

“偶然造型物是用极端消费社会的垃圾作为作品的素材，通过重新组合的创作过程。垃圾是可以根据时代状况，随时重新定义的开放的概念。作者可通过独有的洞察力，对其进行人类和自然的环境性疏通。现在和过去的时间性疏通。与一种环境艺术相结合的这次创作过程中，垃圾不仅是实际性的对象，更提供了可以重新审视其新的形态和意义的可行性，也扩张了视觉、听觉性语言的新的语言。

以此，废音响可再生为造型物，脱离了外部所赋予的日常功能性存在定位的局限，获得了自身具有意义的审美性、美学性存在价值。

回收的3088个废音响，如实再现了圣德大王新钟大小(宽2.3m 高3.7m)。为了能够在重新构成过程中增加耐久性，使用了设置铁骨架结构或堆积音响的方法。这使作品的构思从单纯的造型物，延伸到了建筑学领域。而且可以知道，在LED照明设置和各个音响布线连接过程，也引入了声音、电气学的因素。这已超出单纯造型物创作的界限，实现了一种使相互接近的学科之间研究方式的作品。以此再生的每个音响声音都有特定的暗示。这也反映了具有如实际听觉功能的圣德大王新钟的存在意义。

偶然造型物是在失去固有功能而被遗弃的价值上，重新赋予了再生的机会。同时，提供在现代日常生活中，对曾经公认价值的珍贵性认知的契机。

声明：以上内容只代表作者个人的观点，并不代表“艺术国际”网站的立场和判断。

【责任编辑】 艺术国际

MEDIA	동아일보		
DATE	2008.08.16	SECTION	국제

동아일보 제27078호 45

베이징올림픽

“두두두~둥” 고구려 天舞어

(천무)

고구려인의 기백을 형상화한 북춤이 1500여 년 만에 되살아나 중국의 심장부 쓰진청(紫禁城)을 뒤흔들었다.

15일 오후 7시 반 중국 베이징 쓰진청 내 종산극장. 적막 속에서 '둥'하는 대북소리가 극장을 울렸다. 순식간에 정막 뒤에서 오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35명이 각기 다른 북을 들고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왔다.

각양각색의 북에서 나는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순식간에 풍야를 달리는 수천 마리의 말발굽 소리로 들려왔다. 이때 대북 사이로 분홍치마를 입은 여자무용수 10여 명이 장구춤을 추며 무대를 수놓았다. 북소리의 강인함과 장구춤의 부드러운 어우러진 모습에 14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100분 내내 계속된 북춤의 향연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연호했다.

중국인 왕린팅(51·여) 씨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한국인들

의 남성적인 기세가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얼빈공업대 홍병용(조선족) 교수는 “광복절에 민족적 색깔을 물씬 풍기는 공연을 쓰진청에서 보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국수호무용단 '10대 문화행사' 공식 초청돼 올림픽기간 中심장부서 유일한 외국 공연 100분 춤의 향연에 극장 메운 관객들 환호

이 북춤은 '천무(天舞)'로 “인간의 대박소리를 닮은 북소리로 하늘을 연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표 창작 무용단인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비천무', '가악천무', '요령고무', '조의선인의 춤'

은 고구려인의 혼을 계승한 결정체다. 국수호 무용단 총감독은 20년간 500여 개의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춤사위를 연구해 왔다.

'천무'는 베이징 올림픽의 10대 문화행사 중 하나로 올림픽조직위원회

레라스 등 세계 3대 태너가 나란히 섰던 무대에도 유명하다.

국 감독은 “중국인의 자존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쓰진청에서 한국인의 혼을 담은 몸짓과 소리를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의 현대예술 중심지인 '798 다산즈' 예술지구에서도 16일부터 한국문화축제한대당이 열린다. 중국인들과 올림픽을 맞아 베이징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스피커 3088개를 이용해 산라 성막대왕신춤(국보 29호)을 본떠 만든 '형연'을 선보인다. 설치미술작가 한원석 씨의 작품. 2006년 정겨운 복원 1주년을 기념해 폐(廢)드라이프트로 침상대를 만들어 정겨운 광복교에 전시한 바 있다.

베이징=신광명 기자 noo@donga.com



1500년만에 되살아난 '북춤' 국수호 무용단이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15일 쓰진청 종산극장에서 북춤공연인 '천무'를 선보였다. 이 행사 첫 순서인 '북의 대합주'에서 여성단원들이 장구춤을 추며 무대를 누비고 있다. 베이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08.08.16	SECTION	국제

“두두두~둥” 고구려 天舞에 쯤진청이 숨죽였다

동아일보 7시(일국) 2008-08-16 03:38 | 최종수정 2008-08-16 04:30 | 기사입력



[동아일보]

고구려인의 기백을 형상화한 북춤이 1500여 년 만에 되살아나 중국의 심장주 쯤진청(紫禁城)을 열쳐 울렸다.

15일 오후 7시 반 중국 베이징 쯤진청 내 중산극장. 적막 속에서 ‘둥’ 하는 대북소리가 극장을 울렸다. 순식간에 장막 위에서 오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35명이 각각 다른 북을 들고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왔다.

각양각색의 북에서 나는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순식간에 풍아를 달리는 수천 마리의 말발굽 소리로 들려왔다. 이때 대북 사이로 분홍치마를 입은 여저무용수 10여 명이 장구춤을 추며 무대를 수놓았다. 북소리의 강인함과 장구춤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모습에 1400석의 가득 메운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100분 내내 계속된 북춤의 향연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연호했다.

중국인 평민탕(51·여) 씨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한국인들의 남성적인 기세가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얼빈공예대 홍영홍(조선족) 교수는 “광복절에 민족적 색깔을 뽐낸 풍기는 공연을 쯤진청에서 보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 북춤은 ‘천무(天舞)’로 “인간의 맥박소리를 담은 북소리로 하늘을 연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표 창작무용단인 국수호 디딤무용단이 경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비천무’, ‘기약천무’, ‘요령고무’, ‘조희선인의 춤’은 고구려인의 혼을 계승한 결정체다. 국수호 무용단 총감독은 20년간 500여 개의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춤사위를 연구해 왔다.

‘천무’는 베이징 올림픽의 10대 문화행사 중 하나로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유일한 한국 공연이자 올림픽 기간에 쯤진청에서 열린 유일한 외국공연이기도 하다.

중산극장은 명(明) 청(淸) 시대 중국 황제의 연회장으로 푸치야노 피아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세계 3대 테너가 나란히 섰던 무대로도 유명하다.

국 감독은 “중국인의 자존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쯤진청에서 한국인의 혼을 담은 몸짓과 소리를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의 현대예술 중심지인 ‘798 다산즈’ 예술복구에서도 16일부터 한국문화축제한마당이 열린다. 중국인들과 올림픽을 맞아 베이징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스피커 3068개를 이용해 신라 상의대왕신중(국보 29호)을 본떠 만든 ‘형연’을 선보인다. 설치미술작가 한영석 씨의 작품. 2006년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해 폐(廢)채드라이프를 청성대를 만들어 청계천 공룡교에 전시한 바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SECTION	세계
DATE	2008.08.15		

<베이징2008>중국의 예술특구에서 열리는 한국 전시회

NEWSIS () 기사입력 2008-08-15 18:36



<베이징2008>중국의 예술특구에서 열리는 한국 전시회

【베이징(중국)=뉴스시스】

청계천의 청성대로 알려진 설치미술가 한원석씨가 베이징올림픽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중국 베이징 따산쯔 798 예술특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 작품은 폐 스피커를 이용해 '형연' 이라는 주제로 선덕대왕 신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상욱특파원 wook@newsis.com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DATE	2008.08.15	SECTION	세계

<베이징2008>폐 스피커로 만든 성덕대왕신종

NEWSIS () 기사입력 2008-08-15 18:36



<베이징2008>폐 스피커로 만든 성덕대왕신종

【베이징(중국)=뉴스시스】

청계천의 첨성대로 알려진 설치미술가 한원석씨가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중국 베이징 따산쯔 796 예술특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 작품은 폐 스피커를 이용해 '형연' 이라는 주제로 선덕대왕 신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상욱특파원 wook@newsis.com

Coverage Clipping

MEDIA	뉴시스		
DATE	2008.08.15	SECTION	세계

<베이징2008>폐 스피커로 멋진 작품을!

NEWSIS () 기사입력 2008-08-15 18:36



<베이징2008>폐 스피커로 멋진 작품을!

【베이징(중국)=뉴시스】

청계천의 첨성대로 알려진 설치미술가 한원석씨가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중국 베이징 따산쯔 796 예술특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 작품은 폐 스피커를 이용해 '형연'이라는 주제로 선덕대왕 신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상욱특파원 wook@newsis.com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신문	SECTION	문화
DATE	2008.08.15		

[거리 미술관 속으로]<71>중구 하나은행 앞 '환생'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8-07-22 03:09 [기사원문]



[서울신문]과거의 문화 유산이 현재 작가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또 작품으로 는 어떻게 드러날까.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황금색으로 치장한 플라스틱 조형물 '세기의 선물'(최정화 작·종로 공명동)이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면 청계천의 첨성대 '환생'은 진지하다.

밤이면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앞에서 빛을 쏘아올리는 '환생'은 신라 선덕여왕 재위 기간(632~647년)인 633년에 만들어진 국보 31호 첨성대의 부활이다.2006년 10월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는 환경조형물로 만들어져 광통교에 전시됐다가 그 해 말에 이곳으로 옮겨졌다.

원래 첨성대는 360여개의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환생'은 돌 대신 버려진 헤드램프를 이용했다. 헤드램프는 제작 당시 첨성대의 나이인 1374개가 들어갔다.

환생을 제작한 설치미술가 한원석(38) 작가는 "버려진 헤드라이트가 불을 밝히는 '환생'에 환경 회복의 상징으로 부활한 청계천의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었다."면서 "과거의 첨성대가 별을 관찰했다면 이 첨성대는 별이 되어 스스로 빛을 밝히는 존재"라고 제작 동기를 설명했다.

첨성대가 밤을 밝히는 별을 관측하는 용도(농업신을 숭배하는 제단이었다는 설도 있지만)였다면 이 조형물은 청계천을 앞세운 생명, 환경, 미래를 밝히는 상징물이라는 뜻이다.

작가는 첨성대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첨성대를 3D로 스캔하고, 에이치(H)빔으로 골조를 만들었다. 높이 9.17m, 넓이 5.17m로 규모로 실제 첨성대의 크기에 가깝다. 헤드램프 1374개는 1년 가까이 전국의 폐차장을 돌며 모으고, 내부 램프를 LED 램프로 바꿔 '부활'과 '절약'을 불어넣었다.

5년전 10만여개가 넘는 담배꽂이를 이용한 작품으로 전시를 하면서 환경과 인간 가치의 회복을 부르짖는 작가는 여전히 그의 작품에 자신의 작품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환생'에 붙은 헤드램프 몇 개는 금이 가고, 깨져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의 훼손은 환경조형물의宿命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밤마다 환한 불을 밝히는 이 작품에서 끊임없는 생명력의 부활과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MEDIA	서울신문		
DATE	2008.07.22	SECTION	지역

스스로 빛이 된 21세기 첨성대



거리 미술관 속으로

<71>중구 하나은행 앞 '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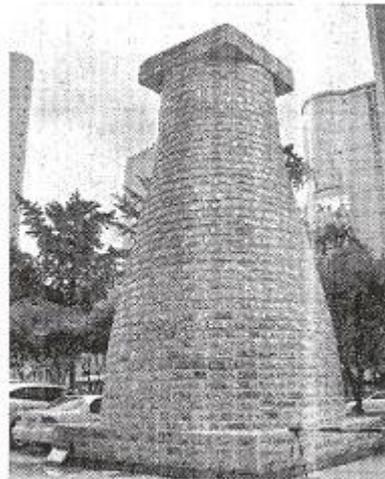
과거의 문화 유산이 현재 작가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또 작품으로는 어떻게 드러날까.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을 황금색으로 치장한 플라스틱 조형물 '세기의 선물' (최정화 작·종로 공평동)이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면 청계천의 첨성대 '환생'은 진지하다.

밤이면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앞에서 빛을 쏘아올리는 '환생(사진)'은 신라 선덕여왕 재위 기간(632~647년)인 633년에 만들어진 국보 31호 첨성대의 부활이다. 2006년 10월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는 환경조형물로 만들어져 광통교에 전시됐다가 그 해 말에 이곳으로 옮겨졌다.

원래 첨성대는 360여개의 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환생'은 돌 대신 버려진 헤드램프를 이용했다. 헤드램프는 제작 당시 첨성대의 나이인 1374개가 들어갔다.

환생을 제작한 설치미술가 한원석(38) 작가는 "버려진 헤드라이트가 불을 밝히는 '환생'에 환경 회복의 상징으로 부활한 청계천의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었다."면서 "과거의 첨성대가 별을 관찰했다면 이 첨성대는 별이 되어 스스로 빛을 밝히는 존재"라고 제작 동기를 설명했다.

첨성대가 밤을 밝히는 별을 관측하는 용도(농업신을 숭배하는 제단이였



다는 설도 있지만)였다면 이 조형물은 청계천을 앞세운 생명, 환경, 미래를 밝히는 상징물이라는 뜻이다.

작가는 첨성대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첨성대를 3D로 스캔하고, 에이치(H)빔으로 골조를 만들었다. 높이 9.17m, 넓이 5.17m로 규모로 실제 첨성대의 크기에 가깝다. 헤드램프 1374개는 1년 가까이 전국의 폐차장을 돌며 모으고, 내부 램프를 LED 램프로 바꿔 '부활'과 '절약'을 불어넣었다.

5년전 10만여개가 넘는 담배공초를 이용한 작품으로 전시를 하면서 환경과 인간 가치의 회복을 부르짖는 작가는 여전히 그의 작품에 자신의 작품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환생'에 붙은 헤드램프 몇 개는 금이 가고, 깨져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작품의 훼손은 환경조형물의 수명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밤마다 환한 불을 밝히는 이 작품에서 끊임없는 생명력의 부활과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 디자인	SECTION	Design hour
DATE	2008.03		



“소통과 문화를 배운 디자인 여행”



테렌스 콘란이 설계한 니키 클럽의 늦은 밤, 야외 온천에 혼자 몸을 담그고 '소통'이라는 단어에 빠져보았다. 이곳에서 자연과 인간, 서비스(호텔) 사이에서 절제된 훌륭한 소통과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락함과 함께 한없이 자유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소통할 줄 모르는 일방통행형 사람이었던 나는 이번 여행의 시작과 함께 소통과 조화에 대해 배우고 느끼기 시작했다. 일본의 디자인, 건축물보다 함께 여행한 한 분 한 분의 얘기와 몸짓이 더욱 커다란 건물과 세련된 디자인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고 사람과 여행, 그 속에서 소통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배웠다. **한원석 작가**



MEDIA	문화일보		
DATE	2007.06.11	SECTION	경제

미술관? 은행!

하나銀, 본점 등에 소장품 전시
사회공헌 일환으로 미술계 지원

▶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마당에는 독특한 설치미술 작품 1점이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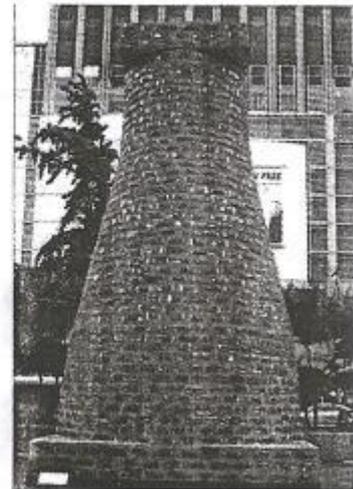
'환생 침성대(사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으로 설치미술 작가인 한원석씨가 만든 작품. 폐자동차 라이트 1374개(국보 31호인 침성대의 나이를 상징)를 이용해 침성대 모양으로 만든 이 환경 조형물은 청계천 전시 이후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나은행은 이 작품을 1억원 가량에 사들여 본점 앞마당에 전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훌륭한 작품이 주인을 만나지 못해 사라진다는 사실이 아쉬워 검토 끝에 이 작품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국내 최고의 '아트뱅크'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974년 한국투자금융시절부터 33년 동안 모은 3800여점의 컬렉션은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아트뱅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본점 전층과 전국 14개 골드클럽에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620개 지점을 미술관화할 방침이다. 올해에만 8억원을 들여 신진작가 32명의 작품 74점을 구입했고 추가로 50억원을 들여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25일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과 함께 아트컨퍼런스를 개최했고 미술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작품 투자나 관리지문을



하는 '하나아트뱅크 자산종합관리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는 신진 작가들의 컨템포러리(동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며 "도이차뱅크등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아트뱅크로서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은행도 신진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고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천기자 offramp@

MEDIA	서울 아트가이드		
DATE	2006.12	SECTION	글이 있는 그림

글이 있는 그림(46)

과속, 환생! 그리고 이음

한홍석 | 미술가 (wonsukhan@hotmail.com)

지난 7월 16일 비가 내렸다. 한가한 공항 고속도로를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 113 Km/h 갑자기 눈앞이 쿵쾅해 흐려졌다. 시야가 사라져 버린 걸.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34년간 거침 없이 달려온 내 삶의 속도가 갑자기 멈춰 섰다. 과속이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는 다시 태어났다. 길이 사라지듯 내 의식이 하얗게 사라진 순간, 꿈속에서 수많은 지나간 나의 모습이 왔다 갔다 했다. 무작정 학교와 집을 뒤로 하고 그림이 좋아 옥수동 작은 작업실에서 밤새워 그림 그리던 나, 그림 그림 돈이 필요해 이삿짐센터와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나,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일벌결에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이 되어 있던 나,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영국 켈스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나, 뒤늦게 시작한 학업으로 동경대 공학박사 과정 중인 나, 미술관을 설계하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나... 수많은 나와 나 사이를 오가던 내가 사고로 눈을 뜨자 내게 닥친 현실은 잔인했다. 벌여놓은 수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해 받게 된 수모와 빚더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라 해도, 그 시절에 나와 함께 하던 이음 식구들 다섯 명이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악재가 겹쳤다. 그동안 애써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환생 - 청계천에서 별을 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재조명해야 했다. 계동 없이 급속도 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삶의 속도가 빚어낸 과속이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추슬러야 했지만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배달했다. 다시태어남 - '환생', 내 인생과 작품이 일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일그러지고 찌부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모이고 쌓여서 빛나는 침성대로 다시 태어난 작품 '환생', 별을 관찰하던 침성대가 스스로 별이 되어 빛을 발하는 존재로 뒤 바뀌었다. 환생은 청계천변 광풍과 위에 세워져 현재 전시 중이다. 이 작업은 2003년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담배꽂이를 모아 만든 첫 개인전 '막의 꽃'에 이은 두 번째 환경작업이다. 작가 초년생에게 전무후무하게 허락된 전시회였다. 전시 이전, 영국 켈스에서 'Rubbish Museum(환경을 위한 미술관)'이란 제목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건축을 소재로 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공부와 경험을 하던 차에 기회가 되어 일본 동경대 건축공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Rubbish Museum의 이론적 연구를 완성 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1회 베이징 아트페어에 가게 되었다.

중국 파산즈798에 스페이스 이음을 세우다.

동양문화의 원류인 중국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예술특구 파산즈798은 내가 꿈꾸던 그런 곳이었다. 이전에 드넓은 공장지대였던



한홍석 | 환생

곳이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어 작업실과 전시실로 활용 되어 예술가들만의 특별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경대학교의 장학금과 영국에서의 전시를 포기하고 동경대에서 파견한 청화대 방문학자 자격으로 중국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중국행을 결행하자 뜻하지 않게 상하이 호텔 설계일도 주어져 파산즈798내에 제법 넓은 (56×16m) 작업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평생 소원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지만 상하이 호텔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곧 꿈은 무너지고 작업실의 1/3 공간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 개인전을 한번 연 초심 작가인 나는 작가들이 작품을 맘껏 내다 걸 수 있는 상업적이지 않은 순수한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Space Ieum을 오픈하게 되었다.

이음은 2005년 5월 첫 전시 '바나나 서피' 전으로 파산즈798내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리버풀 비엔날레 큐레이터, 테이트모던의 사이먼,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등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대단한 찬사를 보냈다. 이어 7월에 열린 개인전시회 '브러쉬 아워' 전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처음으로 중국 예술계에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백남준 미디어 프론티어' 전을 이은 '방송' 전은 중국미술의 1세대이며 약15년 전 중국 공산당의 눈 밖에 나는 예술적 실험으로 그 후, 전시 자체가 허용 되지 않았던 재야 예술가인 탕송의 위험한 재기 전시회로, 중국 미술사에 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음', '브러쉬 아워 2', '엘드리스 풀론', 'PNE', 'DNA' 전에 이르기까지 전시회는 계속 되었다.

스페이스 이음의 내일

이음은 순수하게 전시만 하는 것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그것은 곧 내 스스로의 경험의 한계이기도 했다. 학재인가, 내가 사고가 났던 시기에 이음 식구들마저 하나같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공간운영에도 위기가 닥쳤다.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무리하게 질주 했던 복잡한 일들이 한순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었다.

거대한 시작의 나라 중국, 그곳에 첫 문화공간을 세웠다는 상징성과 전시회 기획의 보람은 어딘 내게 너무 거대한 짐이었다. 경영난을 타개할 힘이 부족하면서 쉽게 놓아 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짐. 그러나 물이 커 생각하면 '스페이스 이음'으로 일고자 한 것은 작가들이 맘껏 전시회를 열수 있는 교류공간이었다. 욕심 없이 순수한 작가적 의도로 만든 전시공간이었으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스페이스 이음의 존재 가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②**

Coverage Clipping

MEDIA	한겨레		
DATE	2006.11.28	SECTION	문화

한국 화랑 베이징 물러가 문화전쟁

한겨레 기사입력 2006-11-29 00:21 | 최종수정 2006-11-29 00:21 | 기사원문



[한겨레] "지금 서울과 베이징 미술시장은 한 배와 같아요.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지난 16일 오후 4시 중국 수도 베이징 수도공항 출국장. 귀국편을 기다리는 서울 강남 화랑 표 갤러리의 대표 표미선씨는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의 품에서는 휴대폰이 실새 없이 울렸다. 독일 필른 아트 페어에 갔다가 첫새 전 중국에 온 표씨는 수십명의 현지 작가와 독일의 체크카엘(ZKM)미술관의 영상미술큐 디렉터 등을 만나 전시 판매 일정을 의논했다고 했다.

지점 기획자는 15일부터 상하이 미술판대권협회(아트페어)장으로 출장갔다. 아트페어 판매, 작가 접촉현황 보고, 현지 신인작가의 작품 홍보이미지까지 업로드, 휴대폰 등으로 계속 들어온다. 표씨는 "베이징, 상하이, 서울 사이의 전시일정과 현안을 실시간 확인하며 해결해야 같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시내 동북쪽 변두리 지우창 예술특구의 아라리오베이징 사무실.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의 중국 본점인 이곳 마케팅 직원 김수화씨는 매일 직장에 열

중했다. 전속작가 평하오의 뉴욕 초대전에 동행한 디렉터 음재갑씨에게 보낼 보고서다. 12월10일 개장 1주년 기념행사와 베이징, 천안 화랑의 전속 작가전 등에 대한 정보가 촘촘히 입력되어 있다. 그 사이에도 작가와 현지 딜러들로부터 전시 일정, 작품 섭외를 상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김씨는 "주말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작가 매니저 구실은 물론 전시 관리까지도 맡는다"며 3군데 1000여명에 달하는 전시장의 시시티브이 화면에 눈길을 돌렸다. 옛 공장터인1000여평 짜리 전시장은 인터넷으로 천안 본점과 연결되어 천안에서 베이징 현황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다.

베이징은 올초부터 한국 화랑들과 현지, 해외 화랑들 사이에 정보, 작가 인맥을 선점하려는 '문화전쟁'이 한창이다. 18일 서울 pkm갤러리 베이징이 문을 열면서 1년 사이 다산즈, 지우창, 가오창과 같은 현지 예술촌에 진출한 한국화랑들만 6곳으로 늘어났다. 내년 연초까지 지점을 차리는 갤러리 형태. 아트사이드 등은 연혁처를 개설했다.

지난 18일 저녁 시 외곽의 전염품 미술촌 가오창지에서 열린 피케이엘 갤러리의 베이징 개관 기념전은 소 비연날래를 방불케 했다. 미국 기획자 단 케머먼이 관 뉴욕 현대미술작가 20여 명의 대규모 기획전은 500여명 공간 사방에 비디오 영상물이 난무하는 스펙터클한 풍경을 과시했다. 박경미 대표는 "컬렉션 수준이 낮은 중국시장에 서구의 첨단 유행작품을 본격 소개하면서 컬렉션 확보, 작가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Coverage Clipping

지난해 12월 아라리오베이징 개설로 불붙은 화랑들의 중국 진출은 순수문화 장르의 민간주도 해외진출이란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현지 작가 발굴과 구미 시장을 상대로 한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특징도 미술시장 세계화의 단면이라 할 만하다. 화랑들이 중국에 '몰인'하는 배경은 뭘까. 무엇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 유흥성 강한 거액이 돈다는 점을 꼽는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전체 미술시장의 거래 총액은 한해 최소 200억위안(2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최근 2년간 중국 현대 미술은 국내 경매는 물론 소더비, 크리스티 등의 아시아 미술 경매의 판매액 대부분을 휩쓸며 급성장 가도를 걸어왔다. 한국 미술시장의 회복세도 기실 중국시장이 동력원인을 무인하는 이는 바로 없



다.

하지만 중국 증권작가 7명을 연속으로 거느린 아라리오나 신진작가 발굴을 표방한 표화양 등은 중국 컬렉터들에게 거의 미술품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금이 소득세, 수입세, 영업세 합쳐 매출액의 30%에서 최대 70%까지 부과되는 탓이다. 기실 당치곤 중국 시장의 매력은 전세계 알짜 컬렉터, 갤러, 기획자들과 만날 수 있는 유력한 장구이자 인맥 마케팅의 최적지란 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라리오의 윤재갑 디렉터와 중국 화상

들이 중국, 한국, 대만 등의 전국 화랑 12개곳을 초청한 판매전람회 '아트베이징'(10월5~10일)을 창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씨는 "지난 9월 중국 미술관에서 스위스 바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 파티가 열렸다"면서 "중국의 새 부자들을 고객화하려는 서구 아트메어족과 아시아 화랑들 사이의 물밑 경쟁도 심화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집을 중점했던 국내 최대 컬렉터 삼성미술관측도 홍나영 부관장 등이 17~18일 아라리오 베이징개 작가 위예민평, 장 사오경의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수집 경쟁에 끼여들 기세다. 홍 부관장은 "경성권 중국현대미술 컬렉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 일부 군소 화랑주들은 현지 작가들에게 작품을 애걸하면서 다른 화랑을 비방하는 행태를 되풀이해 눈총을 사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 도심의 작가들 살롱에서는 전속 작가 마케팅만 치중하거나 작품 판매를 쓰는 한국화랑들에 대한 '행한류' 정서도 생겨났다는 후문이다. 다산즈 예술단지의 일본 화랑 '도쿄 프로젝트'의 디렉터 크리스티바는 "일부 한국 화랑들이 자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작가 발굴 등의 책무에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다산즈의 한국 대안공간인 스페이스 이음의 한영석 대표도 "작가 마케팅 역할 분담으로 공생협력이 가능한데도, 한국 화랑들은 정보 소통에 둔감한 편"이라고 했다.

베이징/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미술	SECTION	Sight & Issue
DATE	2006.11		



청계천에 선보인 <스프링>과 <침성대>

올레스 올덴버그가 제작한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이 9월 말 준공식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했다. KT는 총 제작비 34억원, 높이 20m 무게 약 4t 규모로 제작 전부터 관심을 모은 <스프링>을 청계천 북쪽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에 기부했다. 한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미술가 한울석 씨가 제작장에서 모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1374개로 제작한 경관조형물 <침성대>가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시했다. 국보 31호인 침성대의 나이팅게일의 헤드라이트를 수직형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 이 작품은 청계천의 복원을 기념해 불을 밝혔다.



샘지와 앤디 워홀의 만남

팔아트의 아이콘적인 이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과 그의 예술세계와 작품이치를 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 국내 작가들의 신작을 선보이는 전시가 인사동 샘지길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60여 명의 작가는 초대와 샘디 워홀 모티브 공모전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작품은 앤디 워홀이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 해인전사와 더불어 워홀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현대공예와 샘지의 워홀 패션을 등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샘지길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앤디 워홀을 조망할 수 있게 꾸며졌다. 전시는 2007년 1월 25일까지.



Coverage Clipping

MEDIA	Sign		
DATE	2006.11	SECTION	

환경,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

청계천 광복교 광장에서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축제의 일환으로 한원의 작가의 특별전이 개최됐다. 이는 '환경,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로 중앙 최고의 천문대이자 국보 31호로 지정된 첨성대가 자동차 페헤드라이트 1,374개로 청계천에 고스란히 재현됐다. 1,374개 페헤드라이트의 숫자는 첨성대의 나이 1,374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11번의 공조를 만들어 찾아올렸다. 높이 9.17m, 넓이 5.17m의 규모감도 고스란히 재현된 청계천의 첨성대는 1년 전부터 전국 50여 곳의 배차장을 돌며, 수영이 다된 페헤드라이트를 수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환경'이라는 타이틀로 매려졌던 페헤드라이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부활시켰으며, 중앙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라는 것에서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한원의 작가는 "과거 별을 관측하여 국가의 길흉을 점쳤던 의미를 되살려 이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생태적 환경을 재고함과 동시에 미래 환경과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현대적인 LED 빛으로 과거 복원

'환경,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로 페헤드라이트에 LED모듈을 삽입해 일었던 빛을 되찾아 줌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밝히는 빛으로 부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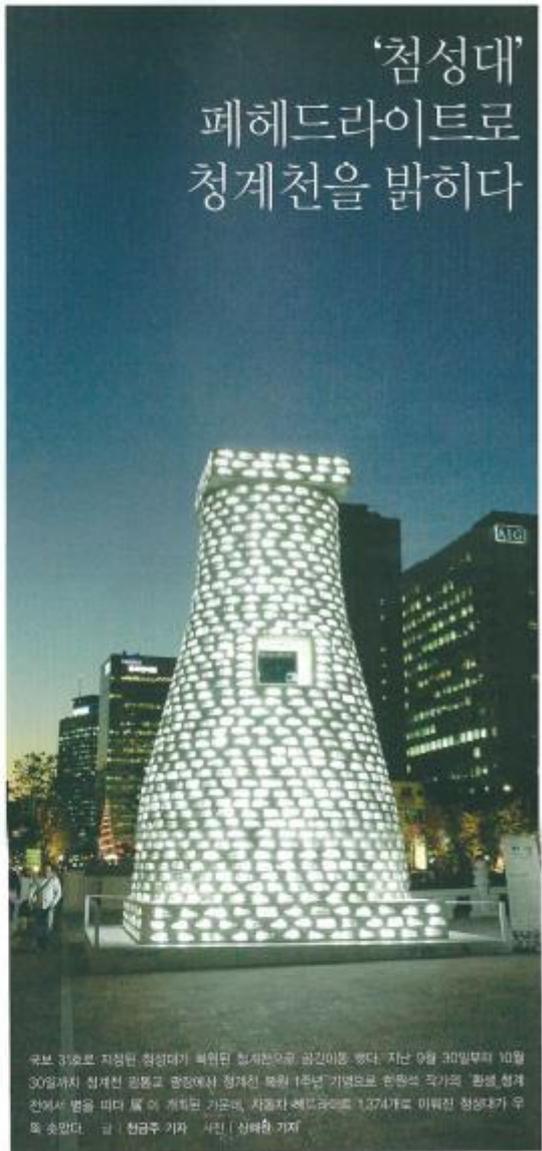
페헤드라이트 하나에 4개의 칩셋으로 구성된 LED모듈이 2개의 삼입과 총6개의 LED칩이 한 조를 이뤄 빛을 밝히고 있으며, 1kw가 넘지 않는 최소의 전력으로 구성됐다. 시민들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125°이상으로 빔 각도를 넓게 해서 빛이 공중에서 산란되도록 했으며, 예이팅 각도는 모두 수직을 통해 이뤄져 최상의 빛을 연출했다. 이에 사용된 LED의 총수량은 600~800개 정도로 동명전기(주)에서 작품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명전기(주) 개발부 남기권 차장은 "조기 개발했던 것 보다 많은 수량의 LED가 사용돼 빛의 세기를 찾기가 힘들었다"며 "도심의 내은사이에 묻혀지 않는 빛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people
'환경,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로 한원씨 작가

"자성하는 마음의 퍼포먼스로 시작된 작품"

작품은 수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374개의 페헤드라이트를 모으려면 그의 2대~3대 가까운 수원을 수집해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에 대해 자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가장 현대적이고 디지털적인 유행이라 할 수 있는 LED를 삽입해 빛을 발함으로써 과거와 현대를 소통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날로그로 시작한 디지털로 마무리된 이번 작품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동명전기(주)의 끊임없는 지원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첨성대' 페헤드라이트로 청계천을 밝히다

국보 31호로 지정된 첨성대가 복원된 청계천으로 옮김이동 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계천 광복교 광장에서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으로 한원의 작가의 '환경, 청계천에서 별을 따다'로 개최된 가운데, 차종진 페헤드라이트 1,374개로 이뤄진 첨성대가 우뚝 솟았다. 글 | 천금주 기자 사진 | 신혜윤 기자

MEDIA	세계일보		
DATE	2006.10.23	SECTION	지역



제작비 34억 청계천 복원 기념 조형물 '스프링'

서울시, 이름 알리기 '가슴앓이'

KT서 기증... 안내판 없어 '다슬기' 등으로 오해
스웨덴 출신 조각가 설계... "한국적美도 없어"

지난 21일 주말을 맞아 손자와 오랜만에 서울 청계천을 찾은 충북 청주시 심모(62·여)씨는 맨 먼저 청계광장을 둘러봤다. 광장에 세워진 1주년 기념 조형물 '스프링'(사진)을 구경하고 있던 손자가 갑자기 작품을 가리키며 사람의 배설물을 뜻하는 '× 같다'고 말하자 심씨는 당황했다.

바로 앞에 작품명과 작가의 이름만 달랑 적혀 있고, 옆에는 제작사인 KT에서 쓴 축사밖에 없어 심씨는 손자에게 그냥 '다슬기'라고 대답해 줬지만 청계천을 구경하는 대내 아이에게 한 거짓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서울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해 지난 달 29일 청계광장에 세워진 조형물 '스프링(Spring·'샘'이라는 뜻)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시민들은 조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나선 모양의 작품을 보

고 마치 사람의 배설물 같거나 열병 돌고동이라고 하는 다슬기를 닮았다고 지적한다.

◆안내판 부실해 그냥 '다슬기'로 = '스프링'은 청계천 복원 1주년을 맞아 KT가 제작비 34억원을 들여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작품 준공식에서 '스프링'에 대해 '청계천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영감을 얻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은 작품의 모양을 보고 갖가지 상상을 하기 일쑤다. 친구들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대학생 박기형(22)씨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려고 해도 안내판이 부실해 그냥 다슬기라고 부른다"며 "청계천의 알굴인 청계광장에 세워놓을 정도면 유명 작품 같

은데,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적 미(美)도 전혀 없어 = '스프링'의 작가인 스웨덴 출신 클라에스 올덴버그는 준공식 기자회견에서 작품을 만들 때 '도자기와 한복, 보름달 등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청계천 상징 조형물이 전혀 한국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32)씨는 "한국적인 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의미 부여만 그럴듯하고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래려 시민들은 '스프링'이 세워진 날 바로 밑 광동교에 설치된 환경 조형물 '침성대'를 그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작품은 설치미술가 한영서씨가 폐차장에서 모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1374개로 '환경회복'의 의미를 담았다. '스프링'처럼 화려한 준공식은커녕 간단한 행사마저 없었다. 이마저 '침성대'는 어달 30일 까지만 전시되고 이후에는 철거될 예정이다. **조민준 기자**

inthepeople@segye.com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06.10.15	SECTION	문화

[도시가 꾸는 꿈] 첨성대와 청계천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6-10-15 18:18 | 최종수정 2006-10-15 18:18 | 기사원문



첨성대는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청계천 광종교 위에 최근 설치된 첨성대는 천문관측대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다. 폐차장에서 모은 제각각 모양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1,374개로 만들어진 첨성대가 청계천을 밝히고 있다.

도로 밑 어둠속으로 사라졌던 청계천이 복원돼 서울의 풍경을 변화시킨다. 이 시대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낡고, 버려진 헤드라이트들은 도심에 빛을 전한다. 생명과 환경, '오래된 미래'의 가치를 되새겨보게 한다. 10월30일 이후 철거된다.

<글 윤민용·사진 우철훈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SECTION	문화
DATE	2006.10.12		

車 헤드라이트로 만든 청계천 침성대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06-10-12 08:26:13 |



- 부부관계 너무빨라 속타는 남성...
- 500만원으로 10억번 그 사람의건설

PHOTO

▶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환경조형물로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세워진 침성대가 11일 밤 환하게 빛나고 있다. 국보 제31호인 침성대를 본뜬 이 조형물은 1374개의 폐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만들어져 환경 회복을 상징한다.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6.10.11	SECTION	사회/문화

청계천 밤풍경 빛내는 첨성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6-10-11 20:40 | 최종수정 2006-10-11 20:40



11일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첨성대가 청계천의 밤풍경을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환경조형물로 세워진 이 청계천 첨성대는 국보 31호 첨성대의 나이만큼 1,374개의 폐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만들어져, 환경회복의 상징이 된 청계천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김주성/사회/문화/2006.10.11 (서울=연합뉴스) utzza@yna.co.kr

MEDIA	서울경제	SECTION	문화
DATE	2006.04.18		

국내 화랑 中 진출 줄잇는다

중국 현대미술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 화랑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화랑은 6개 정도이며 올해 3~4개 화랑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도 한국 미술의 중국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부터 화랑협회에 매년 5억원씩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화랑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화랑들의 중국진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옛 동독이 조성한 군수공장에서 예술특구로 변신한 베이징 다산쯔(大山子) 798단지 내 지난해 7월 한국화랑으로는 가장 먼저 진출한 대안공간 '이음'의 한원석 대표는 "29일부터 다산쯔에서 열리는 2006 다산쯔 축제에서 한국 독립영화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지역 외국화랑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음은 축제기간에 맞춰 다음달 8일까지 김명숙, 천성명, 한수정, 유정현, 천원보, 원즈유엔, 사샤오만, 류샤오만 등 한국과 중국작가 8명이 참여하는 현대미술 기획전을 마련했다.

다산쯔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지우창(酒廠)지대는 원래 양조장이었으나, 공장 이전 후 작업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이 하나 둘씩 모이자 이에 중국 정부가 예술특구로 지정한 곳. 현재 다산쯔에 자리를 잡은 국내 화랑은 아라리오, 표갤러리, 문갤러리 등 세 곳이다.

지우창은 아직까지는 다산쯔 지역에 비해 조성단계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입구에 들어서자 붉은 간판을 내 건 한국계 갤러리 '아라리오 베이징'의 모습이 보이는 등 한국 화랑들이 사실상 '독무대'를 이루고 있는 양상이다. 아라리오는 지난해 12월 10월 지우창 내에 전시장 4곳을 열고 독일작가 임페도르프와 투퍼츠, 한국작가 이승연의 작품을 전시 중



중국 현대 미술의 급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 예술지구인 지우창(酒廠)을 중심으로 한국 화랑들이 현지화에 본격 나섰다. 사진은 최근 문을 연 한국계 화랑 아라리오 베이징(왼쪽 위), 표 갤러리 베이징(왼쪽 아래), 다산쯔 지역의 화랑 간판들.



아라리오·표갤러리 등 6곳 전시장 개관 정부 지원 힘입어 3~4곳 추가 준비중

이다. 아라리오 갤러리를 지나 지우창 중앙부에 '갤러리 문(門)'이 60여명 규모의 전시장을 지난달 오픈하고 중국작가 팡전지에, 천원림 등의 단체전을 열고 있다. 신사들의 표갤러리도 전시장 3개를 갖춘 '표 베이징'을 지난달 개관. 이용덕, 박성태 등 한국작가와 위에민권, 장샤오강 등 중국 인기작가들의 작품을 걸고 개막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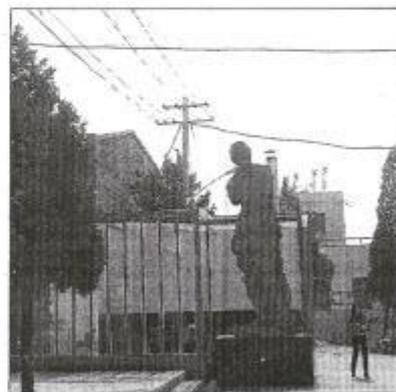
중국작가와 교류하고 있는 금산갤러리, 아트사이드 등도 중국 현지 화랑 개관 계획을 갖고 있다. 아트사이드는 한발 더 나아가 미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상품을 개발 '58'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위에민권, 장샤오강 등 친분이 있는 중국 인기작가들의 그림에서 도안을 받아 넥타이, 볼펜 등을 제작, 판매하는 등 관련 부대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온 국제갤러리, 현대갤러리 등 국내 주요 화랑들이 지난 13일 열렸던 베이징화랑박람회(이하)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도 중국 미술시장의 열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는 박람회 관련 업무와 무관하게 예정에 없었던 젊은 중국 작가들의 작업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하루 늦춰가며 중국 작가들의 작품성과 시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한국화랑협회 차원에서 베이징 내에 전시장을 열기로 하고 다산쯔나 지우창

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전시장 부지를 물색해 따르면 올 연말께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정효호 화랑협회 사무국장은 "다산쯔와 지우창은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좀 더 싼 곳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중국정부의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내놓고 물러나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정선희기자 india@sed.co.kr



지우창 거리 모습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신문		
DATE	2006.04.18	SECTION	문화

中현대미술 열풍 지금이 꼭짓점?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6-04-18 08:51 | 최종수정 2006-04-18 08:51



[서울신문]

‘중국 현대미술은 세계미술시장의 불투침이다.’ 아니다, 머지 않아 꺼질 거품이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장에서 중국 현대미술 작품들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미술 거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중국 현지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국내 화랑가는 물론 중국 현지 미술인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선 여전히 유명 작가와 작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선물리 뛰어들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형편이다.

“10년간 불투침”… 화랑 임차값 2배 뛰기도

지난 13일 베이징 국제무역센터에서 개막한 제3회 중국국제화랑박람회(베이징아트페어)는 마치 한국에서 열리는 느낌을 주었다. 17개국 97개 화랑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국내 대부분의 대형 화랑들(14개)이 부스를 낸 데다, 부스를 내지 않은 화랑 관계자들까지 적지 않게 행사장을 찾아 한국인들로 북적였기 때문이다.

일본 화랑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선 대부분 소규모 화랑들만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제 겨우 3회째인 잘 알려지지 않은 아트페어에 한국에서만 유독 주요 화랑들이 찾는 이유는 뭘까? 13일 행사장에서 만난 국내의 한 대형 화랑 대표는 “사실 작품을 팔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와 작품을 확보하려 왔다.”며 “부스는 직원이 지키고 나는 계속 작가를 만나러 다녔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또 다른 대형화랑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전시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선점되어 있거나 값도 많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현대 미술은 앞으로 10년간은 꺾이지 않는 불투침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반드시 중국 진출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이같은 상및 전망에 따라 중국엔 최근 한국 화랑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베이징 인근 평창의 술공장단지를 개조한 주창(酒廠)예술단지에 1000여평 규모의 아라리오베이징과 300평 규모의 표갤러리, 갤러리 더 게이트 등이 들어섰고, 베이징 북동쪽 다산쯔의 중국 최대의 예술단지인 798예술촌엔 이음화랑이 진출해 있다. 지우창은 이미 모든 부지의 임차가 끝나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고, 다산쯔는 불과 2년 만에 임차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있어, 이들 화랑들은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다른 화랑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중국진출은 한국 미술의 세계진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 작가들을 선정하기 위한 고투보 확보의 성격이 짙다. 이번 아트페어에 대부분의 화랑들이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지우창에 진출해 있는 모 화랑 관계자도 "현지엔 갤러리를 개관하면 중국 작가들을 섭외하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말했다.

"작품값 너무 올라"… 묻지마 투자 경계도

그러나 막상 중국 현지의 미술 전문가들은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한국화랑들의 이같은 과열현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미술대학으로 평가받는 중앙미술학원 판공카이(潘公凱) 원장에게 현대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그들 작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는 질문에 그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미술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면서도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좋은 작가는 아니다."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앙미술학원의 현대 미술이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지난(윤길남) 교수도 "일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사실 그 작품성에 비해 가격이 너무 올랐다. 분명 거품이 있다."고 설부른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국내 화랑들도 중국의 유명 현대작가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아트페어에 참여한 갤러리 현대 도형태 이사는 "장사오강이나 위예민 권, 정하오 등 몇몇 작가들은 이미 작품가격이 너무 올라 위험수위에 있다."며 "그보다는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작품성이 좋은 젊은 작가들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DIA	경향신문	SECTION	문화
DATE	2006.04.17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투기장 방불 中작가작품 대부분 첫날 '매진'

중국 현대미술의 세계적 열풍을 타고 한국 미술작품이 비상한 날개를 펴고 있다. 한국 화랑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 중국과 한국 작품을 함께 내놓는 전략을 쓰다가 하면 한·중 작가 합동전시회를 열어 한국작가 알리기에 본격 뛰어 들고 있다.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성황=지난 12~16일 베이징 중국국제무역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화랑박람회'(CIGE)는 중국 미술의 열기를 확인시켜주는 대회였다.

미국 대형화랑 말보로 갤러리를 비롯해 전세계 17개국 98개 화랑이 참여한 박람회에 국내에서는 국제, 현대, 가나, 키이스, 표, 세졸, 박승, 아트사이드, 선컨템포러리, 학교재, 동산방, 쉐더, 조선, 금산 등 14개 화랑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예년과 달리 대부분의 참여화랑들이 중국작가의 작품을 들고 나와 첫날 거의 판매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팡정지에, 지춘야, 위예민젠, 장사오강의 작품은 가장 많이 전시됐다. 말리켄, 쟁하오 등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을 배출한 중국 최고의 미술대학 중앙미술학원 판공카이 원장은 "서구 미술기법에 중국의 문화와 일상이 잘 결합된 중국 현대미술이 세계 미술계에 어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미 류 중앙미술학원 객원 교수는 "이번 아트페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작가 작품이면 무조건 사는 투기와 비슷하다"고 중국미술 열풍을 경계할 정도였다.

한국화랑들은 한곳도 중국작품을 내놓지 않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아트사이드, 현대, 선컨템포러리, 표, 학교재, 박승 등 참가화랑 절반이 한국작품과 함께 중국작품을 내걸었다. 지난 달 뉴욕 소더비 아시아경매에서 97만9천2백달러의 최고가에 낙찰된 장사오강과 위예민젠의 판화, 지춘야의 작품을 모두 첫날 판매한 아트사이드 이동재 대표는 "중국작가의 작품을 보러 온 고객들이 옆에 전시된 박성모와 이재효 작가의 조각작품을 보고 모두 사갔다"고 말했다. 다른 화랑들도 중국작가의 작품들은 모두 다 '솔드아웃' 시켰고 평달아 박서보, 손동현, 최



백남준의 작품을 전시한 중국 국제미술박람회장 갤러리 현대 부스.

한국 14개 화랑 참가...박성모·이재효등 호응 한·중 작가 공동전시 '원원전략'으로 판매성과

소영, 박성태 등 한국작가의 작품도 좋은 판매 성과를 거뒀다.

◇한·중 합동전시 바람=지난해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화랑 네곳에서는 모두 베이징 아트페어를 겨냥해 한국과 중국작가의 공동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5월 파산프의 798예술단지에서 진출한 교류공간 이음에서는 중국작가 네명과 한국작가 김명숙, 천성명, 유정현, 한수정이 함께 그룹전 '브러시 아워 2'를 내달 3일까지 연다. 왕징의 지우량 예술단지에서 문을 연 아라리오 베이징은 중국작가 왕지안웨이와 함께 한국의 신인작가 이지현의 전시를 열고 있고 이곳의 갤러리 문은 중국작가 세 사람과 함께 이길우의 작품을 그룹전으로 내걸었다.

표희광은 타먼 등 중국작가와 함께 박성태, 김인경, 이종덕 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표희광 표이선 대표는 "중국작가를 미끼상품으로 내걸면서 한국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쏟게 하려

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중 합동전 바람은 중국 갤러리에도 돌아왔다. 대만계 중국 화랑 소카갤러리도 중국작가 세 사람과 함께 한국 사진작가 민병현, 이원철, 문영하씨가 참여하는 '아트 오브 포커스'전을 이번 박람회에 맞춰 오픈했다.

교류공간 이음의 한영석 대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작품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술과 대중문화의 교류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미 지난해 순수미술에서도 현유를 일으키기 위해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베이징에 한류문화센터 설립을 목표로 방침을 정하고 5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현숙 외랑협회장은 "중국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보다 차분히 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중국 열풍에 한국작품이 편승하는 원원 전략이 분명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 이우경기자

MEDIA	국민일보	SECTION	사회
DATE	2006.04.17		

中 문화특구에 예술한류 심어요

갤러리 '이음' 대표 한원석씨
다산뜨에 3년째 문화공간 운영

"다산뜨는 세계의 인사동입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어디서나 한국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는 있으나 순수예술을 소개하는 창구가 없더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작 전까지 갤러리 '이음'을 한국문화센터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동독이 중국에 만든 군수공장을 예술 단지로 변모시키고 있는 '다산뜨(大山子)798 예술특구'에 3년째 외롭게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의지의 한국인이 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이곳에 2003년 7월 한국 화랑으로선 가장 먼저 진출한 갤러리 '이음'의 대표 한원석(36·사진)씨. 설치미술가이자 디렉터인 한씨는 3년 전 담배공초를 촘촘하게 붙여 만든 '약의 꽃'으로 개인전을 열어 소비문화의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독성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인근 지우창 예술구에 있는 아라리오 베이징이 천안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막강한 자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비해, 다산뜨의 '이음'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십시일반 회원제로 운영한다. 미술을 중심으로 건축 음악 무용 필름 등 실험적인 종합예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갤러리인 서울의 '사루비아다방'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씨는 오는 29일부터 다산뜨에서 열

리는 '2006 다산뜨 축제'에서 한국 독립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이 지역 외국 화랑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이곳 공장들이 철거되면서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 들어 현재 100여 개의 갤러리와 170여 개의 스튜디오·디자인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갤러리도 50여 개에 이른다.

한씨는 "회화로 다시 돌아가는 국제 미술계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구상 회화 작가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중식 기자 yunis@kmib.co.kr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06.04.16	SECTION	문화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투기장 방불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6-04-16 18:06 | 최종수정 2006-04-16 18:06 | 기사원문

중국 현대미술의 세계적 열풍을 업고 한국 미술작품이 비상한 날개를 펴고 있다. 한국 화랑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 중국과 한국 작품을 함께 내놓는 전략을 쓰는가 하면 한·중 작가 합동전시회를 열어 한국작가 알리기에 본격 뛰어 들고 있다.

◇베이징 국제화랑박람회 성황=지난 12~16일 베이징 중국국제무역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화랑박람회'(CIGE)는 중국 미술의 열기를 확인시켜주는 대회였다.

미국 대형화랑 말보로 갤러리를 비롯해 전세계 17개국 98개 화랑이 참여한 박람회에 국내에서는 국제, 현대, 가나, 카이스, 표, 세줄, 백송, 아트사이드, 선컨템포러리, 학교재, 동산방, 샘터, 조선, 금산 등 14개 화랑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예년과 달리 대부분의 참여화랑들이 중국작가의 작품을 들고 나와 첫날 거의 판매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광정지에, 저춘야, 위에민진, 장샤오강의 작품은 가장 많이 전시됐다. 팡리쥘, 썩하오 등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작가들을 배출한 중국 최고의 미술대학 중앙미술학원 판공카이 원장은 "서구 미술기법에 중국의 문화와 일상이 잘 결합된 중국 현대미술이 세계 미술계에 어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미 류 중앙미술학원 객원교수는 "이번 아트페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작가 작품이면 무조건 사는 투기와 비슷하다"고 중국미술 열풍을 경계할 정도였다.

한국화랑들은 한곳도 중국작품을 내놓지 않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아트사이드, 현대, 선컨템포러리, 표, 학교재, 백송 등 참가화랑 절반이 한국작품과 함께 중국작품을 내놓았다. 지난달 뉴욕 소더비 아시아경매에서 97만9천2백달러의 최고가에 낙찰된 장샤오강과 위에민진의 판화, 저춘야의 작품을 모두 첫날 판매한 아트사이드 이동재 대표는 "중국작가의 작품을 보러 온 고객들이 옆에 전시된 박성모와 이재효 작가의 조각작품을 보고 모두 사갔다"고 말했다. 다른 화랑들도 중국작가의 작품들은 모두 다 '솔드아웃' 시켰고 엉달아 박서보, 손동현, 최소영, 박성태 등 한국작가의 작품도 좋은 판매성과를 거뒀다.

Coverage Clipping

◇한·중 합동전시 바람=지난해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화랑 네곳에서는 모두 베이징 아트페어를 겨냥해 한국과 중국작가의 공동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해 5월 따산쯔의 798예술단지에 진출한 교류공간 이음에서는 중국작가 네명과 한국작가 김명숙, 천성명, 유정현, 한수정이 함께 그룹전 '브러시 아워 2'를 내달 3일까지 연다. 왕징의 지우창 예술단지에 문을 연 아라리오 베이징은 중국작가 왕지안웨이와 함께 한국의 신인작가 이지현의 전시를 열고 있고, 이웃의 갤러리 문은 중국작가 세 사람과 함께 이길우의 작품을 그룹전으로 내걸었다.

표화랑은 타먼 등 중국작가와 함께 박성태, 김인겸, 이응덕 씨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표화랑 표미선 대표는 "중국작가를 미끼상품으로 내걸면서 한국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쏟게 하려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중 합동전 바람은 중국 갤러리에도 옮겨붙었다. 대만계 중국 화랑 소카 갤러리도 중국작가 세사람과 함께 한국 사진작가 민병헌, 이원철, 윤영하씨가 참여하는 '아트 오브 포커스'전을 이번 박람회 맞춰 오픈했다.

교류공간 이음의 한원석 대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작품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술과 대중문화의 한류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미 지난해 순수미술에서도 한류를 일으키기 위해 한국 화랑협회와 함께 베이징에 한류문화센터를 열기로 방침을 정하고 5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현숙 화랑협회장은 "중국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보다 차분히 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중국 열풍에 한국작품이 편승하는 원원 전략이 분명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6.04.14	SECTION	세계

<중국 진출 한국화랑들 정착 안간힘>

연합뉴스 798지역 2006-04-14 17:06 8월9일 2006-04-14 17:06

(베이징=연합뉴스) 조재희 기자 = 중국 현대미술의 급성장세에 맞춰 베이징에 직접 진출한 국내 화랑들이 현지 정착을 위해 골부당치고 있다.

베이징 다산쯔(大山子)와 지우창(酒廠)의 예술단지에 개관했거나 개관할 예정인 국내 화랑들은 모두 6~7개 정도.

옛 종곡이 조성한 근수공장에서 예술특구로 변신한 다산쯔 798단지내에 지난

해 7월 한국화랑으로는 가장 먼저 진출한 '이음'의 한림서 대표는 14일 "29일부터 다산쯔에서 열리는 2006 다산쯔축제에서 한국 특급명화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지역 외국화랑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음은 축제기간에 맞춰 다음달 8일까지 일정으로 김명숙, 천성명, 한수정, 유정현, 천원보, 황즈유엔, 시사오관, 류사오관 등 한국과 중국작가 8명이 참여하는 현대회화 기획전을 열고 있다.

다산쯔 내에서는 대표적인 대형 회관인 '798스페이스'에 주오형제 등 중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걸리는 등 100여군데 화랑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다산쯔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지우창 지대는 원래 알귀다우주(二鍋頭酒)를 만드는 양조장이었던 지역이다.

지난해말부터 한국화랑 3곳을 비롯해 프랑스, 홍콩, 일본 화랑 15곳이 화랑을 열고 중국중앙미술학원 출신 작가들이 모인 작가 스튜디오들도 개장해 '제2의 다산쯔'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산쯔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조성단계인 지우창 지역은 입구에 들어서지마자 붉은 간판을 내걸고 있는 아라리오 베이징의 모습이 보이는 등 한국 화랑들이 사실상 '흑무대'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다.

아라리오는 지난해 12월10일 지우창 내에 전시장 4곳을 열어 한국에서 활동하던

문재갑씨를 대니저로 상주시키면서 현재 촉일작가 임면도르프와 루머츠, 한국작가 이승연의 작품을 걸어놓고 전시 중이다.

아라리오 갤러리를 지나 지우창 중앙부에 갤러리 문(門)이 60여평 규모의 전시장을 지난달 오픈하고 중국작가 광진지에, 천원명 등의 단체전을 열고 있다.

갤러리의 박철희 대표는 "중국작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활용해 한국과 중국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신사중의 표갈리리도 전시장 3개를 갖춘 '표 베이징'을 지우창 끝 지역에 지난달 개관한 후 이종덕, 박성태 등 한국작가와 위에만권, 장사오관 등 중국 인가작가들의 유희를 끌어놓고 5월18일까지 개막전을 갖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차원에서 베이징내에 전시장을 열기로 하고 다산쯔나 지우창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전시장 부지를 탐색해 빠르면 올 연말에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금산갤러리, 아르사이드 등도 중국 현지 화랑 개관계획을 갖고 있다.

13일부터 베이징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국제회화박람회에 참여해 전시장 부지 확보 및 한국화랑미술제 홍보에 나서고 있는 화랑협회의 경중호 사무국장은 "중국정부의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언제든 부지를 내놓고 풀러나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화랑박람회 참가 중인 국내 모화당 대표는 "중국미술이 급성장세이긴 하지만 국내 화랑의 중국 직접 진출의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외국 화랑에 비해 유독 한국화랑들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말이긴 했지만 14일 오후 지우창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손으로 감을 정도였으며 단지 내 커피 등 휴게시설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SECTION	문화
DATE	2005.12.12		



예술공간 '이즘'을 7월 동지 표화랑도 내년 3월까지 대거

대중문화는 한류 바람이刮. 미술계에는 중국풍이 거세다. 전세계적으로 붐고 있는 중국 대담가르드의 열풍으로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회는 몇년치가 예약되어 있을 정도이고 작품값도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불후 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안공간과 화랑들도 중국 작가의 작품들을 선점하고, 나아가 한국 작가들을 아시아 미술시장에 소개하는 고수보로 삼기 위해 잇달아 중국 미술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롯데이즘을 방문 곳은 지난 7월 중국 북경쪽

의 예술단지인 다산촌(大山村)의 '798 예술단지'에 문을 연 300여평 규모의 예술공간 '이즘' (대표 권원식·사진 오현숙)으로 한국의 젊은 예술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작음을 보여주는 실험적 대안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50년대 구 공작의 형태로 지어진 다산촌 798 군수공장 지대는 90년대 들어 쇠락하기 시작하다가 95년 중앙미술학원의 작업공간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말부터 도쿄갤러리를 비롯한 10여개의 세계적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선 중국내 최대의 예술단지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과의 불명확 임대계약으로 2004년 중국 올림픽 이후의 준비 여부가 불투명

을 실정이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아라리오 베이징(권숙)

이 위치한 용징의 지우정 예술단지는 현재 양조장이었던 곳으로 중국당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예술구역이다. 아라리오 베이징의 개관은 '아름다운 낙소'전에는 중국 현대 미술작가 7명을 비롯해 안젤름 키머, 임병도르프, 시그마 윙게, 한국의 전준호, 인도의 랍후 등 24명의 작품이 나뉘어 전시된다. 오프닝에는 한-중은 물론 독일 국립미술관 쾰른의 후원자 헨리크 에커먼, 영국의 유명 컬렉터 잭스 사차 등 전세계 미술계의 유력 인사들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라리오의 김장일 회장은 "아라리오 베이징은 아시아 미술이 서구 갤러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 미술을 알릴 수 있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리오 베이징은 4개의 갤러리와 사

무실, 수관고 등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갤러리다.

같은 주창 예술단지에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표화랑은 약 300평 규모로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표미선 표화랑 대표는 "아시아의 예술중심지로 떠오르는 중국에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제공해 작가들이 예술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술계의 중국풍으로 알려진 아라리오 베이징의 윤재갑 대표자는 "북진한 행정 절차와 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당국의 방침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산 갤러리, 갤러리 아라리오 등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1기루2기2 104@kijung.com

MEDIA	Art China		
DATE	2005.09	SECTION	Art scope

■ 艺术时空 · Art Scope

Banana surfer

— Korean-Chines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香蕉——2005 中韩当代艺术展

金秀炫(韩) | Kim Suhyun





“Banana Surfer”展引用一时被称为西欧文化代名词——“香蕉”为展览标题。因为，在过去，中国与韩国对于西欧文化的引入，就如同香蕉一样，令人迷情与憧憬。但如今那些无暇表示反面评论而全盘接纳的西欧文化与以西欧价值现为中心、完整的西方主义为前提的东方主义，在亚洲艺术家的批评与抗议中，欲恢复其真正的地位。但这种抗议并非意味驱逐西方主义，而是表明基于全球化、全球主义观点，脱离目前西方享有的绝对权威及支配地位，承认东方相对真理，即超越等级化视线，关注东西方同质性的多种表现性艺术作品及行为已经开始萌动。

另外，中国随着加入WTO，主办2008年北京奥运会及2010年上海博览会，在政治、经济、外交、文化等多方面的影响日益增大，并受到全世界的瞩目。尤其众多经济专家纷纷预测中国未来前景，譬如艺术领域将凭借基于十三亿人口的购买力及华侨圈的国际网络系统，促使中国现代美术在国际美术界所占比重日益增大。

随之，北京地区诞生了几处集体性艺术村，首先，就是大山子798地带的艺术村。而798艺术村内多国籍画廊、艺术家工作室及多家经典专卖店和咖啡街，巧妙地协调了其商业性与艺术性。大山子798原是建于1950年代的武钢工厂，两年前尚属于贫困艺术家低廉的店铺，今天已经是由英国、德国、法国、意大利、日本、新加坡等外国资本斥资打造的画廊片区，由此而成为北京现代美术家的展示舞台，也是中国当代艺术进军西欧美术的桥头堡。但韩国身为邻国尚未能在此设立本国画廊，故本次将首次以韩国资本创办一家画廊，并借纪念大山子艺术节之际，举办中韩当代艺术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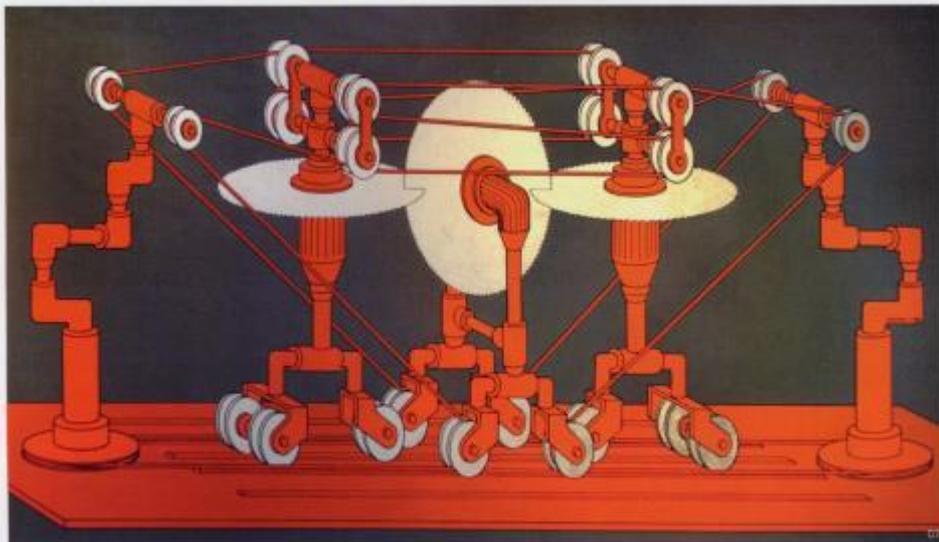
参加本次“Banana Surfer”艺术家共有十二人，中国五人/组(王鲁炎、萧昱、邵逸农-慕辰、王阔锋、何岸)，韩国艺术家七人(尹永锡、文洲、林永善、李庸白、郑然斗、李重根、金基罗)。展出作品有影像、影像装置、图片、绘画作品等。林永善的影像作品主要表现为以推翻军事独裁为目的的光州学生运动。李庸白的影像作品利用变身(morphing)技术，数字画面充满了液体性、可塑性、变形性，向人们展现了由佛像变为耶稣，再由耶稣变成佛像

01 邵逸农-慕辰作品
 02 文洲作品
 03 李庸白作品
 04 林永善作品
 05 萧昱作品
 06 尹永锡作品
 07 王鲁炎作品
 08 李重根作品
 09 王阔锋作品
 10 金基罗作品
 11 何岸作品
 12 郑然斗作品






98



的过程。该作品由怪异图像与奇特的音效组成，仿佛图像欲逃离原赋予的象征性轨道，突破了常规的逻辑和秩序，暗示数字文化新的生态特征。文洲的录像作品，以一片舒缓宁静的草原上竖立的一棵树为视觉出发点，开始对影像及视觉问题进行探索 and 反省，影像渐次展开，最终呈现为模糊重叠的效果，该作品无疑向人们展现了高科技所带来的出乎意料的视觉震撼。另外，参加本次威尼斯双年展韩国馆的郑然斗的《我要说》表现了现代消费社会中日益萎缩的男性影像，而中国作家何岸则从广东买来三百万只蚂蚁，利用蜂蜜与文字为协调媒介，有效地利用了知觉符号性，表现了现实社会中与伤口、攻击、侵袭相对应的肉体的沟通与精神的刺激。

此外，王圆铨的《浪漫旅行》是行为和影像的结合，表现了现代中国面临的城市发展过程中出现的开发过度的现实问题。在该制作作品过程中，他亲自乘坐人力车，穿梭于传统建筑 and 现代建筑之间，在流动的及偶然的过程中实现自己的拍摄意图。图片和行为互为依托，作品内涵层次也更为丰富，折射出多重视角，透析出城市化过程中多样、复杂的价值观。

当摄影完成，载运摄像机的人力车也与图片一起在展厅展出。

萧昱的作品别具一格，他先将一根用钢铁制成的与自身身体长度相等的螺丝钉放在地板上，再在螺丝钉的旁边以粉笔画出自身躺卧的形态，并在螺丝钉上写上“我是螺丝钉”的字样，以表现流行于中国1950、1960年代的社会主义价值观。

金基罗的设置作品《I LOVE U》，由富有古风韵味的桌子与形态各异的椅子 and 一只巨大的电唱喇叭构成。喇叭中发出温馨的翻唱曲，桌上凌乱地放着时尚杂志 and 烟灰缸。作者将虚假的“I LOVE U”和甜蜜谎言下日益趋向自私的人类现实表现得淋漓尽致，而卻逸农一幕原则以垃圾场为摄影内容，以赤、橙、黄、绿、青、蓝、紫表现出了巧妙的讽刺。李重根的作品利用华丽、轻快的花鼓无限扩大了空间与情景，他用变形数字打印作品将画廊入口前的大面积墙面装潢一新，与观众进行最直接的交流。

如今，亚洲现代美术已经突破行政美术的旧时代概念。在经济快速增长与艺术家激进前卫的过程中，行政意识与体制文化的督导引发了艺术个性意识的抗争，进



而使艺术家在个人生活的体验、个人价值观上有了个性化的主动追求。这种新的、积极的文化因素在年轻一代艺术家中被表现得尤其显著。也正是这种共同的东西，它可以超越国籍，成为当代中、韩青年艺术家创造的共同背景和依托。为此，我们举办了这次展览，希望它能够成为连接中、韩两国当代艺术的桥梁，从而促进两国艺术家的交流。



Coverage Clipping

MEDIA	Art and culture		
DATE	2005.09	SECTION	문화



/// Banana Sufer 香蕉滑板

编者按：“Banana Sufer”是799第一家韩国画廊举办的第一场展览，在画廊门前的墙上，悬挂着一个古老的韩语文字，它的构成很像阿拉伯数字0,1,0,1的纵横排列，这也许表达出这次展览的意图，以西方的形式来成就东方的精神，达成一种奇妙的默契。

文 / 徐真镇, 金秀成



世界上有这样的水果吗？用手便可轻松的去皮，瞬间露出来软、香甜的诱人果实。在韩国，我们小时候，香蕉是一种奢侈的水果，只有在高级宾馆晚餐室才能看见，但随着运输手段及冷藏技术的日益发达，香蕉已成为极为常见水果，如果放在饭桌上，孩子们甚至会不屑一顾。

有趣的是，相对罕见的新水果如芒果、猕猴桃等却没能获得人们对香蕉般的高度认可，因为在东方人的潜意识里，金黄香蕉皮的香蕉代表着对西方文化物质的享有，在相当长一段时间内，西欧文化与物质文明如同香蕉般充满了诱惑与魅力，我们仿佛被这种新奇的味道所融化似的，争相深陷其中，以至于来不及对来势凶猛的文化冲击作出评判。20世纪是被西方文明的现代化主宰的时期，因此，当时的东方各国都纷纷以“西方视角”的角度来解释和分析问题，甚至以西欧为标准来衡量自己的国力乃至文化发展水平。



在靠近韩国与日本以及中国的交流中，都相互约定取消西欧视觉决定论，包括以前的翻译过程，越来越倾向于从各自文化的角度出发，互相理解与交流。有趣的是，这次展览的韩国艺术家都具有海外留学背景，他们运用熟悉的西方技法，选择表现的是本民族或者世界性的题材，在这里，“香蕉”代表的西欧文化那种高高在上的优越感如今变成了一种多样性的文化，一种理解方式和普通工具，艺术家可以自如的使用，正如香蕉做成的滑板。

香蕉与苹果、梨一样，只不过是一种水果，都在世界某一地区生长，香蕉surfer正是借巴西文化词语代名词而举办的计划展。如今的东方和西欧文化正在以独特的文化样式各自寻求合适的席位，也象征着多样文化的共存，如今已经不是一种文化取代另一种文化而占据有利地位的时代，它们各自带着固有的优势相遇，交融，最后形成新的制度。



1. 工作室一角
2. 尹永镇作品
3. 郑逸农 & 基根作品
4. 王静夫作品
5. 金基罗作品
6. 画廊前的艺术家们



MEDIA	Korea Tatler		
DATE	2005.09	SECTION	KT Culture Space

KT Culture Space

아티스트 한원석의 행복한 사치

중국 베이징의 문화지구 파산즈 798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들여 '예술'이라는 그 행복한 사치를 불사하는 '스페이스 이름'의 한원석 대표를 만났다.

“원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공사판에 나가기 시작했던 게 발전해서 지금은 건축도 하고, 작품활동과 건축을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뮤지엄이라는 공간으로도 눈이 가더라고요.”

서른 다섯 해 동안 쌓아온 자신의 화려한 이력에 휘둥그레진 에디터를 향해 '직업은 현재 서른 다섯 살의 시절으로 타고 온 버스에 불과하다'며 아주 그럴듯한 말을 남기는 남자. 그러더니 자신을 향해 포커스를 맞추는 포토그래머에게도 한껏 관심을 기울인다. 사실 그림에 빠지기 전에는 한 장 사진을 찍었다고, 예술에 관해 거의 절망위적인 소릴과 관심을 예뻐 숨기지 않는 그는 최근 베이징의 새로운 문화지구인 한국의 유일한 교류공간으로 자리잡아 인문의 조명을 받았던 '스페이스 이름'의 한원석 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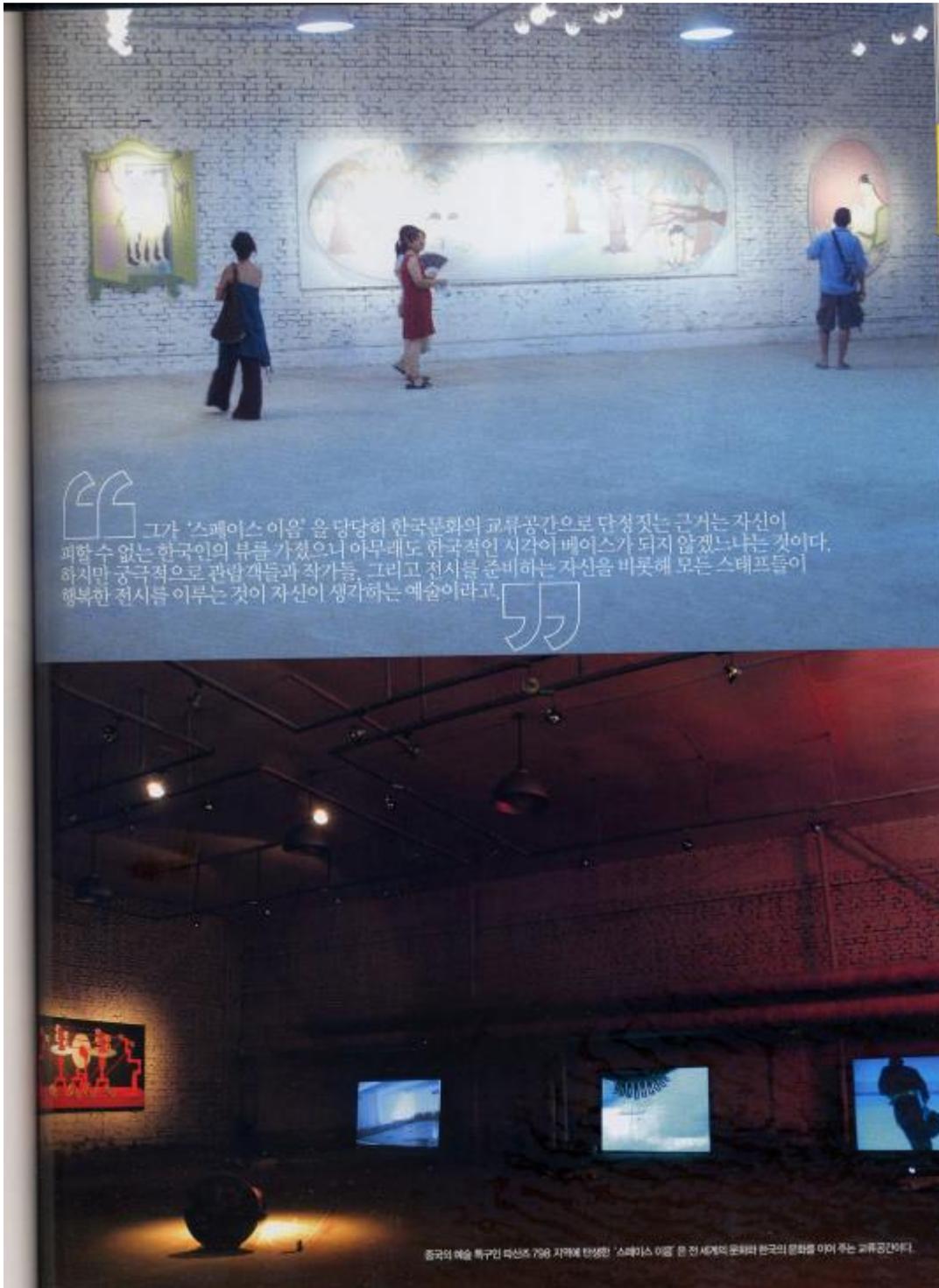
건축가로, 설치미술가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 기획자로 버스를 갈아타며 일년 365일 분기행전해있던 그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크나큰 행운이었다. 자신의 주 근거지를 베이징으로 옮긴 채 '스페이스 이름'에 몸입혀 있던 그가 재미있 상공관 대학교의 레노베이션을 의뢰 받아 짧은 일정으로 서울 땅을 밟았던 것. 첫만남부터 그 누구보다 열렬한 에너지를 발산한 그는 에디터가 미처 질문할 사이도 없이 질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파산즈 798의 대략에 대해 열반을 도하기 시작했다. 파산즈 798은 현대 가장 활발했던 중국의 무기공장 지대의 지명과 번기개념의 숫자가 합쳐진 명칭이다. 전쟁이 끝나고 배허로 변한 넓은 공장 지대는 작업공간으로 안성맞춤이어서, 공간을 탐색하던 예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베이징의 새로운 문화지구로 구역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정부의 철거방침에 항의하는 의미로 열었던 2003년 제 1회 파산즈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발전해 현재에는 일본의 동경 갤러리나 이탈리아의 마렐라 갤러리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브랜치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원석 대표 역시 1회 페스티벌

에 반해 베이징에 자리를 굳히기로 결심한 제이스. 답배공조를 활용한 거대한 설치작품으로 국내전을 열기도 했던 그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고 싶은 욕심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베이징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손수 작업실을 디자인했던 그는 완성된 공간이 혼자 쓰는 작업실만으로는 아깝다는 생각에 전시공간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박나나서피'의 영상전시를 통해 특설대로 제 2회 파산즈 페스티벌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 번은지 불과 1년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였다. "서울에는 문화공간이 지나치게 넘쳐나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한테 베이징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문화교류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 자동차나 음반만 팔러 갈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두

드릴까 되지 않겠나만 생각이 들었죠." 지난 7월 28일, 개관전인 '크리시 아워' 전을 통해 회화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트렌드와 한국 작가들의 우수성을 알린 한편,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의 지평을 미련하고 있는 그는 순수예술만이 한국과 중국의 진정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에 있어서 꼭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제한을 두고 싶지는 않다고 전한다. 예술은 예술일 뿐 어떤 정계를 두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그가 '스페이스 이름'을 당당히 한국문화의 교류공간으로 단결짓는 근거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한국인의 뷰를 가졌으니 아무래도 한국적인 시각이 배이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객들과 작가들, 그리고 전시를 준비하는 자신을 비롯해 모든 스태프들이 행복한 전시를 이루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비어있음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을 이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 이름'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2]

에디터: 김민정 / 사진: 김민정 / 디자인: 김민정 / 스페이스 이름02-10-9334-6966

Coverage Clipping



Coverage Clipping

MEDIA	Art in Culture		
DATE	2005.08	SECTION	미술

북경에 한국 문화교류공간 '이음' 개관

중국 북경의 공장 지대인 따산즈에는 예술 특구 '798' 지역이 있다. 철거된 공장에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하나둘 열면서 시작된 이 따산즈 798 지역은 현재 전세계 1백여개 갤러리들이 자리를 잡았다. 2003년 제1회 따산즈페스티벌 이후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려,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예술 특구 지역이다. 이곳에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한국 문화공간 '이음' (디렉터 한원석, 김성희)이 문을 열었다.

일본의 동경갤러리, 이탈리아의 마렐라갤러리 등 각국 마다 상업 갤러리들의 분관들이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한국은 상업 갤러리가 아닌 대안공간 성격의 미술전시장과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는 '문화교류공간' 을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다. 디렉터 한원석은 "한국 대중문화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순수 예술의 교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 관련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관전 <브러시 아워>(7. 28~8. 30)전은 객원큐레이터 김윤경이 함께 기획한 전시다. 참여작가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회화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트렌드와 비교적 구상 미술이 앞서는 중국 화풍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젊은 감성을 내세워 '이음' 의 색깔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음' 에서는 개관에 앞서 지난 5월 서진석, 김수현이 기획한 <바나나 서퍼>전(윤영석 임영선 문주 이음백 정연두 이종근 김기라 외 중국 작가 5명)을 열어, 한국과 중

국의 교류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 앞으로 '이음' 은 기획전, 영화제 개최는 물론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지던스 작가는 내년엔 열릴 따산즈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다. | 호정훈 기자



왼쪽 - 이음 전시장 내부 | 오른쪽 - 참여작가와 디렉터(한원석, 김성희) 및 스태프

Coverage Clipping

MEDIA	좋은 아침 (중국주재지)		
DATE	2005.08	SECTION	소식

August

북경현대의 6월 마감 실적 집계

현대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시장에 연이은 불풍을 일으키고 있다. 2005년 3월 집계에서 기록한 최고 판매대수인 890대를 갱신 2005.6월 다시 23,672대를 판매 하였다.

상반기 판매마감 상황을 보면 현대는 상해 GM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3위 광우 혼다, 4위 쉐닝웨이 및 5 위 상해 VW) 특히, 쏘나타, 엘란트라, 투싼 세 차종으로만 2위를 차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상해 GM 은 7 차종)

아반떼(중국시장명 엘란트라)는 승용차 전 차종 중 1위, 투싼(6월 16일 신차 발표)은 지난 15일 만에 M/S 5% (1,290대 판매)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북경현대는 2005.6월 판매실적으로 중국 자동차 업계로는 2년 6개월의 최단기간에 30만대 판매고를 달성하였다. 현대는 금년 하반기에 NP 쏘나타를 중국현지에서 생산하여 사관하기로 예정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는 동시에 판매 목표를 23만대(가중 20만대)로 상향 조정하여,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북경현대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고있다.

2006학년도 한국 대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특례입시) 계획

2006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특례입학) 계획을 다음과 같으니, 한국 각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특례입시)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내
 - 단, 12년 이상 외국교육과정 이수, 내국인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함.
- 대학별 모집인원
 - 151개 대학(외국인 전형만 실시하는 15개교 제외)에서 5,467명(국·공립대학 27개 대학 1,278명, 사립대학 124개 대학 4,189명)를 선발 예정
 - * 2006학년도 대학별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음.
- 모집인원 100명 이상 : 계명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연세대, 영남대 등 6개교
- 80~100명 미만 :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 60~80명 미만 : 서울대, 전북대, 성균관대, 이

화여대, 청주대, 한국외국어대 등 22개 대학

- 40~60명 미만 : 제주대, 남서울대, 동명정보대, 성신여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
- 20~40명 미만 : 서울산업대, 순천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서울여대, 용인대 등 42개 대학
- 20명 미만 : 한국고원대, 남부대, 삼육대, 을지여대, 포항공과대 등 50개 대학

3. 대학별 전형일차

- 2005.7.25 부터 2006.2.5 까지

■ 유의사항

- 이 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수록한 기본적인 것이므로, 대학 지원 시 해당 대학의 상담부서 전화변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세부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란다.
- 대학별·학과별 모집인원은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2006학년도 대학별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중국 베이징 예술 특구 파산즈(大山子) 798지역에 한국문화공간 '이음' 오픈

■ 교류공간 이음, 한국 최초 중국 진출 문화공간으로 7월 28일 오픈

■ 중국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예술 지역, 공장지대에서 예술공간으로의 변신, 최고 문화센터로 조명

■ 전세계 100여개 갤러리, 작가스튜디오 등과 성공적인 파산즈 페스티벌로 전세계 주목 집중

북경 예술 특구 지역에 중국 최초의 한국 문화공간 오픈

7월 중국 예술 특구 지역인 <파산즈798>지역에 한국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이음(Space iuum): 디렉터 한원석! 전 세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교류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이번이 오픈하는 교류공간 이음에서는 미술전시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공연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예술활동, 즉 문화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류공간 이음의 오픈 의미 :

이번 교류공간 이음의 오픈은 중국 예술 중심지에 한국의 문화공간이 처음으로 오픈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50여개)을 비롯하여

일본 갤러리(3개)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한국관련 문화시설은 전무하다. <파산즈798>이라는 문화 특구에 한국 문화공간 이음의 개관은, 북경올림픽을 즈음하여 한국 문화 홍보와 한류인향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문화의 수출과 전본시장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공간 이음의 디렉터 한원석 실장은 "한국 대중문화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순수 예술의 교류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관련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술 특구 지역인 파산즈 지역에 전 세계의 예술관련 종사자들과 접촉을 만들어 한국 예술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세계문화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국 교류공간 이음
주소: Da shan zi Art District No4# Jiu xian qiao Road Chao yang District Beijing 100015
전화: 86-10-8394-6664/86-1369-155-6354
한국총포 담당: 전해면 (0117-202-6850)



한원석 디렉터



이음 디렉터 한원석

좋은아침 87

MEDIA	JingHan (중국주재지)		
DATE	2005.08	SECTION	소식

중국 베이징 예술 특구 따산즈 798 지역에 한국문화공간 ‘이음’ 오픈



■ 교류공간 이음, 한국 최초 중국 진출 문화공간으로 7월 28일 오픈
 ■ 중국 정부가 승인한 유일한 예술 지역, 공장지대에서 예술공간으로의 변신, 최고 문화집중지대로 조망
 ■ 전세계 100여개 갤러리, 작가스튜디오 등과 상공적인 따산즈 페스티벌로 전세계 이목집중

■ 북경 예술 특구 지역에서 중국 최초의 한국 문화공간 오픈

오는 7월 28일 한국 최초로 중국 예술 특구 지역인 따산즈 798 지역에 문화공간이 탄생한다.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한국의 문화공간의 이름은 '교류공간 이음(Space ium: 디렉터 한원석)'으로 전 세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교류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교류공간 이음에서는 미술전시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공연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모든 예술활동, 즉 한류의 맥을 지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798 따산즈 지역은?

교류공간 이음이 자리하고 있는 따산즈 지역은 이전 중국의 유명한 공장 지대로 현재 전세계에서 100여개의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따산즈 지역은 유일하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서 공장들이 철거되고 그곳에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열면서 예술지역이 되기 시작했으며 2003

년 제 1회 따산즈 페스티벌을 계기로 유명해 진 예술 특구 지역이다.

현재 전세계 유명 갤러리와 예술 관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관광지로도 개발되어 해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몇몇 갤러리들은 본국에 큰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따산즈에 브랜치 갤러리를 내고 있다. 동경갤러리, 이탈리아 갤러리, 타이완 갤러리, 프랑스갤러리, 독일갤러리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갤러리 외에도 50여개 이상의 아티스트 스튜디오, 30여개의 바, 카페, 음식점, 가구 샵, 패션 샵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독특한 문화중심지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 교류공간 이음의 오픈 의의

이런 교류공간 이음의 오픈은 중국 예술 중심지에 한국의 문화공간이 처음으로 오픈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유럽(50여 개)을 비롯하여 일본 갤러리(3개)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한국관련 문화시설은 전무하다. 따산즈 798라는 문화 특구에 한국 문화공간 이음의 개관은, 북경 올림픽을 즈음하여 한국 문화 홍보와 한류 영향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한 시기에, 앞으로 한국문화의 수출과 전본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공간 이음의 디렉터 한원석 실장은 "한국 대중문화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순수 예술의 교류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관련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술 특구 지역인 따산즈 지역에서 전세계의 예술관련자들과 접점을 만들어 한국 예술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세계문화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국적의 문화공간임을 알리기 위한 오픈 전시 "브러시 아워 (Brush Hour)"

7월 28일 오픈을 맞아 한국의 구상미술을 이끌어 가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곶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브러시 아워' 전시를 진행 할 예정이다.

브러시 아워는 회화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브랜드와 구상주의 미술이 강한 중국에서 한국 각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획 전시로 진행된다. 오픈 이벤트로는 한국 영상작가의 필름도 상영될 예정이다.

■ 국내외 반응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 미술관계자들과 예술가들은 따산즈 798 지역에 한국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다. 중국 주재 유학생이나 기업인들도 예술의 중심지에 이음이 자리 잡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 유학생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로 중국 작가나 평론가, 교수들과도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회 따산즈 페스티벌에 '마나나 서퍼'라는 영상전시회를 통해 이미 한국 작가들의 역량을 알린바 있으며 세계 갤러리들이 담당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교류 공간 이음은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따산즈 페스티벌 참여와 미술 외에도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중국 교류공간 이음:
 전화: 86)10-9394-6664 / 1369-155-6354
 한국총부 담당: 전해연 (017-202-6850)

Coverage Clipping

MEDIA	아트 프라이스		
DATE	2005.08	SECTION	문화

Overseas 해외 _ 중국

중국 베이징에
한국 문화 공간 '이음' 오픈

Dashanzi Art District
No4# Jiuxiangqiao r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15

86-10-9394-6664 / 86-1369-155-6354
디렉터 한원석 017-767-8997
한국 홍보 담당 전해연 017-202-6850



이음 (Space ieu) 내부 전경



이음 (Space ieu) 내부 전경

오픈했다. '이음'은 전 세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산즈 페스티벌의 참여와 미술 이외에도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

다. 전세계에서 100여 개의 갤러리들이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예술 특구지역인 798 파산즈 중심지에 한국의 문화 공간 이음 (Space ieu)이

다. 개관기념전으로는 7월 28일부터 '브러시 아워'전이 진행중에 있으며, 구상미술을 이끌어가는 젊은작가를 중심으로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의 작품을 비롯, 영상작가의 필름도 상영되고 있다. 회화로 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 현대미술의 트렌드 및 구상주의 미술이 강한 중국에서 한국 작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전시는, 지난 4월에 열렸던 '배너나 서머'라는 파산즈 페스티벌에 이어 세계 갤러리들과 담당자들에게 한국 미술을 알릴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갤러리 측은 '이음의 오픈은 중국 예술 중심지에 한국 문화공간이 처음 자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과 맞물려 한국 문화 홍보 및 한국문화 수출과 건본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세계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age Clipping

MEDIA	SBS		
DATE	2005.08.07	SECTION	문화

중국, '모여서 하는 예술' 유행

SBS 기사입력 2005-08-07 21:25 · 최종수정 2005-08-07 21:25



<8뉴스><앵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했던 중국의 예술분야에 최근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작품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공동창작'이 그것입니다.

베이징, 김민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랑과 작가들의 작업실이 밀집해 있는 중국판 인사동 거리. 그러나 곳곳에 문화 혁명시대의 선홍 구호와 작품을 멈춘 기계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냉전시대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린/화랑 큐레이터 : 과거의 구호나 역사의 흔적과 현대 예술 작품이라는 서로 다른 시대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이 곳의 매력입니다.

] 10여년전부터 이곳을 찾기 시작한 예술가들이 지금은 200여명으로 늘어났고 갤러리도 40여곳에 이릅니다.

냉전 시대의 군수 공단이 중국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국 화랑도 등장했습니다.

[한원석/화랑 '이음'대표 : 세계의 다른 갤러리들과 다른 관광객들에게 우리 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율초에 문을 연 또다른 예술촌에도 100여명의 작가가 모였습니다.

[우리진/화가 : 시각과 청각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기/조선족 화가 : 우리의 문을 달으면 우리로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오픈해 놓으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함께 어울려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중국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overage Clipping

MEDIA	문화일보		
DATE	2005.08.01	SECTION	문화

베이징에 韓·中 미술교류공간 탄생

문화일보 기사입력 2005-08-01 13:44 최종수정 2005-08-01 13:44

(::지난달 28일 다산즈 미술특구에 '이름' 개관::)

중국 베이징의 다산즈(大山子) 789 예술 특구에 한국문화공간'

'이름'이 지난달 28일 문을 열었다.

베이징의 다산즈 789는 1950년대 독일 건축가가 설계한 공장지대

. 유리천장 등 근대식 건물이 밀집해있는 이 곳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작업실, 전시장이 생겨나면서 다산즈는 중국의 새로운 예술문화의 중심거리가 됐다.

이 지역에 현재 일본 이탈리아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갤러리뿐 비롯한 갤러리 100여개 외에 작가 작업실 및 30여개의 바·커피 음식점 가구숍 패션숍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다산즈 남단에 자리잡은 '이름'은 건축가 겸 미술작가 한원석씨가 한국 작가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복합문화공간.

베이징문화특구의 한국 문화공간 1호인 '이름'은 개관을 기념

하는 '브러시 아워'전을 내달말까지 연다. 구상주의 미술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 한국미술을 알리기 위한 기획이다. 출품작가는

극사실적 표현을 추구해온 김철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씨들 4명이다.

'이름' 한원석 실장은 "다산즈에는 50여개의 유럽 갤러리 및 3개의 일본갤러리가 들어서는데 전세계에서 예술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국미술을 널리 알리고 중국내 한류 열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앞으로 한국작가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년 들의 다산즈페스티벌(www.diaf.org)에 참가하는 한편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개막기념 기획전 외에 지난달 28일 '다산즈 한국단편영화페스티벌'을 개막. 노경태 감독의 '황생' 이윤정 감독의 '오 스위트 버진' 등 10편의 단편영화를 한달동안 상영한다. 중국연락처

86-10-8394-6664

Coverage Clipping

MEDIA	문화일보		
DATE	2005.08.01	SECTION	문화/p. 24

베이징에 韓·中 미술교류공간 탄생

지난달 28일 다산쯔 예술특구에 '이음' 개관

■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大山子) 789 예술특구에 한국문화공간 '이음' (사진)이 지난달 28일 문을 열었다.

베이징의 다산쯔 789는 1950년대 독일 건축가가 설계한 공장지대. 유리천장 등 근대식 건물이 밀집해있는 이곳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작업실, 전시장이 생겨나면서 다산쯔는 중국의 새로운 예술문화의 중심거리가 됐다.

이 지역에 현재 일본 이탈리아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국갤러리를 비롯한 갤러리 100여개 외에 작가 작업실 및 30여개의 바 카페 음식점 가구숍 패션숍 등이 자리잡고 있다.

다산쯔 남단에 자리잡은 '이음'은 건축가 겸 미술작가 한원석씨가 한국 작가를 현지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복합문화공간.

베이징문화특구의 한국 문화공간 1호인 '이음'은 개관을 기념하는 '브러시 아워'전을 내달말까지 연다. 구상주의 미술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 한국미술을 알리기 위한 기획이며, 출품작가는 극사실적 표현을 추구해온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씨등 4명이다.

'이음' 한원석 실장은 "다산쯔에



는 50여개의 유럽 갤러리 및 3개의 일본갤러리가 들어서는 등 전세계에서 예술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국미술을 널리 알리고 중국내 한류 열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앞으로 한국작가의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년 봄의 다산쯔페스티벌(www.diaf.org)에 참가하는 한편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도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개막기념 기획전 외에 지난달 28일 '다산쯔 한국단편영화페스티벌'을 개막, 노경태 감독의 '환생' 이운정 감독의 '오 스위트 버진' 등 10편의 단편영화를 한달동안 상영한다.

중국연락처 86-10-8394-6664

신세미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Time Our Beijing		
DATE	2005.08	SECTION	문화

The Knowledge

BEIJING'S BRILLIANT PARADE

My name is... Han Won Suk

My name is... Han Won Suk. He is a South Korean artist who has been living in Beijing for several years. He is known for his colorful and expressive street art. In this article, we explore his work and his experiences in Beijing.

My name is... Han Won Suk
He is a South Korean artist who has been living in Beijing for several years. He is known for his colorful and expressive street art. In this article, we explore his work and his experiences in Beijing.

My name is... Han Won Suk
He is a South Korean artist who has been living in Beijing for several years. He is known for his colorful and expressive street art. In this article, we explore his work and his experiences in Beijing.

My name is... Han Won Suk
He is a South Korean artist who has been living in Beijing for several years. He is known for his colorful and expressive street art. In this article, we explore his work and his experiences in Beijing.

Listing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Critics' Choice Art

The Wall
A collection of art by Chinese artists, exploring themes of identity and social commentary.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LISTING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rt with a mission
The WWF-Career Photo Exhibition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by Chinese photographers, showcasing their work and the impact of WWF conservation eff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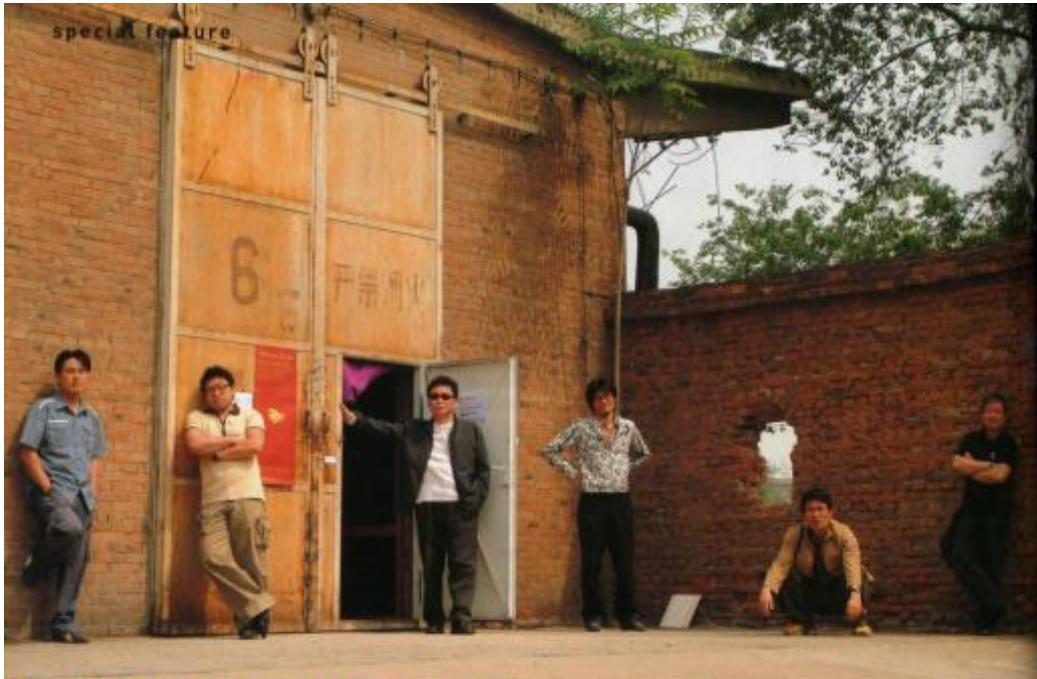
Coverage Clipping

MEDIA	Koco		
DATE	2005.08	SECTION	문화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미술	SECTION	기획
DATE	2005.07		



banana surfer

한국 현대미술의 전위대 798에 입성하다

이준희 * 본지 기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상하이와 함께 중국 현대미술의 양대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경직된 사회주의 분위기를 문화로 순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갤러리가 밀집한 북촌문화지구 798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갤러리가 오픈 했다. 이음갤러리가 그곳이다. 개관 기념전으로 열린 <바나나 서퍼 (Banana Surfer)전> (5.3~6.30 이음갤러리)을 현지취재 했다.

이음갤러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남부한 작업복 차림의 중국 노동자들이 여순령거리는 여수선한 공사장 분위기였다. (누가 보더라도 케오브) 중국 인부들 사이에서 큰 목소리로 그들을 제촉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광경은 과거 동독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공장지대였다는 798지의 그 어떤 첫 인상보다도 강렬하게 각인됐다. 오픈 전날까지 디스플레이를 마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인부들 속에서 소리치던 사람이 바로 이음갤러리 디렉터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리고 그를 통해 현지사정을 듣고서야 이런 모든 상황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798은 이렇듯 미완성의 현재진행형 생성공간이며, 동시에 중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가 베이징시 당국은 798의 이런 분위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치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으면 차별로 꽃을 피우는 문화와 예술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이 지역에 200개가 넘는 갤러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말이 허풍처럼만 들리지 않았다.

<바나나서퍼전>은 대안공간 루브 디렉터인 서진석과 중국 현지에서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김수현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졌다. 한국작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영선** <Power, Death Development> 상공채널 비디오 14분 2005 **이용백** <Abnormal> 상공채널 비디오 5분 2002 **황귀평** <에이징이 노스텔지아> 2005 **사오위** <I'm a Screw> 2005 **한학** 이미지 - 장민두의 작품이 설치된 이용백의 비문 앞에선 작가들. 왼쪽부터 이용백 김기라 윤영석 장민두 임영선 문주

7명(김기라, 문주, 이종근, 이용백, 윤영석, 임영선, 정연두)은 서진석이, 부부작가 1팀을 포함한 중국작가(왕귀평(王國鋒), 샤오이농(蕭逸農)&무첸(穆辰), 왕루옌(王魯炎), 허안(何岸), 사오위(蕭翌))는 김수현이 각각 선정된 것이다. 서진석은 중견과 젊은작가를 섞어 끌고온 안배였고, 김수현은 베이징을 무대로 활동하는 비교적 젊은 작가를 선정함으로써 양국 미술계의 단면을 폭넓게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서진석이 선정한 한국작가 구성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렸던 <unusually combination전> 참가작가와 거의 동일하다. 일본전시에 참여했던 권오상이 빠지고 정연두가 참여했다는 것만 다를 뿐 나머지 작가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전시 때는 일본작가와 함께 했고, 이번 전시엔 중국작가가 함께 전시한 것은 다르지만, 따라서 이 전시는 <unusually combination전>의 중국버전 전시로 읽혔다.

아시아적 감수성의 회복

지체자가 드나들던 창고로 쓰였다는 길이 56m, 폭 12m, 높이 8m 규모의 건물 일부를 개조한 이용백갤러리의 내부는 기본적인 조명과 전기시설만 갖추고 벽돌이 그대로 노출된 거친 공간이었다. 배그러운 화이트 큐브와는 전혀 다른 원초적인 힘과 육감적인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공간에 놓인 작품이 덩달아 싱싱해 보였다.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구 정면 벽엔 이종근의 작품 <위장>이 설치됐다. 단일한 사진을 반복해서 제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종근의 작품은 마치 벽지처럼 벽에 도배됐다. 이용백갤러리에서 유일하게 말끔하게 마무리된 이 벽은 이종근의 작품을 위해 전시오픈 전에 특별히 제작됐다. 한국에선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해치울수있는 그 일을 이곳에선 일부 예닐곱 명이 달려붙어 무려 사흘이나 걸려 완성됐다. 기자가 직접 지켜본 그 과정은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 노동자의 '만만디(慢慢地)' 정신을 보여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았다. 갤러리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윤영석의 <움직이는 고요>가 눈에 띈다. '움직임은 멈춤의 연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캔티플러 기법으로 농구공의 수직운동을 표현한 이 작품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옆에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비닐봉투에서 무지개 색을 포착한 사오이농과 무첸 부부의 <빨주노초과남보>라는 제목의 사진작업이 걸렸다. 마침 이들 부부의 전시(5.13~6.25 백해영갤러리)가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다. 이어서 전구와 스피커, 그리고 가구를 이용한 김기라의 작품이 설치됐다. 김기라는 1960~1970년대 유행하던 번안가요가 흘러나오는 이 작품으로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왕 루옌의 회화를 지나간 벽면에는 중국 작가 허안의 영상작품 <Imm>와 임영선, 이용백의 영상작업이 나란히 상영됐다. 특히 전문가와 광주항쟁을 재봉틀로



위 왼쪽 - 김기라 (government · customer · persons) 설치 2005 오른쪽 - 문주 (Truely Exhausted) 2005 아래 왼쪽 - 율영석 (물적이는 고요) 캔디콜라 아크릴 칠무이늘 70×80cm/각) 2005
오른쪽 - 이종근 (취장) 컴퓨터프린팅 430×325cm 2005

수(繡)놓는 장면이 오버랩되는 내용의 임영선 작품은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켜 중국인들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 벽면엔 삼륜 인력거를 타고 북경 뒷골목과 고층빌딩을 촬영한 영상을 실제 인력거에 설치한 왕귀평의 <베이징의 노스텔지어>와 고정된 나무를 촬영한 영상의 레이어(layer)를 조작해서 화면을 미세하게 떨리게 만든 문주의 <Twilight Landscape>가 설치됐다. 그리고 이음갤러리의 분관으로 사용될 다른 독립공간에 정연두의 <Truely Exhausted>가 따로 설치됐다.

서진석은 전시제목인 '바나나 서피'를 예로 들어 "한때 바나나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과일로 여겨졌었고, 그것은 곧 서구문물(문명)에 대한 선망과 열등감의 상징적인 이미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바나나는 그저 흔한 과일 중 하나로 여길 뿐 어느 누구도 그때처럼 특이한 존재나 유혹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다. 과거 아시아 국가가 서구를 바라보고 대하던 태도가 마치 바나나와도 같았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문화가 인류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하나일뿐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바나나껍질 밟고 미끄러질듯이 하듯 즐겁고 가볍게 교류하자는 의도를 담았다"고 이번 전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렇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작가가 자주 만나야하고 전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3국이 스스로 서구적 시각과 기준으로 재단하고 번역해온 과거의 짐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극복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 작가들의 '터미널' 혹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표방한 대안공간 루프의 미래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 그리고 2008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20년을 주기로 아시아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앞으로 열릴 것이다. 이것은 미술과는 관계없는 일인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과 국가보다는 도시가 앞서는 창조성, 그리고 체육행사뿐 아니라 예술과 겹치는 문화마케팅 전략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베이징 798지역의 활력이 올림픽을 앞둔 시기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품 현상'이 아니길 전심으로 바란다. ●

interview **이음갤러리 디렉터 한원석**

“만남과 교류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올해로 두번째 열린 DXAF 행사 기간 중 798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최초의 전시공간인 이음갤러리가 오픈했다. 이 갤러리의 디렉터인 한원석 씨를 만나서 만났다.

798지역에 갤러리를 운영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지난해 처음 열린 798 페스티벌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이곳을 잘 알고, 반대로 중국에서도 한국미술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곳에 한국의 갤러리가 생기면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미술의 파워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798은 내가 중국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여기와 한참 있다 보면 뉴욕이나 런던보다 훨씬 국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갤러리 디렉터 이전에 작가와 건축가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했고, 이후 영국에서 순수미술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2003년 7월에 서울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이브사이드에서 담배를 흡연이 불법한 작업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건축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다. 현재 나는 그림을 그리고, 건축설계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표현 수단의 차이일 뿐 두 영역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갤러리 디렉터는 나의 또 다른 도전이고 작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갤러리를 오픈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지난 798을 시행한다. 힘든 만큼 행복했고, 지금도 798이 있다는 것에 너무 만족한다.



중국 미술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중국은 차는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다. 다시 말해 그만큼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한다는 얘기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예술에 좋은 일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음갤러리를 통해 선보일 장단기 계획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지만, 일단 올해 안에 세 번의 전시를 더 보여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임설립 없는 전시를 하고 싶다. '이음'이라는 갤러리 이름처럼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meeting point'로서의 모습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강여 입지도 않고, 물들고 싶지도 않다. 항상 열려 있고 바야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시작의 장소가 되겠다. **중국=이음화·기자**

interview **파산즈 예술촌 촌장 황우이(黃銳)**

“여기가 중국 현대미술의 최전선이다”

베이징의 파산즈구에 위치한 옛 공장지대 798번지는 지금 작가들의 창작공간이 뜨겁다. 노동자의 만나기 전 공장이 이제는 미술의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798예술인연합촌 촌장인 황우이(黃銳)를 만나 이곳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신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나는 현대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이면서 전시기획자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에는 파산즈 예술구 내의 환경과 건축물 모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해 그리고 파산즈 예술구 지역의 전체적인 조화, 외형적 기법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곳 파산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파산즈 예술구는 베이징에서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베이징에 존재하던 예술가촌인 동촌, 동명원은 사라지고 현재는 순주안, 톱우우 사이오웨이만이 남아있다. 파산즈 예술구는 재차년 가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2년이 채 안되었지만 다른 예술구나 예술가촌과 비교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파산즈 798의 국제성이고 둘째는 개방성이다. 셋째는 사회성이 되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파산즈 798예술구가 전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화랑과 갤러리가 밀집하는 작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 중국에서 현대미술을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파산즈 작가들이 갖는 특징이라면?
 내가 보기엔 파산즈 작가라고 해서 다른 곳의 작가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작가는 어떤 환경에도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속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강건이다. 따라서 파산즈에 있는 예술가들은 파산즈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영향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문화와 전통을 수용하는데는 나만의 문제인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과 율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하겠다.

파산즈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바로 현재의 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 2년이란 짧은 시기에 우리는 많이 노력했다. 그 내용으로 첫째는 예술구의 존재를 보호했고, 둘째는 예술과 관련된 기구, 예술가가 생활하는 공간, 작업공간을 보호했고, 셋째는 그러한 것들의 보호를 위해, 각자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작업환경을 위해, 조화롭고 적합한 시대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 왔다.

현재 국제적 관심을 받는 중국 작가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중국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 중국 현대미술 작가들은 중국 내에서 우류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중국 내 현대미술 작가들이 고전



하고 있을 때, 수입과 같은 이들은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의 비평을 중국이 대안 외부에 두었다. 즉 작품을 표현하고 작품 판매의 활로가 외국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작품을 하면,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과연 중국인지 궁금해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서양미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중국 내 작가군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파산즈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베이징은 매우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의 변화도 매우 빨라서 우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후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지 모르고 그것에 대비한 생존전략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파산즈 지역의 개발 문제, 지역의 이주문제가 늘 도시라고 있다. 당장 3년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해 우리들의 생존보호이고, 둘째는 전체 도시의 발전과 도시권에 발생하는 문제를 서로 침묵시키고, 교류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더 새롭고 신선한 예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우이·기자/김수현·번역**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05.07.28	SECTION	문화

[미술단신] 덕수궁미술관, 신한카드 제휴 外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5-07-28 18:27 | 최종수정 2005-07-28 18:27 기사원문



- 덕수궁미술관, 신한카드 제휴 -

덕수궁미술관(관장 정준모)은 신한카드(사장 홍성균)와 '아름다운카드' 고객이 포인트와 신용카드 결제로 이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덕수궁미술관에 기부하기를 원하는 카드 고객은 신한카드의 기부 전용 사이트인 아름인(www.arumin.co.kr)에 접속해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카드로 직접 결제해 기부할 수 있다.

- 베이징 예술특구에 한국관 개관 -

중국 베이징의 예술특구 지역인 따산즈 798 지역에 한국의 문화공간인 '이음'(사진)이 28일 문을 열었다. 중국의 유명한 공장지역이었다가 예술지역으로 바뀐 이곳엔 유럽과 일본의 화랑 100곳이 밀집해 전 세계 미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관전으로 김성수·박민준·신영미·오정일씨 등 젊은 구상작가들이 펼치는 '브러시아워'전이 열린다. 디렉터 한원석, 86-10-9394-6664

- 서양화가 박순옥씨 첫 개인전 -

서양화가 박순옥씨가 8월 3~9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포토하우스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 작품은 유화물감으로 그린 조각보. 작가는 조각보 그림만 10년 간 그려왔다. 천을 꿰맨 조각보 작품은 많지만 유화로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졸업. (02)722-9883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SECTION	문화
DATE	2005.07.28		

미술단신 →

덕수궁미술관- 신한카드 제휴

덕수궁미술관(관장 정준모)은 신한카드(사장 홍성균)와 '아름다운카드' 고객이 포인트와 신용카드 결제로 이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덕수궁미술관에 기부하기를 원하는 카드 고객은 신한카드의 기부 전용 사이트인 아루미(www.arumin.co.kr)에 접속해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카드로 직접 결제해 기부할 수 있다.

베이징 예술특구에 한국관 개관



중국 베이징의 예술특구 지역인 파산즈 798 지역에 한국의 문화공간인 '이음'(사진)이 28일 문을 열었다. 중국의 유명한 공장지역이었다가 예술지역으로 바뀐 이곳엔 유럽과 일본의 화랑 100곳이 밀집해 전 세계 미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관점으로 김성수·박민준·신영미·오정일씨 등 젊은 구상작가들이 펼치는 '브러시아워'전이 열린다. 디렉터 한원석, 86-10-9394-6664

서양화가 박순옥씨 첫 개인전

서양화가 박순옥씨가 8월 3~9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포토하우스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 작품은 유화물감으로 그린 조각보. 작가는 조각보 그림만 10년 간 그려왔다. 천을 꿰맨 조각보 작품은 많지만 유화로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졸업. (02)722-9883

Coverage Clipping

MEDIA	서울경제	SECTION	문화
DATE	2005.07.27		

베이징 예술특구에 한국문화공간 첫선

'교류공간 이음' 내일 오픈

중국 예술특구 지역인 베이징 파산즈(大山子)에 한국문화공간이 처음으로 들어선다.

'교류공간 이음' (Space Ieum)이라는 한국어와 영문간판이름으로 오는 28일 그랜드 오픈을 맞으며 기념전으로 '브러시 아워'라는 전시와 더불어 한국 영상전을 연다.

파산즈 지역은 한때 중국의 유명한 공장 지대였지만 지난 5년전부터 갤러리와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미국 영국 등 전세계에서 100여개 갤러리(유립 50여개)들이 자리잡으면서 세

계 유명 예술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교류공간 이음의 디렉터 한원석 실장은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한국의 순수예술 분야의 교류공간이 필요하여 만들게 됐다"면서 "중국 문화특구에 한국공간이 탄생함으로써 순수예술의 한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음에서는 미술전시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공연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예술활동, 즉 한류의 패을 지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픈 이벤트로는 한국 영상작가의 필름도 상영될 예정이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



지난 4월 제2회 파산즈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영상전시회 '바나나 서퍼' 전경.

Coverage Clipping

MEDIA	KBS 수요일기획		
DATE	2005.07	SECTION	TV 방송



MEDIA	동북저널 (중국주재신문)		
DATE	2005.07.25~7.31	SECTION	네트워크차이나 B2

네트워크 차이나

B2 전화 : (010) 6232 - 3702 **베이징통신** 2005년 7월 25일 ~ 2005년 7월 31일



www.ieumgallery.com

교류공간 '이음', 베이징 예술 특구 798지역에 오픈

7월 28일 오픈 전시




는 교류공간을 의미한다. 이번엔 오픈되는 교류공간 이음에서는 미술전시뿐만 아니라 영상, 퍼포먼스, 공연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예술활동, 즉 한류의 역을 지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베이징올림픽에 즈음하여 정통 한국문화 홍보와 한류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차 때 마침 들어선 '이음'은 앞으로 한국문화의 수출에 있어 견본시장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종합적인 현지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공간 이음의 디렉터 한원석 실장은 "한국 대중문화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순수예술의 교류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 하

나인 중국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관련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술 특구 지역인 파산즈 지역에 서 전 세계의 예술관련자들과 집결을 만들어 한국 예술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세계문화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음'에서는 우선 28일 오후를 맞아 한국의 구상미술을 이끌어 가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등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브러시아워 (Brush Hour)' 전시가 열 예정이다.

브러시아워는 회화로서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트렌드와 구상주의 미술이 강한 중국에서 한국 작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기획 전시이다. 오픈 이벤트로는 한국 영상작가의 발표도 상영될 예정이다.(전시 일시: 7. 28 - 8. 30)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 미술관계자들과 예술가들은 파산즈 798지역에 한국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다. 또 유학생이나 기업인들도 예술의 중심지에 '이음'이 자리 잡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작가나 평론가, 교수들과 유대를 쌓아갈 꿈을 꾸고 있다.

'이음'은 지난 4월 2회 파산즈 페스티벌에도 참가, '바나나 서퍼'라는 영상경시회를 통해 이미 한국 작가들의 역량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당시 세계 갤러리 담당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음'은 앞으로 파산즈 페스티벌 참여는 물론 미술 외에도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가져갈 예정이다.

◆ 파산즈 798 지역은... 교류공간 이음이 자리하고 있는 파산즈 798지역은 이집 중국의 유명한 공장지대로, 현재 전 세계 100여 개의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있던 공장들이 철거되고 그곳에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열면서 예술지역이 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제 1회 파산즈 페스티벌을 계기로 유명해진 예술 특구 지역이다.

현재 전세계 유명 갤러리들과 예술 관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관광지로도 개발되어 해마다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몇몇 갤러리들은 본국에 큰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파산즈에 브랜치 갤러리들을 내고 있다. 현재 갤러리 외에도 50여 개 이상의 아티스트 스튜디오, 30여 개의 바, 카페, 음식점, 가구 샵, 패션 샵 등이 자리잡고 있어 독특한 문화중심지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전화 : 010-8394-6664
1339-196-1501
www.ieum.org.co

Coverage Clipping

MEDIA	조선일보		
DATE	2005.07.21	SECTION	인물

제26305호 **조선일보**

“한국 순수예술 中 진출 교두보 마련”

베이징에 갤러리 ‘이음’ 연 설치작가 한원석씨



현재 세계 미술관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곳은 중국. 그중에서도 베이징의 ‘다산쯔’(大山子) 지역은 젊고 실험적인 미술 작품이 속속 탄생하는 현장이다. 한때 무

기 공장이 있던 공간에 젊은 작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작업실과 전시장이 생겨났다.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려던 중국 정부도 이 지역을 예술특구로 지정했다고 한다. 경쟁적으로 중국 작가 집기에 나선 프랑

스 독일 일본 등 외국 갤러리들이 50여 군데나 진출해 있는 ‘다산쯔’에 최근 한국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이음’. 대표인 설치작가 겸 건축가 한원석(34)씨다.

“처음에는 작업실용으로 300평 규모의 공간을 빌렸지만 중국에 한국 작가를 본격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갤러리를 열기로 했지요.” 28일부터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등 한국 화단에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화가를 모아 개관전도 연다. 중국에서 당장 한국 작품이 돌풍을 일으키며 팔려나가지는 않겠지만 베이징은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기에 좋은 장소다. “다산쯔는 ‘세계의 인사동’”이라고 말한 한씨는 “이곳에 있으면 테이트 모던 미술관 큐레이터부터 리버풀



비엔날레 총감독까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담배꽂초 수천개로 만든 설치작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한씨는 중국 상하이 호텔 설계 경험이 있고 현재 베이징에서 건축 사무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류를 타고 중국 어디서나 한국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는 있으나 순수예술을 소개하는 무대는 없다”며 “베이징 올림픽 시작 전까지 갤러리 ‘이음’을 한국문화센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글=정재연기자 (블로그)whauden.chosun.com
사진=이기원기자 (블로그)kiwiyl.chosun.com

Coverage Clipping

MEDIA	조선일보		
DATE	2005.07.20	SECTION	인물

"한국 순수예술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베이징에 갤러리 '이음' 연 설치작가 한원석씨

글=정재연기자 whauden@chosun.com

사진=이기원기자 kiwiyl@chosun.com

입력 : 2005.07.20 18:36 / 수정 : 2005.07.20 18:36

현대 미술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중국. 그중에서도 베이징의 '따산즈 798' 지역은 가장 실험적인 작품이 속속 탄생하는 현장이다. 한때 거대한 무기생산 공장이 서 있던 폐허에 젊은 작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작업실과 대안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한때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려던 중국 정부도 이 지역을 예술특구로 지정했다. 중국 작가 잡기에 나선 프랑스 독일 등 외국 갤러리들이 50여곳 이상 진출해 있는 '따산즈 798'에 최근 한국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갤러리 이름은 '이음'. 설치작가 겸 건축가 한원석(34)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 작업실용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30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 받았지만 중국 무대에 한국 작가를 본격 소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갤러리를 열기로 했지요." 28일 시작하는 개관 전시에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등 한국에서 막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참가한다. "어려서부터 붓을 잡고 자란 만큼 회화의 힘이 더욱 강력한 중국 미술판에 한국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씨는 "따산즈는 세계의 인사동"이라며 "이곳에 있으면 테이트 모던 미술관 큐레이터부터 리버풀 비엔날레 총감독까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담배공초 수천개로 만든 설치작품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기도 했던 한씨는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어디서나 한국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는 있으나 순수예술을 소개하는 창구가 없다"며 "베이징 올림픽 시작 전까지 갤러리 '이음'을 한국문화센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원석 설치작가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05.07.21	SECTION	문화

중국 베이징에 한국 최초 문화교류공간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5-07-21 15:29 | 최종수정 2005-07-21 15:29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세계 미술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미술판에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사설 문화공간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설치미술가 겸 건축가로 활동중인 한원석(35) 씨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음'이 문을 연 곳은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다산쯔(大山子)798 예술특구'.

이 곳은 과거 공장 지대로 유명했던 지역으로 공장들이 철거되면서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 들어 현재 100여 개의 갤러리와 170여 개의 스튜디오 및 디자인사무실들이 몰려 있다.

이들 갤러리 중 유럽 국가들의 갤러리가 50여 개이며 일본도 3개 갤러리를 냈다.

탄탄한 전통 회화기법을 토대로 독창적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중국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의 갤러리들이 앞다퉈 중국 현지에 진출하면서 상하이에도 이와 유사한 예술지역이 형성돼 있다.

국내 미술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현지에 분점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몰타진중인 국내 갤러리들도 늘고 있다.

한씨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인 중국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이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비영리 문화 교류 공간을 열게 됐다"며 "다산쯔에 몰려 있는 전세계 미술관계자들과 교류해 한국 작가와 작품을 알리고 세계문화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음의 개관전은 '브러시 아워'(Brush Hour)라는 제목으로 28일 시작해 8월 30일까지 펼쳐진다. 출품작은 김성수(36), 박민준(34), 오정일(33), 신영미(26)씨 등 4명의 작품 30여 점. 회화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국제 미술계의 흐름에 맞춰 구상 회화가 강세인 중국에 우리 구상 회화 작가들의 저력을 알리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씨는 "지난 4월 제 2회 다산쯔 페스티벌에서 '바나나 서퍼'라는 영상전시회를 선보여 외국 갤러리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영화,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2년 전 달배공초를 촘촘히 붙여 만든 화려한 꽃 이미지 등을 전시한 '약의 꽃'이란 개인전을 통해 소비문화의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독성을 드러냈다는 평을 얻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MORI ART MUSEUM		
DATE	2004.05	SECTION	전시

ILYA AND EMILIA KABAKOV:
イリヤ&エミリア・カバコフ展「私たちの場所はどこ？」

WHERE IS OUR PLACE?

2004年5月29日(土) - 7月19日(月・祝)
森美術館 丸の内本丸ビル2F-32号

29 May - 19 July, 2004
Mori Art Museum

MORI ART MUSEUM
www.mori-art-museum.jp

ILYA AND EMILIA KABAKOV:

WHERE IS OUR PLACE?

The Mori Art Museum presents an exhibition of new work by Ilya and Emilia Kabakov, New York based Russian artists whose unique narrative paintings and installations have captivated viewers all the corners of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Where is Our Place?" is a collaborative project that casts an eye on the artist's political, artistic and narrative work to explore the art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exhibition, which the Kabakovs call "every kind of identity," explores the stability of culture and the flexibility of history, in which the art is liberally transcended by the new. Working together, Ilya and Emilia Kabakov create a world in which the viewer is made to feel almost invisible in the ever place in which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森美術館はロシアの著名な芸術家イリヤ・カバコフ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の最新作品を展示する。ロシアを拠点とする二人は、国際的な現代美術界で最も注目されている作家の一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彼らは、政治的、芸術的、そして文化的な視点から、過去の芸術、現在の芸術、そして未来の芸術を探る。この展覧会、カバコフ夫妻が「あらゆる種類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呼ぶ、文化の安定性と歴史の柔軟性を探る。その中で、彼らの芸術は、新しい文化によって自由な形で超越される。イリヤ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は、観客が自分自身を歴史、アイデンティティ、そして文化の中でほとんど目立たないと感じさせるような場所を創り出す。

The Mori Art Museum presents an exhibition of new work by Ilya and Emilia Kabakov, New York based Russian artists whose unique narrative paintings and installations have captivated viewers all the corners of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Where is Our Place?" is a collaborative project that casts an eye on the artist's political, artistic and narrative work to explore the art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exhibition, which the Kabakovs call "every kind of identity," explores the stability of culture and the flexibility of history, in which the art is liberally transcended by the new. Working together, Ilya and Emilia Kabakov create a world in which the viewer is made to feel almost invisible in the ever place in which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森美術館はロシアの著名な芸術家イリヤ・カバコフ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の最新作品を展示する。ロシアを拠点とする二人は、国際的な現代美術界で最も注目されている作家の一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彼らは、政治的、芸術的、そして文化的な視点から、過去の芸術、現在の芸術、そして未来の芸術を探る。この展覧会、カバコフ夫妻が「あらゆる種類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呼ぶ、文化の安定性と歴史の柔軟性を探る。その中で、彼らの芸術は、新しい文化によって自由な形で超越される。イリヤ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は、観客が自分自身を歴史、アイデンティティ、そして文化の中でほとんど目立たないと感じさせるような場所を創り出す。

森美術館はロシアの著名な芸術家イリヤ・カバコフ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の最新作品を展示する。ロシアを拠点とする二人は、国際的な現代美術界で最も注目されている作家の一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彼らは、政治的、芸術的、そして文化的な視点から、過去の芸術、現在の芸術、そして未来の芸術を探る。この展覧会、カバコフ夫妻が「あらゆる種類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呼ぶ、文化の安定性と歴史の柔軟性を探る。その中で、彼らの芸術は、新しい文化によって自由な形で超越される。イリヤとエミリア・カバコフ夫妻は、観客が自分自身を歴史、アイデンティティ、そして文化の中でほとんど目立たないと感じさせるような場所を創り出す。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03.08.05	SECTION	문화

◇**꿈꾸는 오브제**展=이색적인 재료로 독특한 오브제를 선보이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오는 '꿈꾸는 오브제'전이 31일까지 서울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박지은은 입박봉대와 알약 등 의학재료를 이용해 질병과 치유라는 개념을 입체로 표현하며 한기창은 'X선 사진'이라는 독특한 오브제로 산수풍경, 아름다운 식물의 모습 등의 이미지를 재구성한다. 수만개의 담배꽂초라는 다소 불편한 재료로 아름다운 캔버스를 만드는 한원석의 작품도 볼 만하다.

이 밖에 수제 한지 작업을 하는 이영순, 종이를 이용한 퍼즐작업을 보여주는 정규리, 가는 국수를 재료로 커뮤니케이션 연작을 선보이는 조성묵, 지퍼 똑딱단추 못 등으로 관계에 대한 주제를 풀어가는 한짬마, 수건 털실 등으로 욕실 화장대 등 사적공간을 보여주는 김희경, 머리카락 용수철 같은 차가운 재료로 감성을 표현하는 함연주의 작품이 소개된다. 02-720-5114

Coverage Clipping

MEDIA	세계일보	SECTION	미술
DATE	2003.08.05		

일상과 미술 경계 허문 초현실주의 이후의 사조

★ '꿈꾸는 오브제'展 31일까지

담배꽂초와 알약, 국수와 지퍼, 콘센트와 벨트 등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미술 작품에 활용한 '꿈꾸는 오브제'전이 31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초현실주의 이후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 미술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다. 친근한 소재들을 통해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지하1층 전시장에는 생명과 환경을 소재로 한 박지은 한기창 한원석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지은은 압박붕대와 알약 등 메디컬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온 작가로, 질병과 치유라는 개념적 대립과 평면-입체의 조형적 대립이 작품 속에서 하나로 만난다. 한원석은 수만개의 담배꽂초를 캔버스에 꽂고 그 위에 채색을 함으로써 화려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시커멓게 타 들어간 꽂초를 통해 소비사회의 단면, 환경과 생명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1층에서는 이영순과 정규리가 종이라는 평이한 오브제를 활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색을 보여주고,



◇박지은, 'pill'(2003년)

2층에서는 조성묵과 한젼마가 각각 국수 작업과 지퍼 콘센트 벨트 등을 이용한 작업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조성묵은 가는 국수와 철제 안경의 이질적인 재료를 병치시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작품을 통해 소통과 부재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김희경은 수건이나 털실 등, 함연주는 머리카락이나 용수철 등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로 호기심과 정체성을 탐구한다.

/조용호기자 jhoy@segye.com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03.08.05	SECTION	문화

[전시]'공원 섬유 사람들展' 外

동아일보 기사원칙 2003-08-05 17:51 | 최종수정 2003-08-05 17:51

◇공원 섬유 사람들展=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이 공원과 미술관을 하나로 묶는 이색 전시를 한다. 30일까지 열리는 '공원 섬유 사람들'전은 시민의 문화 공간인 미술관과 여가 공간인 공원을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꾸며, 소비 공간으로 변해버린 대학로를 새롭게 만든다. 전시영어 제목 'Parking'은 '공원 만들기'라는 의미, 미술관 내 전시장은 물론 외벽과 입구, 계단과 사무실 출입구 모두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공원 담벼락에 불과하던 미술관 벽면을 대형 캔버스로 탈바꿈 시킨다. 미술관 내부에는 자연광을 이용해 인공공원을 만들어 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원 움직임을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게 했다. 미술관 측은 23일 바람직한 문화공원 모델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한다. 02-760-4605~6.

◇갈릴구의 캐리커처로 해석된 얼굴, 얼굴, 얼굴展=전 형적 대동경을 포함해 선글라스를 쓴 김경일, 강디, 마오쩌둥, 레닌, 당사오밍, 찰스 황태자 등 국내외 유명 인사 캐리커처 500여점이 나오는 '갈릴구의 캐리커처로 해석된 얼굴, 얼굴, 얼굴'전이 14일~9월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강씨는 특히 지점토로 얼굴을 빚고 커피로 농담을 조절한 조소 캐리커처 50여점을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밖에 달배출 문 소피아 로렌, 클린트 이스트우드, 브루스 윌리스, 마릴린 먼로, 윌버리너, 오드리 헵번, 엘비스 프레슬리 등 해외 유명 연예인들과 축구선수 펠레, 이천수 등의 얼굴도 보인다. 02-399-1165~7.

◇사실과 이면展=추상·설치·영상이 현대 미술의 주류처럼 인식되는 한 가운데서 국립현대 미술관이 우리나라 극 사실주의 계열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전시를 한다. 제5전시실에서 내년 2월15일까지 열리는 '사실과 이면'전에는 고영훈, 김강용, 김형영, 김홍주, 변종근, 이석주, 주태석, 지석철, 한만영 등 극사실주의 계열 작가 8명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인다. 마치 실물이나 사진처럼 보는 듯한 느낌으로 70년대 화단을 풍미했던 극사실주의 화풍을 알릴 수 있다. 모래 사장이나 자갈밭, 바위 혹은 기차길과 같은 서정적 자연 풍경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 02-2168-6000

◇공구는 오브제展=이색적인 재료로 독특한 오브제를 선보이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오는 '공구는 오브제'전이 31일까지 서울 시간동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박지은은 압박병대와 알약 등 의학재료를 이용해 질병과 치유라는 개념을 인체로 표현하며 한기창은 'X선 사진'이라는 독특한 오브제로 산수풍경, 아름다운 식물의 모습 등의 이미지를 재구성한다. 수만개의 담배꽂이라는 다소 불편한 재료로 아름다운 캔버스를 만드는 한원석의 작품도 볼만하다.

이밖에 수채 한지 작업을 하는 이영준, 종이로 이용한 퍼즐작업을 보여주는 정규리, 가는 국수를 재료로 커뮤니케이션 연작을 선보이는 조성목, 지퍼 폭탄단추 못 등으로 관계에 대한 주제를 풀어가는 한점마, 수건 달실 등으로 욕실 화장대 등 사적공간을 보여주는 김희경, 머리카락 통수철 같은 차가운 재료로 감성을 표현하는 황연주씨 작품이 소개된다. 02-720-5114.

◇이정은 개인展=생명 탄생과 진화, 종의 소멸과 새로운 환경의 흔적들을 공간에 만들어 내는 이정은씨가 서울 소격동 금산갤러리에서 7일~16일 개인전을 갖는다. 02-735-6317.

◇불쪽으로 지은 미술관 이벤트=미술품 경매회사 서울 옥션이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불쪽으로 지은 미술관' 행사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의 지능과 상상개발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불쪽향기 놀이를 미술과 접목시킨 이색 이벤트. 오는 24일까지 서울 평창동 서울옥션 건물 옆 전시장 'A+Space'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02-395-0330.

Coverage Clipping

MEDIA	세계일보		
DATE	2003.08.04	SECTION	문화

[미술]일상과 미술 경계 허문 초현실주의 이후의 사조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3-08-04 17:06 | 최종수정 2003-08-04 17:06

담배꽂초와 알약, 국수와 지퍼, 콘센트와 벨트 등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미술 작품에 활용한 "꿈꾸는 오브제"전이 31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초현실주의 이후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 미술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다. 친근한 소재들을 통해 일상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지하1층 전시장에는 생명과 환경을 소재로 한 박지은 한기창 한원석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지은은 압박붕대와 알약 등 메디컬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온 작가로, 질병과 치유라는 개념적 대립과 평면-입체의 조형적 대립이 작품 속에서 하나로 만난다. 한원석은 수만개의 담배꽂초를 캔버스에 꽂고 그 위에 채색을 함으로써 화려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시커멓게 타 들어간 꽂초를 통해 소비사회의 단면, 환경과 생명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1층에서는 이영순과 정규리가 종이라는 평이한 오브제를 활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색을 보여주고, 2층에서는 조성묵과 한젼마가 각각 국수 작업과 지퍼 콘센트 벨트 등을 이용한 작업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조성묵은 가는 국수와 철재 안경의 이질적인 재료를 병치시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작품을 통해 소통과 부재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밖에도 김희경은 수건이나 털실 등, 함연주는 머리카락이나 용수철 등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로 호기심과 정체성을 탐구한다. /조용호기자 jho@segye.com

Coverage Clipping

MEDIA	조선일보		
DATE	2003.07.30	SECTION	미술

입체 설치작 '꿈꾸는 오브제'展

'꿈꾸는 오브제'는 말 그대로 오브제가 주인공이 되는 전시다. 회화와 조각의 중간쯤에 있는 입체 설치작품인 오브제는 한국 화단에서는 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 박지은·한기창·한원석씨는 알약·X선 사진·담배꽂초 등 오브제를 이용해 질병과 치유, 생명과 죽음,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영순·정규리씨의 주요 소재는 종이다. 김희경씨는 수건을, 함연주씨는 머리카락을 이용하며 조성목·한젼마씨는 각각 국수 가락과 지퍼·벨트 등 레디 메이드를 도입한 오브제 작품을 선보인다.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호미술관. (02)720-5114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03.07.16	SECTION	문화



관훈동 갤러리 아트사이드, 한원석의 '자화상'

◇'악의 꽃-한원석'展=런던에서 활동하는 화가 한원석씨는 '악의 꽃-한원석'전을 21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연다. 그의 작품은 화면에 담배공초를 촘촘히 채운 뒤 필터 부분은 고운 빛깔로 물들인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노란색의 화려한 꽃 그림인 '돼지꽃'은 1만7196개의 담배공초로 이뤄진 작품. 작품 앞면은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만, 뒷면은 시커먼 공초의 집합일 뿐이다. 필터와 공초의 질감이 잘 어우러진 '소멸'이나 '흔적' 등의 작품은 관객들을 철학적 상상으로 인도한다. 작가는 "단 몇 분 만에 구겨지고 짓밟히는 담배공초의 인스턴트 운명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공초를 재료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02-725-1020

Coverage Clipping

MEDIA	동아일보		
DATE	2003.07.15	SECTION	문화

[전시]'플리즈, 비 콰이어트展' 외

🌐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3-07-15 18:33 | 최종수정 2003-07-15 18:33

◇'플리즈, 비 콰이어트'展—30,40대 작가 8명이 '내면적 성찰'을 주제로 한 '플리즈, 비 콰이어트 (Please, be quiet)' 전을 8월1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연다. 젊은 작가들은 관람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감성적이고 고요한 분위기를 코드로 삼아 평면, 조각, 설치, 영상이 어우러진 전시회를 꾸렸다. 임만혁, 원혜연은 인물화를 통해 인간의 어둡고 소외된 일면을 들춰내며, 키 5m 청년을 공중에 떠 있도록 설치한 이환권의 작품은 의심하지 않고 사는 현실에 대한 묘한 이질감을 불러 일으킨다. 폐기된 나무서랍이나 책장을 뜯어 다시 조립해 만든 차경화의 '공간'은 작가가 기억과 무의식이 포함된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엿보게 한다. 02-747-4678

◇'악의 꽃-한원석'展—런던에서 활동하는 화가 한원석씨는 '악의 꽃-한원석'전을 21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연다. 그의 작품은 화판에 담배공초를 촘촘히 채운 뒤 필터 부분은 고운 빛깔로 물들인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화판의 앞쪽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반대쪽은 까맣게 타버린 공초들이다. 노란색의 화려한 꽃 그림인 '돼지꽃'은 1만7196개의 담배공초로 이뤄진 작품. 작품 앞면은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만, 뒷면은 시커먼 공초의 집합일 뿐이다. 필터와 공초의 질감이 잘 어우러진 '소멸'이나 '흔적' 등의 작품의 경우 관객들을 철학적 상상으로 인도한다. 작가는 "단 몇 분만에 구겨지고 짓밟히는 담배공초의 인스턴트 운명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공초를 재료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02-725-1020

Coverage Clipping

MEDIA	YTN		
DATE	2003.07.13	SECTION	연예

꽃가루와 담배꽂초의 미학

YTN 기사입력 2003-07-13 10:12 | 최종수정 2003-07-13 10:12

[앵커멘트]

꽃가루나 밀랍으로 작품을 만들어 온 독일 작가 '볼프강 라이프'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담배꽂초 수십만개를 모아 인간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원석씨의 개인전도 마련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볼프강 라이프]

헤이즐넛의 노란색 꽃가루가 네모난 꼴로 향했습니다.

작가 볼프강 라이프가 직접 모아 빚은 작품입니다.

'동로-이행'이라는 신작은 나무를 위에 밀랍으로 빚은 배 7척을 올려놓은 것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소용돌이를 떠올려줍니다.

이처럼 꽃가루와 쌀, 밀랍, 대리석 등으로 만든 여러 형상의 조형물은 대부분 자연의 성장과 변화의 반복 또는 순환을 은유합니다.

[인터뷰:볼프강 라이프] "단순히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육체에서 정신으로의 여행을 뜻합니다"

이번 볼프강 라이프의 국내 첫 개인전은 지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창작한 조각과 설치, 사진, 회화 등 모두 53점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원석 '악의 꽃'전]

활활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오브제 작품.

가까이 다가가면 모자이크처럼 촘촘히 모인 담배꽂초가 젊은 작가 한원석씨의 오브제작품에는 쓰레기일 뿐인 꽂초가 불과 꽃, 웃음 등 아름다움과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그러나 작품들의 뒷 면을 보면 추한 꽂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뷰:한원석 화가] "꽂초 하나는 바로 인간 한명입니다. 그 꽂초에 담배를 피운 사람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한원석씨는 앞으로 삶과 죽음, 쾌락과 질병의 양면성,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담배꽂초로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주간동아	SECTION	문화
DATE	2003.07.10		

꽂초가 재료 '담배작가' 한원석



젊은 작가 한원석씨(33사진)의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담배연기가 코를 찌른다. 작업실의 사방에 걸린 '그림'은 꽃이나 한반도 지도, 작가의 자화상 등. 그러나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 흠칫 놀라게 된다. 이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라 수만여 개의 담배꽂초를 뿔뿔하게 붙이고 그 위에 색을 입힌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한씨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배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꽂초를 모아야 하니깐요. 주로 공항이나 병원 같은 데 가서 꽂초를 주워요. 동네 분들이 모았다가 쳐다 주시기도 하죠. 모은 꽂초를 쌓아서 부조처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색깔을 입히죠. 한 작품 하는 데 대략 서너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한씨는 7월2일부터 21일까지 인사동의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20여점의 '담배 조각'을 선보인다. 전시작 중 그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꽃을 그린 가로 2m, 세로 2m의 대작으로 10만개의 꽂초를 붙여 만들었다.

한씨는 자신의 작품을 다만 '금연'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물론 그 같은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씨가 담배꽂초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앞과 뒤가 다를 뿐더러 보는 이의 후각까지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담배로 만든 작품은 멀리서 보면 꼭 파스텔로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담배꽂초들의 윤곽이 입체적으로 드러나죠. 또 작품 뒤편을 보면 타다 만 필터들이 보이고요. 거기다 자극적인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관객에게 일종의 '쇼크'를 통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잡아 수십만 개의 꽂초가 사용된 이번 전시 제목은 '악의 꽃'. 참으로 의미심장한 제목이 아닐 수 없다. (02-725-1020) (끝)

Coverage Clipping

MEDIA	한국경제		
DATE	2003.07.09	SECTION	문화



버려진 담배꽂초, 美를 빚어내다

아트사이드 한원석 개인전

서울 관훈동 아트사이드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는 한원석씨(33·사진)의 작품 소재는 담배꽂초다.

작품마다 보통 1만개가 넘는 꽂초를 본드를 이용해 뼈곡이 붙인 후 금테를 두른 액자로 처리한 오브제 작품이다.

물감을 칠한 꽂초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나 꽃의 이미지로 바뀌어 평면회화처럼 보인다. 쓰레기일 뿐인 꽂초가 여인이나 꽃의 아름다움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뒷면을 보면 피운 후 내다 버린 꽂초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담배는 흡연자에게 5분 정도의 '쾌락'을 제공한

후 쓰레기로 변한다. 한씨는 "현대인은 소비문화의 쾌락을 쫓고 있지만 담배 꽂초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인스턴트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꽂초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다는 게 작가의 의도다.

재료로 사용한 7만여개의 담배 꽂초는 인천공항, 런던 히드로공항, 도쿄 간사이공항 등 세 곳에서 수집했다고 한다. 작가는 다음 개인전에서 꽂초로 지은 집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니코틴 냄새가 진동, 금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런던 켈시대학원에서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현재 도쿄대 건축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1일까지. (02)725-1020

MEDIA	중앙일보	SECTION	문화
DATE	2003.07.09		

담배꽂초, 그것은 '악의 꽃'

영국서 활동 화가 한원석씨 개인전 열어

“흡연자 한 명이 10년간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대략 7만3천개의 담배꽂초가 생기죠. 이 정도면 약 2㎡ 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화가 한원석(韓沅錫·32)씨가 지난 2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담배꽂초를 모아 만든 작품으로 '악의 꽃-한원석'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된 韓씨의 작품들은 화관에 촘촘히 담배꽂초를 채운 다음, 필터 쪽을 고운 빛깔로 물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림 반대 쪽은 까맣게 타버린 꽂초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작품 뒷면에는 시커먼 잿덩어리를 매단 무수한 꽂초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전시작 중 하나인 '돼지꽃'은 멀리서 보면 붉고 노란색의 화려한 꽃 그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려 1만7천1백96개의 담배꽂초로 이뤄져 있다.

이 밖에도 韓씨는 흰 필터 부분과 검은 재 부분을 교차시켜 흑백의 한반도 지도와 자화상 등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韓씨는 담배꽂초로 작품을 만드는



담배꽂초를 이용해 전시회를 여는 한원석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유에 대해 작품을 통해 단순히 흡연의 위험이나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기와 함께 쾌락을 주지만 단 5분 만에 구겨지고 짓밟히는 담배꽂초의 ‘인스턴트 운명’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죠. 또 수북이 쌓인 담배꽂초를 통해 쾌락만을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병폐도 지적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다시 둘러보면 ‘흔적’ ‘소멸’ 등의 작품명이 예사롭지 않다.

영감을 주기에 사소해 보이는 담배

꽂초가 韓씨에게는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 희생해가면서 저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을 금연 캠페인의 하나로 보는 것을 사양한다는 韓씨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작품에 도움을 준 흡연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노예가 되고 개인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Coverage Clipping

MEDIA	중앙일보	SECTION	문화
DATE	2003.07.09		

담배꽂초, 그것은 '악의 꽃'

[중앙일보] 입력 2003.07.08 18:54 / 수정 2003.07.09 08:19

영국서 활동 화가 한원석씨 개인전 열어



담배꽂초를 이용해 전시회를 여는 한원석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흡연자 한 명이 10년간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대략 7만3천개의 담배꽂초가 생기죠. 이 정도면 약 2㎡ 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화가 한원석(韓沅錫, 32)씨가 지난 2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담배꽂초를 모아 만든 작품으로 '악의 꽃-한원석'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된 韓씨의 작품들은 화판에 촘촘히 담배꽂초를 채운 다음, 필터 쪽을 고온 빛깔로 물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림 반대 쪽은 까맣게 타버린 꽂초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작품 뒷면에는 시커먼 잿덩어리를 매단 무수한 꽂초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전시작 중 하나인 '돼지꽃'은 멀리서 보면 붉고 노란색의 화려한 꽃 그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려 1만7천1백96개의 담배꽂초로 이뤄져 있다.

이 밖에도 韓씨는 흰 필터 부분과 검은 재 부분을 교차시켜 흑백의 한반도 지도와 자화상 등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韓씨는 담배꽂초로 작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작품을 통해 단순히 흡연의 위험이나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기와 함께 쾌락을 주지만 단 5분 만에 구겨지고 짓밟히는 담배꽂초의 '인스턴트 운명'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죠. 또 수북이 쌓인 담배꽂초를 통해 쾌락만을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병폐도 지적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다시 둘러보면 '흔적' '소멸' 등의 작품명이 예상롭지 않다.

영감을 주기에 사소해 보이는 담배꽂초가 韓씨에게는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것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 희생해가면서 제공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을 금연 캠페인의 하나로 보는 것을 사양한다는 韓씨는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작품에 도움을 준 흡연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소비문화의 노예가 되고 개인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Coverage Clipping

MEDIA	한국경제		
DATE	2003.07.08	SECTION	문화

버려진 담배꽂초, 美를 빛어내다 .. 아트사이드 한원석 개인전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3-07-08 14:43 | 최종수정 2003-07-08 14:43

서울 관훈동 아트사이드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는 한원석(33)씨의 작품 소재는 담배꽂초다.

작품마다 보통 1만개가 넘는 꽂초를 본드를 이용해 뾰곡히 붙인 후 금테를 두른액자로 처리한 오브제 작품이다.

물감을 칠한 꽂초들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나 꽃의 이미지로 바뀌어 평면회화 처럼 보인다.

쓰레기일뿐인 꽂초가 여인,꽃의 아름다움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뒷 면을 보면 담배 핀 후 내다 버린 꽂초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담배는 흡연자에게 5분정도의 "쾌락"을 제공한 후 쓰레기로 변한다.

한씨는 "현대인은 소비문화의 쾌락을 좇고 있지만 담배 꽂초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인스턴트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꽂초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다는 게 작가의 의도다.

재료로 사용한 7만여개의 담배꽂초는 인천공항,런던 히드로공항,도쿄 간사이공항 등 3곳에서 수집했다고 한다.

작가는 다음 개인전에서 꽂초로 지은 집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니코틴 냄새가 진동,금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이 스스로 깨달게 된다.

런던 첼시대학원에서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작가는 현재 도쿄대 건축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Coverage Clipping

MEDIA	VOGUE KOREA		
DATE	2005.12	SECTION	VOGUEART 젊은미술가 특집



Coverage Clipping

MEDIA	Art in Culture		
DATE	2005.08	SECTION	미술

북경에 한국 문화교류공간 '이음' 개관

중국 북경의 공장 지대인 따산즈에는 예술 특구 '798' 지역이 있다. 철거된 공장에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하나둘 열면서 시작된 이 따산즈 798 지역은 현재 전세계 1백여개 갤러리들이 자리를 잡았다. 2003년 제1회 따산즈페스티벌 이후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려,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예술 특구 지역이다. 이곳에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한국 문화공간 '이음' (디렉터 한원석, 김성희)이 문을 열었다.

일본의 동경갤러리, 이탈리아의 마렐라갤러리 등 각국 마다 상업 갤러리들의 분관들이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한국은 상업 갤러리가 아닌 대안공간 성격의 미술전시장과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는 '문화교류공간' 을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다. 디렉터 한원석은 "한국 대중문화의 원활한 교류와 더불어 순수 예술의 교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 관련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관전 〈브러시 아워〉(7. 28~8. 30)전은 객원큐레이터 김윤경이 함께 기획한 전시다. 참여작가는 김성수 박민준 신영미 오정일. 회화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트렌드와 비교적 구상 미술이 앞서는 중국 화풍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젊은 감성을 내세워 '이음' 의 색깔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음'에서는 개관에 앞서 지난 5월 서진석, 김수현이 기획한 〈바나나 서퍼〉전(윤영석 임영선 문주 이음백 정연두 이종근 김기라 외 중국 작가 5명)을 열어, 한국과 중



왼쪽 - 이음 전시장 내부 | 오른쪽 - 참여작가와 디렉터(한원석, 김성희) 및 스태프

국의 교류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 앞으로 '이음'은 기획전, 영화제 개최는 물론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지던스 작가는 내년에 열릴 따산즈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다. | 호정훈 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ACROFAN		
DATE	2012.05.24	SECTION	공연/전시

Home >

블루스퀘어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원문복사 링크복사

[분야] 공연/전시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 2012.05.24. 19:41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오는 5월 31일 자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NEMO'(네모)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하여 만든 3층식 전시공간.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띄어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컬처파크 프로젝트"란 아트스페이스 'NEMO'와 '아트월'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인큐베이팅 하는 '아트 파크', 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의 형식으로 생활상작자들과 시민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축제의 장을 열 '플레이파크', 기업과 연계한 디자인 팝업 스토어 및 문화마케팅을 진행하는 '멀티 파크'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이다.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전방위에서 '경험' 및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크로팬 편집국 ■ Copyright© ACROFAN

Coverage Clipping

MEDIA	CNBNEWS		
DATE	2012.05.24	SECTION	문화/생활

문화생활 이태원서 공연과 순수 미술 등 '종합 예술' 경험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CNBNEWS 김대희 기자 / 2012-05-24 09:53:04

- [속보] 병원비 돌려받는 메리츠화재 '100세 의료실비보험' 가입폭주!
- [속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인기폭주!

WEC



▲ 복합문화공간 NEMO. ©2012 CNB뉴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31일 자사가 운영하는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NEMO'(네모)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Coverage Clipping

블루스퀘어 [삼설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해 만든 3층식 전시공간.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띄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컬처파크 프로젝트"란 n 아트스페이스 'NEMO'와 '아트월'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 발굴,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인큐베이팅 하는 '아트 파크', n 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의 형식으로 생활창작자들과 시민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자생적인 축제의 장을 열 '플레이파크', n 기업과 연계한 디자인 팝업 스토어 및 [문화마케팅](#)을 진행하는 '멀티 파크'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이다.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전방위에서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하고 감성적 충족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나아가 다문화 중심인 이태원 특성을 살린 이태원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미술,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며 "블루스퀘어가 공연장 개념을 넘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희 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NewsTomato		
DATE	2012.05.24	SECTION	생활경제

인터파크씨어터, 31일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 개관

입력 : 2012-05-24 오후 2:25:19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인터파크\(035080\)](#)씨어터는 오는 31일 자사가 운영하는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네모(NEMO)'를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네모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454.38㎡(137.69평) 규모다.



이 공간은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해 만든 3층식 전시공간으로 꾸며졌다.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통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인터파크씨어터는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장르 예술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각종 행사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양선 인터파크씨어터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루스퀘어는 지난해 11월4일 개관해 현재 '캐치미이프유캔'을 공연 중이며, 오는 31일부터 뮤지컬 '위키드' 국내 초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Coverage Clipping

MEDIA	OSEN		
DATE	2012.05.24	SECTION	문화/공연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 17개 컨테이너 박스 결합한 3층식 건축물

[OSEN=강희수 기자]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오는 31일 국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NEMO'(네모)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로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하여 만든 3층식 전시공간이다.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채택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Coverage Clipping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스퀘어는 지난해 11월 4일 개관했고 31일에는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초연을 앞두고 있다.

100c@osen.co.kr

Coverage Clipping

MEDIA	국민일보 쿠키뉴스		
DATE	2012.05.24	SECTION	문화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내 새 복합문화공간 개관

2012.05.24 14:56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좋아요](#) 0

[+ 확대](#) [- 축소](#) [인쇄](#)



[쿠키 문화]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오는 31일 국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네모'(NEMO)를 개관한다.

'네모'는 '뉴 이모셔널 무브먼트'(New Emotional Movement)와 '뉴 멀티 컬처 오브젝트'(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로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하여 만든 3층식 전시공간이다.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채택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터파크씨어터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DATE	2012.05.24	SECTION	속보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복합문화공간 생겼다 '네모'

NEWSis.() 기사입력 2012-05-24 19:07



NEWSis.()

【서울=뉴스시스】 이재훈 기자 =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의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가 31일 개관한다.

네모는 '뉴 이모셔널 무브먼트(New Emotional Movement)'와 '뉴 멀티 컬처 오브젝트(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다.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딩 하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454.38㎡(137.69평)에 들어선다.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17개를 연결·결합해 만든 3개층 전시공간이다.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꾸몄다.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 겸 미술가 한원석씨가 설계했다.

인터파크씨어터는 네모를 영상·건축 등 예술분야 전시를 비롯, 아트페어·심포지엄·세미나 등을 여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alpaper7@newsis.com

Coverage Clipping

MEDIA	헤럴드 경제		
DATE	2012.05.24	SECTION	연예/스포츠

블루스퀘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한다

2012-05-24 16:08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이달 31일 자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네모)**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해 만든 3층식 전시공간이다. 노란색과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띄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오늘의 화제 집중

- ▶ 흥분양가 5400만.6500만 수익률12%대 복출형 프리미엄오피스!
- ▶ 옆집 엄천아 수학 1등급의 비밀은?
- ▶ [속보]-대명리조트 (콘도) 여름성수기 특별분양 구입찬스..!
- ▶ 인삼 다당체 진산 함양면역 증강작용 탁월! 압국복!!
- ▶ 우리아이 키는 180cm! 비법 대공개
- ▶ 김치다이머트로 매일 하루 1Kg씩 뺀다고?

문자메시지로 영어공부

- ▶ 5월 최고 증권 수익전략~헤럴드원!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overage Clipping

인터파크씨어터의 “컬처파크 프로젝트”란 n 아트스페이스 ‘NEMO’와 ‘아트월’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인큐베이딩 하는 <아트 파크>, n 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의 형식으로 생활창작자들과 시민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축제의 장을 열 <플레이파크>, n 기업과 연계한 디자인 팝업 스토어 및 문화마케팅을 진행하는 <멀티 파크>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이다.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전방위에서 ‘경험’ 및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김양선 인터파크씨어터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스퀘어는 지난해 11월4일 개관, 뮤지컬 <조로>를 시작으로 <엘리자벳> 등 국내 초연대작들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으며, 현재 <캐치미이프유캔>이 국내외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항중이다. 오는 5월 31일에는 2012년 최고의 기대작인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초연을 앞두고 있다.

/yeonjoo7@heraldm.com

Coverage Clipping

MEDIA	TVREPORT 방송전문인터넷미디어		
DATE	2012.05.25	SECTION	공연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네모' 개관...한원석 설계작

기사입력 2012-05-25 11:24:26

[f](#) [e](#) [t](#) 기사 공유하기 



Coverage Clipping

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NEMO(네모)'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하여 만든 3층식 전시 공간이다. 옐로 오렌지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띄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 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 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컬처파크 프로젝트'는 n 아트스페이스 'NEMO'와 '아트월'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인큐베이팅 하는 '아트 파크', n 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의 형식으로 생활창작자들과 시민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축제의 장을 열 '플레이파크', n 기업과 연계한 디자인 팝업 스토어 및 문화마케팅을 진행하는 '멀티 파크'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전 방위에서 경험 및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으로 시작한 이 공간은 네모를 기점으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트렌디한 컬처 파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verage Clipping

한편 블루스퀘어는 지난해 11월 4일 개관한 후 뮤지컬 '조로'를 시작으로 '엘리자벳' 등 국내 초연대작들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으며, 현재 '캐치미이프유캔'이 국내외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항 중이다. 오는 31일에는 2012년 최고의 기대작인 뮤지컬 '위키드'의 국내 초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인터파크씨어터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기사일자: 2012-05-25 11: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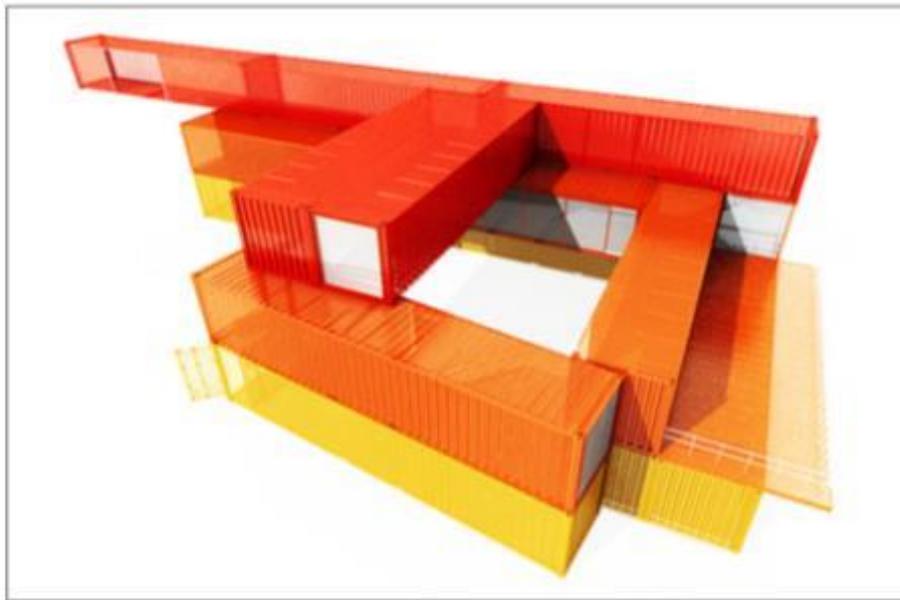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웨이브		
DATE	2012.05.25	SECTION	문화

블루스퀘어 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17개를 연결한 독특한 설계 눈길 끌어

경지혜 기자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가 블루스퀘어가 5월 31일 블루스퀘어 내에 복합문화공간 'NEMO'를 개관한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다. 이 약어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NEMO'는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3층식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진 'NEMO'는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이번 개관은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NEMO' 공간은 디자인, 영상, 건축 등을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유치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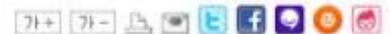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웨이브) nwave@newswave.kr

Coverage Clipping

MEDIA	헤럴드 경제		
DATE	2012.05.26	SECTION	라이프

뮤지컬극장 '블루스퀘어'에 갤러리 '네모'생겼다

2012-05-26 13:39



{헤럴드경제=이영란 선임기자} 서울 한강진역의 뮤지컬 공연장 블루스퀘어에 **복합문화공간 'NEMO'**(네모)가 생겼다.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는 오는 5월 31일 국내 최대의 뮤지컬 **전문공연장**인 블루스퀘어에 'NEMO'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을 오픈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 'New Multi-Culture Object'를 줄인 말로, 사각공간이라는 외형적 특성을 압축한 단어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예술을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454.38㎡(137.69평)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해상운송용 컨테이너**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해 만든 전시공간이다. 모두 3층으로 이뤄진 'NEMO'는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은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 씨가 맡았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두루 담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NEMO'의 첫 전시는 'Fanta-Cube'라는 타이틀로 열려 개관을 알리게 된다. 이에따라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과 일반 시민들은 공연과 순수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 전방위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화제 집중

- ▶ 총분양가 5400만.6500만 수익률12%대 복층형 프리미엄오피스!!
- ▶ 옆집 엄친아 수학 1등급의 비밀은?
- ▶ [속보]-대명리조트 (콘도) 여름성수기 특별분양 구입찬스..!
- ▶ 인삼 다량채 진산 합암면역 증강작용 탁월! 암극복!!
- ▶ 10명 중 7명이 안구건조증... 방치하면 시력저하 된다.
- ▶ 김치다이어트로 매일 하루 1Kg씩 뺀다고?

- 문자메시지로 영어공부
- 5월 최고 증권 수익전략~헤럴드원!

Coverage Clipping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블루스퀘어는 공연장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창조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4일 개관한 블루스퀘어는 뮤지컬 '조로'를 시작으로 '엘리자벳' 등 국내 초연대작들이 공연을 마쳤으며, 현재 '캐치미이프유캔'이 공연되고 있다. 오는 5월 31일에는 2012년 최고의 기대작인 뮤지컬 '워키드'의 국내 초연이 시작된다. / yrlee@heraldm.com

Coverage Clipping

MEDIA	매일경제		
DATE	2012.05.28	SECTION	종합

종합
NEWS

공연장 옆 미술관...블루스퀘어에 전시공간

기사입력 2012.05.28 17:12:22

[☎](#) 차이월드 [t](#) 트위터 [f](#) 페이스북 [m](#) 미투데이

기사

나도 한마디

[KDB대우증권](#) 여행상품권, 가전제품 무료 이벤트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미술관이 들어선다. 삼성카드홀 앞마당에 17개의 해상운송용 컨테이너박스를 연결해 만들어지는 복합문화공간 `NEMO`다.

오는 31일 개관하는 이 공간은 미술작가 한원석 씨가 설계했으며 3층 454.38㎡ 규모에 노란색과 오렌지색 박스를 쌓아놓은 듯한 독특한 외관으로 꾸며졌다.

개관 전시는 `판타-큐브(Fanta-Cube)`전으로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02)6399-7403

[김슬기 기자]

Coverage Clipping

MEDIA	노컷뉴스		
DATE	2012.05.30	SECTION	공연/전시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공연장 넘어 문화트렌드 조성

2012-05-30 11:37 | CBS문화부 한상미 기자 B



뮤지컬 전문공연장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NEMO'(네모)가 들어선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어로,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다. 실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 결합하여 만든 3층식 전시공간으로 블루스퀘어의 아트 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컬처파크 프로젝트'는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전방위에서 경험·참여할 수 있고,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Coverage Clipping

인터파크씨어터의 김양선 대표는 "다각적 문화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장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EMO'는 31일 개관한다. 'Fanta-Cube'전(展)이 개관 전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블루스퀘어는 뮤지컬 전용극장 삼성전자홀과 콘서트 공연장 삼성카드홀을 운영하며 지난해 11월 4일 개관했다. 뮤지컬 '조로' '엘리자벳' '캐치미이프류캔' 등이 공연됐고, 오리지널 내한 뮤지컬 '위키드'가 국내 초연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verage Clipping

MEDIA	뉴시스		
DATE	2012.05.30	SECTION	속보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식

NEWSIS () 기사입력 2012-05-30 12:56



【서울=뉴시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인터파크씨어터-아트스페이스 NEMO 개관식에서 코지 하마다(오른쪽) 큐레이터와 한원석 작가가 FANTA-CUBE전 컨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yatoya@newsis.com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DATE	2012.05.30	SECTION	속보

라오미 작품 소개하는 한원석 작가

NEWSis.() 기사입력 2012-05-30 12:56



【서울=뉴스시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인터파크씨어터-아트스페이스 NEMO 개관식에서 한원석 작가가 공간 디자이너 라오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yatoya@newsis.com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스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시스	SECTION	속보
DATE	2012.05.30		

NEMO 설계 개요 설명하는 한원석 작가

NEWSis. () 기사입력 2012-05-30 12:56



【서울=뉴스시스】 김인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인터파크씨어터-아트스페이스 NEMO 개관식에서 한원석 작가가 NEMO 설계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yatoya@newsis.com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스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verage Clipping

MEDIA	스포츠서울신문		
DATE	2012.05.30	SECTION	감성놀이터 휴 - STAGE

HOME > 감성놀이터 휴 > STAGE

기사제보 🔍 🔍 📄 🐦 📘 🗨️ 📺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 마당에 새 복합문화공간 '네모'개관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는 31일 뮤지컬 전용극장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당에 새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를 개관한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 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자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은 직사각 모양의 의미와,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에 17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3층으로 구성한 약 137평의 공간이다.

개관에 앞서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파크씨어터 김양선 대표는 "공연장을 넘어 더 많은 문화적 기여를 하고 싶어 복합문화공간을 오픈했다. 미술은 물론 건축, 디자인, 패션, 도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걸쳐 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MO의 건축은 한원석 작가가 말마 옐로와 오렌지 컬러의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이색적인 공간을 완성했다. 한 작가는 "블루스퀘어 극장이 회색의 도시에서 파란 바다를 꿈꾼다면 복합문화공간은 니모가 돼 헤엄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옐로와 오렌지 컬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Coverage Clipping

오픈을 기념한 첫 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판타-큐브'전이다. 블루스케머가 공모한 '아트월 프로젝트'에 선정된 김형관, 라오미, 황규백, 황인선 등 4명의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업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일본의 기획자 하마다 코지는 "이태원의 문화는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열리는 젊은 작가의 전시는 말 그대로 판타스틱하다"고 말했다.

김효원기자 eggroll@sportsseoul.com

모바일로 보는 스포츠서울뉴스(무료) 휴대폰열고 22365+NATE/magic@/ezi 접속

2012.05.30 17:38 입력 : 2012.05.30 17:38 수정

MEDIA	한국일보 서울경제		
DATE	2012.05.30	SECTION	문화 Life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문화공간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모' 31일 개관

조상인기자 ccsi@sed.co.kr

입력시간 : 2012.05.30 11:47:17 수정시간 : 2012.05.30 16:49:20



국내 최대 뮤지컬 전문공연장인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에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NEMO(네모)'가 31일 문을 연다.

블루스퀘어를 운영하는 인터파크씨어터가 블루스퀘어 삼성카드 홀 앞 454.38㎡(약 138평)에 17개 컨테이너 박스를 오렌지색과 노란색 등으로 칠한 다음 어긋나게 결합해 냉난방시설을 갖춘 3층식 건물로 지었다.

김양선 인터파크씨어터 대표는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개념 '컬처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으로 NEMO는 디자인·영상·건축 등 예술분야의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와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컨테이너박스 전시공간의 설계는 미술작가 한원석 씨가 맡았다. 화사한 색깔은 이 공간의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표현한다. NEMO는 뉴 이모셔널 무브먼트(New Emotional Movement)와 뉴 멀티컬처 오브젝트(New Multi-Culture Object)의 약자로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창조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권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verage Clipping

MEDIA	머니투데이	SECTION	생활문화
DATE	2012.06.01		

극장 마당의 컨테이너 "속이 예술이네"

인터파크씨어터, 블루스퀘어내 복합문화공간 'NEMO' 개관... '판타큐브'展

머니투데이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2.06.01 14:55 | 조회 : 434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에 복합문화공간 'NEMO'가 지난 5월31일 개관했다. ©인터파크씨어터

Coverage Clipping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남산의 끝자락과 이어지는 터라 주변에 녹색 기운이 가득하다. 여기에 어느날, 노랑과 주황의 시큼하고 다소 도발적인 느낌의 컨테이너 박스가 동지를 들었다.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지난해 11월 개관한 블루스퀘어 내 너른 마당에 새롭게 들어선 복합문화공간 'NEMO'(네모)다.

'NEMO'는 'New Emotional Movement'와 'New Multi-Culture Object'의 줄임말로 공간이 주는 외형적 특성과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한다.

김양선 인터파크씨어터 대표는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루스퀘어 자체는 공연을 위한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과 가기 이용안내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 'NEMO'의 내부. © 인터파크씨어터

그래서일까, 구조물의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유행을 타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컨테이너 하우스'를 택했다.

전체면적 454.38㎡(137.69평)에 3층 규모로 4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컨테이너 17개를 조합하거나 쌓아올렸고, 1개를 변형해 계단을 만들었다. 외관은 블루스퀘어 공연장 건물이나 주변 경치의 푸른색과는 보색대비를 이루는 주황과 노랑으로 과감하게 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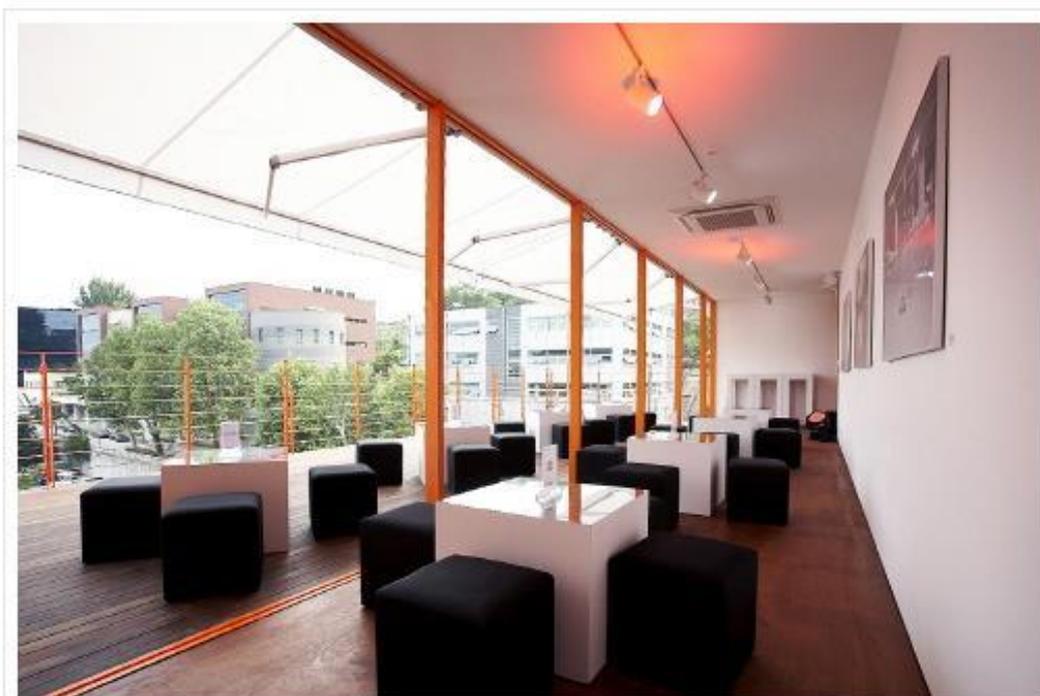
공간의 설계를 맡은 아트디렉터이자 건축가인 한원석씨는 "컨테이너를 쌓았듯이 문화도 소통하면서 점점 쌓여가는 것 같다"며 "이 공간이 공연을 보기에 앞서 극장과 관객, 문화가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verage Clipping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져 디자인, 영상, 건축 등 예술 분야 전시를 비롯해 아트페어, 심포지엄,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중인 작품의 내용이나 캐릭터와 연계한 전시도 보인다.

지난 31일부터는 개관기념으로 '판타큐브'(FANTA-CUBE)전시가 시작됐다. 4명의 젊은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한 곳에 모아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첫 번째 전시 프로젝트만큼 더욱 눈길을 끈다.

'밥풀'을 재료로 밥그릇, 숟가락, 냄비 등 다양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들어낸 황인선,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상징성과 공간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오미,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 영상을 설치조형물과 함께 선보인 황규백, 형형색색의 테이프로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김형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6월30일까지 이어진다.



↑인터파크씨어터가 블루스퀘어 내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 'NEMO'가 지난 5월31일 개관했다. ©인터파크씨어터

Coverage Clipping

MEDIA	CNB저널		
DATE	2012.06.04	SECTION	문화

[CNB저널 제277호] / 등록일 : 2012-06-04 10:41:23

“컨테이너가 예술을 날라요”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나타난 컨테이너박스 문화공간 ‘NEMO’



▲ 아트스페이스 네모 전경. (사진 = 왕전오 기자) ©2012 CNBNEWS

이태원에서 남산 1호터널 방향으로 가다보면 한남동에 뮤지컬 전문 공연장 블루스퀘어가 있다. 하지만 그 옆으로 주변의 색상과 대조되는 강렬한 노란색과 오렌지색의 컨테이너 박스 17개가 눈길을 끈다. 주변의 건물과는 워낙 다른 분위기라서 뭐 하는 곳일까라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이곳은 인터파크씨어터가 운영하는 블루스퀘어 안에 새로운 문화예술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문을 연 복합 문화예술 공간 네모(NEMO)다.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앞 137.69평(454.38㎡) 규모의 너른 마루에 자리한 이 공간은 실제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17개를 연결하고 결합해 만든 3층식 전시공간이다. 블루스퀘어의 아트디렉터이자 미술작가인 한원석이 설계했다.

아트스페이스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의 연중 문화사업 캠페인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자인, 영상, 건축 같은 시각예술 전시는 물론, 아트페어, 심포지엄, 세미나 등 문화예술 행사를 벌이는 종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아트스페이스 네모 내부 모습, (사진 = 황건오 기자) ©2012 CNBNEWS

'컬처파크 프로젝트'는 3가지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사업이다. △아트스페이스 NEMO와 아트월 등을 통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지원하고 문화예술을 인큐베이팅하는 '아트 파크' △페스티벌과 아트페어 등의 형식으로 생활창작자들과 시민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자생적인 축제의 장을 열 '플레이 파크' △기업과 연계한 디자인 팝업 스토어 및 문화마케팅을 진행하는 '멀티 파크'다.

인터파크씨어터 관계자는 "블루스퀘어를 찾는 관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공연과 순수 미술, 설치, 건축, 패션, 도서 등 문화를 다각도로 경험 및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문화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아트스페이스 NEMO는 개관전으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젊은 작가들의 개성과 자유로운 발상을 보여주는 '판타-큐브(FANTA-CUBE)'전을 연다. 참여 작가들은 블루스퀘어가 공모한 '아트월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김형관, 라오미, 황규백, 황인선 4명이다. 독특한 소재와 신선한 발상의 작업들이다.

라오미는 우리 전통민화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상징성과 공간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신유토피아 공간 혹은 이상화된 현실의 이미지를 평면회화와 설치작품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을 캐스팅과 몰딩 기법을 통해 해학적인 조형 작품과 가상적인 밥상 풍경으로 연출한 황인선의 작품이 함께 놓여 있다.

황규백은 환경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고찰을 스톱 모션 사진 작품의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 영상으로 보여준다. 또한 현실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일상을 형형색색의 테이프를 통해 구체적 이미지로 정교하게 재현하는 김형관의 작품도 볼 수 있다.

한원석 건축가/작가



▲ (사진 = 황전오 기자) ©2012 CNBNEWS

“아트스페이스 NEMO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란 같이 어울리고 즐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어진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추가한다는 건 쉽지 않죠. 공간 활용에 있어 가장 알맞은 게 컨테이너였어요.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는 생활공간으로도 쓰이고 있죠. 컨테이너로 지은 건물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히려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금액도 저렴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죠. 17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했는데 기획부터 설계를 거쳐 완성까지 총 7개월 가량이 걸렸습니다. 이 공간의 원래 이름은 니모(NEMO)였지만 다들 네모로 읽어서 ‘네모’로 통일했습니다.”

인터파크씨어터 김양선 대표



▲ (사진 = 황진오 기자) ©2012 CNBNEWS

“아트스페이스 NEMO는 문화적 기업을 표방하는 인터파크의 컬처파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첫 시도이자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블루스퀘어를 단지 공연예술만을 보여주던 공간이 아닌 미술, 건축, 디자인, 도서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다각적 문화 사업을 통해 다문화 중심지역 이태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김대희 기자

김대희 기자 [CNB저널 제277호]

Coverage Clipping

MEDIA	경향신문		
DATE	2012.06.04	SECTION	문화

문화
미술

미술관으로 환생한 컨테이너

주영재 기자 jyeongi@kyunghyang.com

입력 : 2012-06-04 21:48:05 | 수정 : 2012-06-04 21:48:05

글자크기 + - ≡ ≡ ≡

담배꽂초로 꽃을 만들고, 버려진 **헤드라이트**로 침성대를 쌓고, **스피커**를 모아 종을 만들었다. 작가 한원석(41)은 버려진 것들을 모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새로 착수한 작업은 **컨테이너**로 만든 미술관이다. 그가 설계해 지난달 31일 개관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복합문화공간 'NEMO'**(사진)다. 바로 옆의 **뮤지컬** 공연장 블루스퀘어와 함께 아트파크를 이룬다.

이 기사 어떻게?

Howto >

재밌네요 유익해요 무용해요 황당해요 쓸쓸해요

0 0 0 0 더보기 ▾

작가 한원석은 18개의 해상수송용 컨테이너를 조립해 전체적으로 3층으로 이뤄진 직각 구조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작업은 색채 효과가 두드러진다. 주황색과 노란색의 원색은 바로 옆의 푸른색의 블루스퀘어와 대비를 이루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한원석은 "푸른색은 문화의 바다를 상징하고 나의 컨테이너는 그 속을 노니는 열대어"라고 했다. 네모라는 이름은 원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었던 열대어 '니모'를 염두에 둔 것이다.



Coverage Clipping

한 작가는 이미 지어진 건물 위에서 새롭게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컨테이너를 선택한 이유라고 했다. 간단한 **용접** 작업으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컨테이너 구조물의 매력이다. 인테리어를 포함해 평당 150만원 정도가 들었고 되팔아도 절반을 회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

컨테이너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럽에서는 컨테이너 기숙사와 **호텔** 등 컨테이너형 주거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배영환 작가가 컨테이너로 도서관을 지었고 2009년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플라톤 콘스트할레'도 28개의 군수용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들어졌다.

한 작가는 버려진 것들을 활용한 작업들을 '재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생'의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미술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는 '환생'이 자신의 관심 주제라고 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연합뉴스		
DATE	2012.12.11	SECTION	문화

<문화소식> 블루스퀘어 네모, '2012 잇어워드' 수상

연합뉴스 기사인력 2012-12-11 10:58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운영하는 한남동 공연장 블루스퀘어 내 복합문화공간 NEMO(네모)가 '2012 잇어워드(2012 it Award)' 환경 공간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잇어워드(www.itaward.or.kr)는 디자인산업 10개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100인의 CEO가 그해 가장 우수한 디자인 및 디자이너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두 번째로 수여됐다.

지난 5월 30일 문을 연 네모는 한원석 작가의 설계로 화물수송용 컨테이너 박스 18개를 연결해 만든 3층짜리 전시 공간이다.

▲미술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는 아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아트 아카이브와 한국미술'이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팀 팀장, 심보미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 서진석 대안공간 루프 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02-733-3707.

mong0716@yna.co.kr

Coverage Clipping

MEDIA	머니투데이		
DATE	2012.12.07	SECTION	문화

블루스퀘어 문화공간 NEMO, 우수 디자인 선정

대한민국CEO 100인이 선정, '2012 it Award' 환경·공간 부문 1위

머니투데이 이영주기자 | 입력 : 2012.12.07 18:23

공유 : +1 { 0 } Tweet { 0 } 좋아요 { 0 } 스킵목록 : 0

사진과가게 이용안내



1독한문화공간 NEMO(서프)

인터파크씨어터(대표 김양선)는 서울 한남동 뮤지컬·콘서트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 내 복합 문화공간 NEMO(네모)가 '2012 it Award'(잇어워드) 환경·공간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블루스퀘어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가 걸차파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설치미술가 한철선 작가가 설계하고 화물수송용 컨테이너 박스 18개를 연결해 3층 구조로 만들었다.

이번 잇어워드 심사에서 친환경 및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소재활용과 표출성을 극대화한 공간감이 문화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잇어워드는 디자인산업 10개 분야를 대표하는 100인의 CEO가 그해 가장 우수한 디자인 및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선정 방법은 디자인 산업 10개 분야에서 1000여 개 작품을 선정하고 각 분야별 디자이너 10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산업의 대표 CEO 100인의 평가로 최종 선정한다. 까다로운 심사과정 때문에 선정작은 영실상부 그해 국내 디자인 업계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가 발굴한 신진 작가 4인의 기획전시 '판타-큐브전'를 개관전으로, 현대예술사건의 거장 '안 사우익 사진전', 안세권 작가와 컨템포러리뮤직밴드 CMB567의 '길주와 원곡전', '힐트! 마가스카르 체험전' 등을 개최했다.

잇어워드 시상식은 오는 1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Coverage Clipping

MEDIA	CNB저널		
DATE	2012.12.07	SECTION	문화

[CNB저널 제302호] / 등록일 : 2012-12-07 11:54:30

복합문화공간 NEMO, '2012 it Award' 환경·공간부문 선정 대한민국 CEO 100인이 선정한 2012년 우수 디자인



▲ 복합문화공간 NEMO 전경. ©2012 CNBNEWS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한남동 뮤지컬콘서트 전문공연장 블루스퀘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NEMO가 '2012 it Award' 환경·공간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블루스퀘어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www.bluesquare.kr 대표 김양선)가 렐처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에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원석 작가가 설계하고 화물수송용 컨테이너 박스 18개를 연결하여 만든 3층 전시 공간이다.

친환경,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소재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간감, 문화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잇어워드는 디자인산업 10개 분야를 대표하는 100인의 CEO가 그해 가장 우수한 디자인 및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디자인 시상식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선정 방법은 디자인 산업 10개 분야 총 1000여개 작품을 선정, 각 분야별 디자이너 10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 조사를 진행하고, 디자인 산업 10개 분야 대표 CEO 100인의 평가로 최종 선정된다. 까다로운 심사과정 때문에 선정작은 명실상부 2012년 국내 디자인 업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라 볼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 NEMO는 인터파크씨어터가 발굴한 신진 작가 4인의 기획전시 '판타-큐브전'을 개관점으로, 현대예술사진의 거장 '안 사우드 사진전', 만세권 작가와 컨템포러리뮤직밴드 CMB567의 '질주와 침묵 전', '헬로! 마가스카르 체험전' 등 새롭고 다각적인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왕진오 기자



왕진오 [CNB저널 제302호]

Coverage Clipping

MEDIA	건축문화	SECTION	focus
DATE	2013 3월호		

188
Focus
Build the occupation
189

HAN WON SUK

: 직업을 건축하다.



‘살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성이 담긴 대화는 내가 건축과 예술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소통이다.’ -한원석-

한원석은 건축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2001년부터 서울 및 전국 120여 개 도시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공공건축물과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한원석은 건축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2001년부터 서울 및 전국 120여 개 도시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공공건축물과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190
Focus
Build the occupation
191





한원석은 건축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2001년부터 서울 및 전국 120여 개 도시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공공건축물과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월간 디자인		
DATE	2013 11월호	SECTION	Inspiration (p.140)

DESIGN
Inspiration



해외 디자이너의 한국 기념 사진전

Memorable Photographs of Seoul from overseas Designers

- 1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궁금하다.
- 2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는 어디인가?
- 3 요즘 당신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 4 관심 있는 한국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있나?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오방색, 흰복의 선, 태극무늬, 한글 등 대부분의 경우 어마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통적 이미지를 우선 떠올릴 것이다.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주제는 디자이너들에게 영원한 숙제와도 같다. 때로는 넘어 바라본 내 모습이 더 많은 힌트를 줄 때가 있는 법.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해외 디자이너 16명에게 물었다. 이방인의 시선을 빌려 한국적 디자인을 새롭게 발견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다.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 등 한국을 방문했던 디자이너들이 보내준 대답을 모아 월간 <디자인>이 지면으로 작은 사진전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우선로 지나쳤던 풍경을 말나게 바라본 이 작은 전시가 한국적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 기획·책임자 이지, 진행권 조수현·민정 기자



1



데얀 미트로빅 Dejan Mitrovic

1 2013년 7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달달 대나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왔다. 첫인상은 매우 강렬했다. 실, 자연과 도시 환경의 모든 요소가 놀라운 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부터 대학 총장까지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2 지금껏 5개 국가에서 살았고, 각각의 나라에서 특별한 경험과 통찰력, 영감을 얻었다. 세르비아는 항상 최고의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러시아는 감성을 담아 디자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는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프랑스는

모든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즐기려는 태도가 눈에 띈다. 영국은 무언가를 항상 다른 식으로, 그리고 디자인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결합해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3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환경-의학-경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의 주요 관심사다.

4 한국인 직장 동료들은 항상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색을 맞춰 채워입곤 했다. 나는 좀더 거리의 에이전트 매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지금껏 살면서 패션 매장에 그토록 매혹된 적은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패션 브랜드 로우로우(Rowrow)에서 구입한 가방이 매우 마음에 든다.

세라미어 북오그리드 출신으로 영업을 7년으로 활동하는 CG인 기획/3D/인간 상담/예술/교육/공로/발 디렉터다. dejanmitrovic.co.kr

1 **관객의 직물 '활명'**
지침 근처에 있는 직기 한원사의 공공 조형 작품 '활명(Rebirth)'. 나는 저물어 가는 공공 작품의 삶과 양에 모두 매료했다. 특히 이 작품은 다목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마음에 든다.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핌	SECTION	생활경제
DATE	2014.03.13		

홈 > NewsPim > 뉴스 > 생활경제

가 가       

글렌피딕 공모전에 국내 대표로 설치미술 한원석 작가 당선

2014-03-13 08:36

[뉴스핌=이연춘 기자]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지난 2달간 진행한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 to 스코틀랜드' 공모전에 [설치미술](#) 분야 한원석 작가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 to 스코틀랜드(이하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는 127년 전통을 가진 글렌피딕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작품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했다.



2014년 국내 대표로 선정된 한원석 작가는 설치미술 분야에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08년 LED TV의 등장으로 사라진 브라운관 TV의 폐 스피커 3088개를 모아 '성덕대왕 신종'을 재현해 희망의 열정을 담은 '형연(洞然)'이란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2008년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돼 현재 부산 APEC다목적관에 영구 전시돼 있다.

또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컨테이너 박스 18개를 연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를 설계했고, 을지로 하나은행 앞에 폐 헤드라이트 1374개로 형성대를 쌓아 불빛을 밝히는 '활생'이라 작품을 남겼다.

한 작가는 "지난 작품인 '활생 및 형연, 화해'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위안'이란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겠다"며 "아주 작고 평범한 보리들이 모여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위안의 존재가 되는 진귀한 위스키로 탈바꿈되는 과정에 매력이 끝났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윌리엄그램앤선즈코리아 김일주 대표는 "많은 작가분들께서 한국대표로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응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원석 작가께서 127년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글렌피딕 증류소에서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증류소에 [기념비적](#) 작품을 남겨 한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램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Coverage Clipping

MEDIA	한국경제tv		
DATE	2014.03.13	SECTION	최신뉴스

글렌피딕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한원석 작가 공모전 당선

www.kbcnews.com 2014.03.13 18:01

기사 | 01월 13일 | 2014.03.13 18:01

주식창 | 2014년 3월 13일

세계 판매 1위 상품들은 위스키 글렌피딕이 지난 2달간 진행한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 to 스코틀랜드' 공모전에 설치미술 분야 한원석 작가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 to 스코틀랜드(이하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는 127년 전통을 가진 글렌피딕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작품 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01. [보통의 생활을 예술로 표현하고 그 내면을...](#)
02. [세계적 명품 위스키 글렌피딕이 그 내면을...](#)



2014년 국내 대표로 선정된 한원석 작가는 설치미술 분야에서 익히 알려진 인물. 지난 2008년 LED TV의 등장으로 사라진 브라운관 TV의 볼 스피커 3천 88개를 모아 '성덕대왕 신종'을 재현해 회당의 영정을 담은 '할연(將仙)'이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2008년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돼 현재 부산 APEC리무궁원에 영구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 한남동 불부스퀘어에 컨테이너 박스 18개를 연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네모(NEMO)'를 설계했고, 종자로 허니은셀 앞에 열 웨드라이트 1천 374개를 설치대를 쌓아 불빛을 밝히는 '한성'이라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 작품인 '관상·할연·화해'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위안'이란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겠다"며 "매주 작고 평범한 보리흙이 모여서 한여인에게 가장 큰 위안의 존재가 되는 견거한 웨스커로 탈바꿈되는 과정에 매력이 끌렸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글렌피딕 아티스트 레지던지는 지난 12년간 18개국에서 90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했으며 예술계에서 선망의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표로는 '태양해부자세, 수문아 니마스카'로 유명한 아티스트 옥정호씨가 참가했으며, 2012년에는 풍속의 기억들을 표현하기로 유명한 국동환 작가가 선발돼 글렌피딕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일주 윌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대표는 "많은 작가분들께서 한국대표로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응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원석 작가께서 127년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글렌피딕 증류소에서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증류소에 기념비적 작품을 남겨 한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배움을 밝혔습니다.

국내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술작가는 스코틀랜드 더프타운에 위치한 글렌피딕 증류소에 3개월간 거주하면서 저별 숙박 및 작업 공간을 비롯해 스코틀랜드 대왕 경비 견역과 증류비(4천2000유로), 작품 촬영비(5천8000유로) 등 최대 2억2천만 유의 후원금을 받게 됩니다.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선발된 예술작가들이 후원사가 마련한 호텔식 숙박시설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편안하게 작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입니다.

Coverage Clipping

MEDIA	아크로팬		
DATE	2014.03.13	SECTION	뉴스


KOREAN Consumer Commerce Life Live


자문위원
김수연

중소기업에 딱! 인텔 정품 CPU 탑재
사무용 PC 경품 이벤트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3D 온라인 게임을 강력하게 즐기는 방법

Commerce Home > Commerce > News

특집 Special Article

견적 Quotes

취재 Report

리뷰 Review

정보 Information

칼럼 Column

발담 Interview Talk

특전 Supplement

뉴스 News

글로벌 피크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한완석 작가 당선

원문봉사 김근홍사

[분야] 생활/문화일반 [작성자] 원문봉 [작성일] 2014.03.13. 19:08

세계 최대 1위 싱글룸트 퀘스키 글로벌피크이 지난 2일간 진행된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4 글로벌 피크 아티스트 컬렉션 30 스코틀랜드' 공모전에 한완석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피크 아티스트 컬렉션 30 스코틀랜드(이하 글로벌 피크 아티스트 컬렉션)'은 127년 전통을 가진 글로벌 피크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작품을 작품을 즐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했다.

2014년 국내 대표로 선정된 한완석 작가는 윌리엄 버키에서 윌리엄 알러진 작품이다. 지난 2008년 LED TV의 등장으로 사라진 브라운관 TV의 폐 스피커 3,088개를 모아 '윌리엄 알러진'을 재현해 최상의 음향을 담은 '윌리엄(果然)'이란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 작품은 2008년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해 현재 부산 APD나루미술에 영구 전시돼 있다.

또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 캠페이너 박스 18개를 전담해 만든 벽화문화공간 '내부(내MO)'를 설계했고, 윌리엄 하나은행 집에 폐 하드디스크 1,074개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만드는 '완성'이란 작품을 남겼다.

한 작가는 "지난 작품인 '완성' 및 '윌리엄, 화해'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윌리엄'이란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였다"며 "이후 작고 활동한 브리콜이 보여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의미의 영감이 되는 퀘스키로 돌아올게요 파종에 의미가 있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피크 아티스트 컬렉션은 지난 12년간 18개국에서 80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했으며 미술계에서 선망의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국내 대표로는 '해설에 바치세, 수프야 니마스카'로 유명한 아티스트 옥중호씨가 참가했으며, 2012년에는 윌리엄 기우를을 표현하기로 유명한 국문환 작가가 선망작 글로벌피크의 주제를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한 윌리엄프린스프린스프린스 김일주 대표는 "많은 작가들께서 한국대표 스코틀랜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응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완석 작가께서 127년 연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글로벌 피크 공모전에서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윌리엄에 기념비적 작품을 남겨 향토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고 밝혔다 하였다.

국내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술작가는 스코틀랜드 어퍼메어에 위치한 글로벌 피크 공모에서 3개월간 거주하면서 개별 숙박 및 작업 공간은 비롯해 스코틀랜드 여행 경비 전액과 체류비(4200만원), 작품 활동비(8800만원) 등 최대 2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선발된 예술작가들이 휴식시간 마련한 호캉스 숙박시설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나 수동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아크로팬 편집국 Copyright © ACROFAN

대한민국 대표 토익강사 유수연의 토익보장반



100% 성공률수업명세서

Coverage Clipping

MEDIA	뉴스		
DATE	2014.06.16	SECTION	문화/생활 (공연/전시)

창원 조각비엔날레, 건축·조경·설치·미디어아트 확대...‘달그림자’

기사등록 일자 : 2014-06-16 07:51:00



【서울=뉴스시스】 임옥상, 울산 옛길 2014-06-15

【서울=뉴스시스】 유상우 기자 = ‘달그림자(月影)’

9월25일부터 11월9일까지 경남 창원시 앞대에서 열리는 제2회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 주제가,

올해 행사는 2012년 마산합포구 불성에서 열린 1회 때와 달리 도시 곳곳으로 확대한다. 불성을 비롯해 마산합동양무두,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 등지에 작품을 설치한다.

한국을 비롯해 몽골, 베트남,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타이, 타이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1개국 42명(팀)의 작품이 나온다. 조각 외에도 퍼포먼스와 지역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시민참여형 작품 등 과정을 중요시하는 프로젝트도 포함한다.

불성에는 임옥상과 송홍상의 작품 등이 들어선다. 이들은 불성 팔각정과 찻집을 리노베이션할 계획이다. 조건환은 불성에 있는 불상의 이야기를 추적해 작업을 진행한다.

모래 아작장이었던 마산합 중앙무두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공공조각과 시민 참여적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광석은 이곳에 오랜 세월 있었던 사일로를 철거한 후 나온 잔해를 활용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운다.



【서울=뉴스시스】 한광석, 설차작품, 마산합 중앙무두 2014-06-15

창원조각비엔날레 단상의 출발점인 문신미술관에는 내러티브가 강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예술감독인 최태만 국민대 교수는 “물질이나 구조보다는 서사적이고 서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작가 천칭아오는 창원 앞대에서 창원시민들과 국민체조 플래시몹을 계획하고 있다. 이원호는 전통시장에서 특화된 사업아이템을 개발해 시장사람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김철식과 무늬만 커뮤니티는 시장상인들이 소원을 적은 메시지를 모아 시장 한 곳에 불상이나 종교적 형상을 만들 계획이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가 문신(1923-1995)의 업적을 기리며 2010년 제정된 문신국제조각상모지영에서 출발했다.

최 교수는 “올해 행사는 조각이란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조각을 기반으로 한 건축과 조경, 설치, 미디어아트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며 “전통적 장르로서의 조각을 지양하고 시민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의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